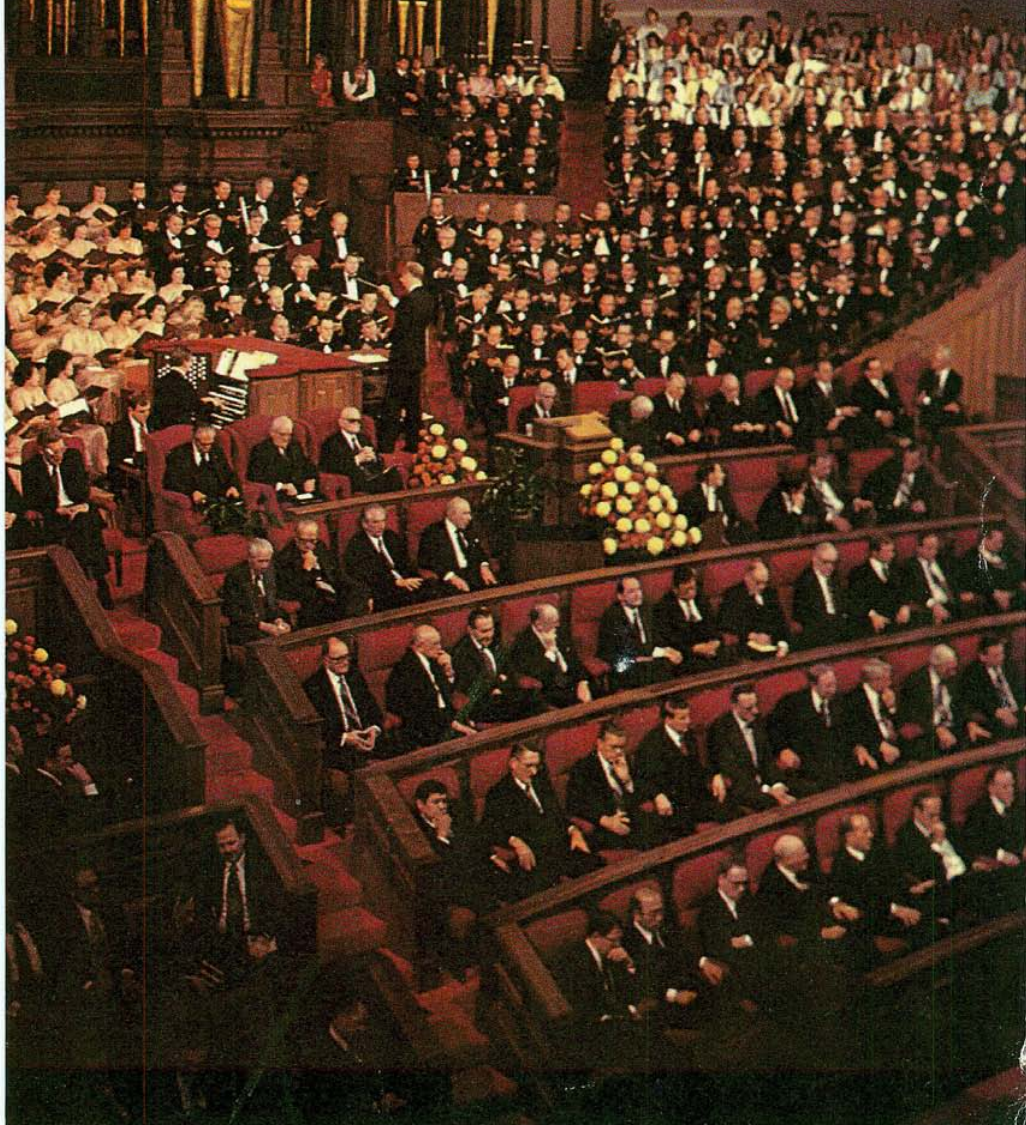


# 성도의 빛 3

1980





###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름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 고문

엠 러셀 블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9 반연차 대회 보고.....	2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4
"하늘에서 온 천사 오렌 침묵 깨고.....	고든 비 헝클리 장로..... 9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더블류 그랜드 뱅거터 장로.....13
미국아 미국아.....	마크 이 피터슨 장로.....17
영성을 유지함.....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22
교회 역원 지지 .....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27
기도와 응답.....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30
예언자 요셉 스미스 .....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35
언어: 신성한 의사소통 방법 .....	찰즈 에이 디데이 장로.....39
"다 배웠고".....	에이 디오도어 티틀 장로.....42
모든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견하시오 .....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45
올바른 결정을 내림 .....	엘 톰 페리 장로.....48
다스리는 자.....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52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56
교회 행정.....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60
교회의 우리 자매들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70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공헌.....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73
물론 사상의 신비.....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79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버나드 피 브록뱅크 장로.....83
변화를 통한 진보 .....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8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92
경전 읽기.....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94
의식물-무서운 전염병.....	토마스 에스 문슨 장로.....97
"많은 환란이 있고 난 연후에 축복이 임할 것임".....	.....애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101
현재와 영생을 위한 행복.....	리차드 스코트 장로.....104
실천해야 할 계명.....	오 레슬리 스톤 장로.....107
"우리는 남녀노소를...테리고 가겠나이다".....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110
성신의 은사.....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113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117
변화속의 불변성.....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120
신권 평의회에서의 상호부조회 역할 .....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126
복지 사업의 신권 행정.....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130
개개인을 축복하여 줌 .....	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134
교회를 세움: 복지 사업 선교사가 중요한 자원이 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138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142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146
자매들의 노년의 모임 말씀.....	.....149
지역 지도자 메시지.....	하 근수 서울 선교부장.....161
지역 소식.....	.....163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76호, 제16권 제3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0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빌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진 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9 반연차 대회 보고

1979년 10월 6일과 7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개최된  
반연차 대회 말씀 및 순서



**최** 근 수년간의 대회는 지상의 하나님  
의 왕국의 경전이나 가르침이나  
교회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발  
표로 인해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대회  
가 되었다.

1979년도 10월 대회는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이 토요일 오후 일반 총회에서  
몇 가지 중대한 발표를 하는 가운데 이  
러한 형식으로 계속되었다. (18페이지  
참조)

태너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세계에 스테이크 축복사의 수가 크  
게 증가하고 업무가 많아지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를 명  
예 축복사라고 부릅니다. 명예 축복사  
란 그로부터 교회 축복사의 직분에 관  
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 축복사에 관해 발표한 후 태너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또한  
킴블 대관장님은 다음 역원들의 명예로  
운 해임을 발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일학교 본부 회장단, 회장 러셀 엠  
넬슨 형제, 두 보좌 윌리엄 디 오즈월  
드 형제 및 제이 휴 베어드 형제 그리  
고 본부 청남 회장단, 회장 닐 디 셰러  
형제, 두 보좌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형제 및 켄 지맥케이 형제입니다. 대회  
에 참석한 사람들은 호명에 따라 칠십  
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이 주일학교와  
청남의 새로운 회장단으로 지지받기 위  
해 발표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이 주일학교의 본부 회장  
단으로 지지받은 역원은 회장에 휴 더  
블류 피녹크 장로, 두 보좌 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 및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  
세 장로이며, 청남의 새로운 본부 회  
장단으로 지지받은 역원은 회장에 로버

트 엘 백맨 장로, 두 보좌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 및 렉스 디 피네가 장로이다.

모든 모임을 감리한 스펜서 더블류 킴 부대관장은 불과 1개월 전에 뇌 수술을 받았으나 대회에 참석하여 모든 참석자의 마음속에 큰 감명을 주었다. 제1보좌인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과 제2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모든 모임을 사회했다. 요양 중에 있는 진 알 쿡 장로와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를 제외하고 교회의 모든 총관리 역원이 참석했다.

대회의 일부 또는 전체가 텔레비전 방송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152개 방송국, 그외에 텔레비전 위성을 통하여 777개 방송국,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과 비데오 테이프를 통하여 7개의 다른 방송국으로 방영되었으며, 미국의 63개 라디오 방송국, 라틴 아메리카(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71개 라디오 방송국, 스페인의 1개 라디오 방송국, 오스트레일리아의 63개 라디오 방송국으로 방송되었으며, 폐쇄 회로 방송만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535개 지역으로 방송되었고, 또한 폐쇄 회로 방송만으로 907개의 지역으로 복지 모임이 방송되었으며, 유럽으로는 비데오 테이프를 방송되었고, 신권회는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및 한국 등 1,688개 지역으로 방송되었다. 또한 5개의 모임은 위성을 통하여 직접 미국의 9개 지역에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었는데, 이 방송은 시험용으로 설치된 “수상기 파라볼라 안테나를 갖춘 지상의 방송국”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대회 이외에도 10월 5일, 금요일에 교회 본부 건물에서 지역 대표 세미나가 열렸다. (100페이지 참조)—편집자—\*



#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대관장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며, 개인 일지를 작성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전** 세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진 알록 장로님과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님에게 우리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범세계적인 대회의 개최 모임에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6개월 전에 개최된 4월 대회 이래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두 번이나 입원하였는데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으로써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또다시 나는 주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네번째 계명에 대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 : 8) 우리의 가정에서 안식일을 엄격히 지킵시다. 모든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일요일은 사냥이나 낚시를 하는 날이 아니며, 수영도 소풍도 뱃놀이도 하는 날이 아니며 그 밖의 다른 운동을 하는 날도 아닙니다. 만일 성도들이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상점은 더 이상 일요일에 문을 열어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은 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59 : 9-10)

그러고 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훌륭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감사와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 일을 하면, 크게 웃으면서는 하지 말지니 이는 죄니라.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로 하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교리와 성약 59 : 15-16)

다시 나는 유실수를 재배하고 소채원을 가꾸라는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대로 행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추수가 끝남에 따라 주님이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시고 내려 주신 풍성한 농작물을 저장하고 간수하고 비축하면서 만족감을 갖습니다.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 전에

권고한 대로 가정과 율타리와 광과 사업장을 말끔히 청소하고 수리하여 페인트 칠을 한 성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많은 찬송 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기도는 영혼의 소망”(찬송가, 186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이 중대한 경륜의 시대의 문을 열게 한 것도 바로 하나의 기도 즉 매우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이가 소리를 내어 드린 첫번째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기도 중에서 말 없이 드리는 기도가 너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드릴 수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기도가 필요한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특히 그 외에도 가족 기도가 필요한 때마다 기도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주위에 가족을 모으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필요에 따라 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곧 여러분의 기도가 진심으로 거저 없이 드리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매우 급하게 분별 없이 기도드리면 그들은 또한 이러한 것도 알게 됩니다.

어려운 것같이 보이나 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할 때 경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부드럽게 진실한 마음으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 유의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청자들이 말하는 “아멘”이라는 울림은 일치감과 승인의 증거입니다. 기도의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석상의 기도 또는 가족 기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일은 시간과 은밀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다만 은밀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특별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망설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보류되는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는 자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필요 사항과 축복에 관한 느낌이나 생각을 억제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주의깊게 경청하기 위해 기도를 마칠 때 잠시 멈춘다면, 다시 말해서 구세주께서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 : 42)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한다면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는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 미국의 정치가, 철학자)의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십시오. 또한 마치 내일 죽게 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존 바틀리트 편, 인용집, 보스톤 : 리틀과 브라운 출판사, 1968년 422페이지)

하루를 시작할 때는 물론 하루가 끝날 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지 허버트(1593-1633, 영국 시인)가 말한 것같이 “잠잘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두 밤을 만드는”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용집, 323페이지)

나는 항상 기도 뿐만 아니라 기도의 힘과 축복에 대해 매우 다정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 주님은 나에게 너무 친절히 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를 때나 건강할 때나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나의 마음속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나는 공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최근에 병중에 있을 때 나를 위해 많은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기도는 나와 사랑하는 아내 카밀라 자매에게 화평과 위안과 영육의 병고침의 훌륭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훌륭한 대회에 여러분과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 번 성도들에게 개인 일지와 가족 기록을 작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나는 새로 그러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말하거나 행한 것은 관심을 끌 만한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해서 전해줄 때 따라 대부분의 우리 가족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말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는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와 가깝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경험담을 읽을 때 그들도 우리를 알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영원한 내세에서 함께 있을 영광스러운 날에는 이미 친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기록을 작성하는 백성이 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출애굽기 24 : 4)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이 하늘과 이 땅에 관하여 네게 계시하노니, 내가 이르는 말을 기록하라.”(모세서 2 : 1)

니파이는 형들과 함께 늦쇠판을 얻기 위해 광야에서 다시 에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 기록을 꼭 얻게 하소서 함은 곧 하나님의 지혜라. 이는 우리가 이 기록으로

조상의 언어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며”(니파이일서 3 : 19)

구세주께서 부활한 후 미래록을 방문하셨을 때 니파이인들에게 현재까지의 기록을 가져오도록 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바를 기록하라…”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며”

“이에 예수께서 명하시 이를 기록 하시니 명하신대로 기록하니라.”(니파이삼서 23 : 4 11, 13)

우리 시대에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이르거니와 일체의 기록을 정리하여 나의 거룩한 신전의 기록 보관소에 넣어 두며”(교리와 성약 127 : 9)

주님의 지시대로 자신이 행하는 일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는 중요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기억의 책과 기록의 작성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바로 오늘부터 완전하게 자신의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하도록 제언하는 바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고 미국이든 다른 어느 곳이든 가족을 파멸하기 위해 열중하고 있는 많은 세력이 있음을 압니다. 현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과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과 가증한 죄인 낙태로 인하여 가족의 유대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낙태는 국가적인 수치가 되고 있으며, 매단히 큰 죄입니다. 이외에 가족을 침식하고 있는 이기적인 산아 제한입니다.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일은 모든 곳에 있는 말일성도 가족의 한결같은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강한 유대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인 순결에서 비롯



되어야 합니다. 순결과 정조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며 고귀한”(모두 9:9) 것이며, 루비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이며, 소뿔과 양떼보다 더 귀중하며, 자동차와 토지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 순결과 정조가 가장 썩어가는 곳에서 가장 썩어가는 가격으로 팔립니다.

정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부자는 물론 신분이 낮은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대학 교수나 학생도 똑같이 향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훌륭한 축복을 받기 위해 생활함으로써 이같은 훌륭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결과 정결과 정조를 잃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널리 만연되고 있는 큰 죄로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강물같은 눈물이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가정의 파탄을 가져 오게 하며, 수많은 무죄한 자녀를 실망시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조의 상실 곧 도덕의 타락으로 많은 나라와 문명이 붕괴되었습니다. 도덕의 타락은 악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부정적, 너물, 불경, 이기심, 부도덕, 방탕 및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이라는 말이 낙인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정조를 지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그리스도 같이 자제하는 생활을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밤 나는 전세계의 수백 개의 지역에 모인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생애에서 우리에게 오래도록 강한 영향을 주는 특별한 여인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의 공헌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형제들에게 중요하며, 우리에게 영원히 가치있는 것입니다.”(엔사인, 1979년 11월호, 48페이지 참조) 나는 오늘 아침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와 자

매와 딸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예와 존경의 높은 지위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

형제 여러분, 우리는 아내 없이는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로운 여인이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과거 세대와 마찬가지로 음주를 즐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음주에 열중하는 풍조는 도덕을 타락시키고 빈곤과 고난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고속 도로에서의 사망과 살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살육을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복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전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갑주인 보화까지 찾으리라”(교리와 성약 89:18-19)

또한 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으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교서 89:4)

흡연 습관은 단순히 지혜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고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순결한 생활을 하고, 간음이나 사통을 전혀 하지 않으며, 배우자에게 완전히 충실하고, 결혼 서약을 존중하면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성병의 해독은 세상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은 가정을 강화시켜 주고, 이혼의 악을 없애며, 우리 시대의 큰 악 중의 하나인 용납할 수 없는 참혹한 낙태의 필요성을 제거할 것입니다.

작고한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18

48년에 이 설교단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언자와 들을 귀를 갖는 것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예언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이 붙은 소책자를 읽은 바 있었습니다. 그는 소책자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100여 년 동안 현대의 예언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의를 가르치는 예언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옳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해 줄 예언자를 원합니다.” 예언자는 과거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는 지금도 말씀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예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들을 귀입니다. (매회 보고, 1948년 10월, 79-80페이지 참조)

나는 우리가 클라크 부대관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오늘날 주님이 직접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영감과 계시를 통하여 현재 주어지는 권고에도 귀를 기울여 따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끝마치기 전에 나의 목소리

가 들리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악을 대항하고 세상의 재난을 해결하는 데 진실로 효력이 있는 유일하고 참된 힘이라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니엘이 본 대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큰 돌처럼 자유의 땅 즉 성스러운 운명을 지닌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로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안 2:45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 가정과 가족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을 위해 이와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드리며, 그들이 나아와서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참된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기도와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 “하늘에서 온 천사 오랜 침묵깨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물몬경의 힘은 “진리처럼 영원하고, 전 인류와 같이 온 세상에 미칩니다.”



고든 비 힐러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모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찬송가를 종종 부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100여 년 전에 팔리 피 프랫 형제가 아름답게 쓴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에는 훌륭한 책의 기적적인 출현에 대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150년 전 가을에 이 책은 뉴욕주 팔마이라에서 처음으로 활자로 조판되고 인쇄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팔리 피 프랫 형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 책에 관해 그러한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1830년 8월에 그는 평범한 전도사로서 오하이오주로부터 동부 뉴욕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리호 운하를 따라가다 뉴워크에서 배에서 내려 16킬로미터를 걸어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햄턴이라는 침례교 집사를 만났습니다. 햄턴씨는 그에게 “어떤 책에 관해서, 어떤 이상한 책에 관해서, 참으로 아주 이상한 책에 관해서” 말했습니다...그는 이책의 내용은 원래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파에 의해 금이나 은

중 어느 하나로 된 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뉴욕주의 팔마이라 근처에 사는 어떤 젊은이가 시현이나 천사들의 성역을 통해 발견하여 번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책을 어떻게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음날 그의 집에서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다음날 아침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하여 거기서 처음으로 나의 눈으로 ‘물몬경’을 보았습니다. 모든 책 중에서 뛰어난 이 책은 나의 미래의 모든 인생 행로에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으뜸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펼치고 표제지를 읽었습니다. 그후 나는 물몬경 금판이 발견되어 번역된 사실에 관한 여러 목격자들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 후 나는 물몬경의 내용을 차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온종일 읽었습니다. 식사는 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것보다 오히려 그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책을 읽어 나감에 따라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며, 인간이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아는 것과 똑같이 명백히 그 책이 참된 책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팔리 피 프랫 자서전, 제 3판,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38년, 36-37페이지)

그 당시 팔리 피 프랫 형제는 23세였습니다. 그는 물몬경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므로 얼마 후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가장 유능하고 설득력 있는 교회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성역을 베풀면서 그는 미

국의 방방곡곡으로 여행하였으며, 캐나다와 영국으로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태평양 제도에서 주님의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남미의 대지에 발을 디딘 최초의 물문장로였습니다. 그는 1857년에 아아칸소주에서 선교 사업을 행하던 중 어떤 박해자의 충격을 받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아아칸소주의 엘마시 가까운 시골에 매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조용한 그곳에는 광택이 나게 잘 닦아진 화강암 비석이 그의 묘소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표면에는 예언이 담겨 있는 그의 훌륭한 찬송가의 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그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잘 알고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은 기 날린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  
 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아침 해 솟아오르네

거룩한 진리 빛 앞에  
 과오의 구름 사라지네  
 영광 밀리시 타오르나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이제 곧 빛 발하리라  
 (찬송가, 222장)

물문경에 관한 팔리 피 프랫 형제의 경험은 그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판의 물문경이 널리 배부되어 임혀짐에 따라 굳센 의지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후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훌륭한 책의 진리에 대한 간증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문경의 초판이 발행된 이래 1세기 반이 지난 지금 물문경은 교회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초판의 발행 부수가 5,000부였지만 오늘날의 발행 부수는 100만부나 됩니다. 현재 물문경은 20

여 개국의 언어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물문경의 힘은 진리처럼 영원하고, 전인류와 같이 온 세상에 미칩니다. 물문경은 표지에 독자가 성스러운 권세로써 물문경의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약속을 실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물문경의 기원은 기적적인 것입니다. 물문경의 기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그 기원은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문경은 지금 여기에 있으며 만져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물문경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논쟁할 수 없습니다. 물문경의 기원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설명이 아닌 다른 설명은 모두 확실성이 없습니다. 물문경은 고대 미대륙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구대륙의 경전인 것과 같이 물문경은 신대륙의 경전임에 틀림없습니다. 각 경전은 다른 경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경전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영 즉 확신시키고 개심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경전은 모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아들이며 부활하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물문경 이야기는 오래 전에 있었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물문경에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에 관한 설명이 현재의 조건 신문처럼 잘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 그보다 더 명확한 영감받은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길을 따르는 사회의 비참한 결과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다른 기록이 없음을 압니다. 물문경 각 페이지에는 한때 이 서반구에서 두 문명국에 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으며 이 나라는 자기 작은 나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더불어 악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야심과 음모를 가진 지도자들의 간계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파멸한 세금으로 압박하고

허울좋은 약속으로 달랬으며, 자유 방방한 호색적인 생활을 묵인하고 권장하기도 하였고 그들을 수백만 명의 죽음과 두 시대에 번성했던 두 문명국의 최후의 완전한 멸망을 조래한 무서운 전쟁에 이끌어 넣었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할 때 번성하고 발전하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무시할 때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무기력과 죽음에 이르는 쇠퇴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다른 경전은 없습니다. 물론경은 구약의 잠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증거해 줍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 : 34)

북된 땅인 미국에 있는 우리는 미대륙에 대한 핵공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계획된 조약에 관한 많은 토론에 대해 지금 듣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과 공포의 균형에 관한 회담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같은 현재의 토론에 관련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이 땅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땅은 북된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요, 종된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이더서 2 : 12)

물론경은 우리의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설득력있게 언급하고 있으나 물론경이 전해 주는 감동적인 가장 훌륭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야인 그리스도이시라는 감명깊은 참된 간증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먼지 많은 길을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구원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제 삼일에 무덤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이 서반구의 백성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는 일찌기 이 서반구의 백성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 : 16)

수세기 동안 나사렛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언의 기록은 성경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성경 외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물론경 표제지) 세상의 구속주이시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출현된 두번째 증언의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확하게 150년 전 이 무렵에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번역된 물론경의 초판이 뉴욕주 팔마이라의 작은 인쇄소에서 활자로 조판해서 인쇄되었습니다.” (물론경, 표제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물론경이 출판되었으며, 물론경의 출판은 교회 조직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 1980년 4월 6일에 우리는 대대적인 축제 행사로, 교회 조직 제150주년 기념제를 가



교회 조직 제150주년 기념제를 기대하며 나는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물문경을 읽도록 당부하며 목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음해 4월 6일까지 183일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읽을 장수는 모두 239장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1장씩 매주 일요일에는 3장씩 읽고 4월 6일에 마지막 5장을 읽으면 예언자 모로나이가 15세기 전에 그의 기록을 끝마쳤을 때 준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읽으며 그 역사적인 날에 물문경을 완독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말이 거짓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속히 이르며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볼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자로 기록하게 한 나의 말을 사람이 무덤에서 부르짖으며 티끌 중에서 부르짖는 것같이 너희들에게 선포하여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기록한 것들이 참된 것임을 너희에게 보이시라.”(모로나이서 10 : 27, 29)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이 이미 물문경을 읽은 회수에 관계없이 각자가 이 단순한 계획대로 읽는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가정에 주님의 영이 더 많이 임할 것이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할 강한 결심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굳은 간증을 가질 것이라고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지금 예언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장로  
칠십일 제일 정교회 회장단

**김** 불 대관장님은 이미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분의 선언하신 것을 뒷받침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2)

이와 같은 교회 대회의 으뜸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세우셨으며 이 예언자를 통하여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그의 뜻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고대의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1:2) 그는 특히 하나님이나 예언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무엇에 대해 말씀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는 말일에 하나님께서 고대의 복음을 충만하게 회복하셨으며 모든 백성과 새로운 성약을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큰 지상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모두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땅덩어리를 흔들 만한 뉴스입니다.

예언자들에 대한 흥미있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언자들이 종종 조급해 하거나 노하는 것같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 갖는 느낌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녀가 귀를 기울여려고 하지 않을 때 갖는 느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한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몇 가지 흥미있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불신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려 하지는 않으십니다. 갈릴레오(1564—1642, 이탈리아 천문학자, 물리학자)는 그의 지식과 상반되게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말하도록 강요당했을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카셀의 인용문, 속담 및 명언 수록집, 더블류 거니 베넘 저, 런던: 카셀 출판사, 1914년, 737페이지)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들은 것과 같지 않으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계시로 밝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 하늘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소련인이 한두 번 우주선을 타고 세계를 일주하고는 하늘에 갔으나 그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의 허술한 논쟁입니다.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동생의 조롱이 섞인 모독적인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꿈에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는 말이 없어요.” 나의 동생의 말은 “분명히 명칭이에게 가장 적절한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모든 곳으로 가보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말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선언과 함께 성신이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나서 여러분이 알게 되리라는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한 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어야 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나 예언자들이나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계시 없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예언자가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인가?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

일 미국 대통령이 예언자라면 그것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신다면 그것은 이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이 아닐까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대개의 경우 우리가 경청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말했던 고대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오히려 간음하고, 일요일에 놀이를 하며,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와 세상의 문제를 위해 이바지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굳은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즉 교회에 속하고 있으나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독실한 회원이 아니며 교회에 참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약을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약을 복용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야채를 먹으라고 권고하던 때를 기억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녀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야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서 양육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구세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구세주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모로니가 천사가 요셉 스미스에게 물문경의 금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물문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낚시질하려고 대동댕이 치기에는 상당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우리가 엘로우 국립 공원으로 가족 소풍을 갈 때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으



로서는 물론 지도자로서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지켰으나 그의 친척 중에 몇 사람은 그의 “엄격한” 종교 생활을 비웃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일요일 아침에 그를 설득시켜 함께 보우트 낚시질을 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생명을 잃지나 않을까 두려워할 만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비웃음과 조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호소하는 듯한 어조로 내 친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드릴 수 없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간구하는 데 별로 확신을 갖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는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의 친구는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더 나은 판단력을 거슬러서 주님이 승인해 주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도록 유혹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곤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전혀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곤 ‘스테이크 부장 일요일에 낚시질하다 익사함’이라는 신문 기사의 제목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지금 예언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많은 슬픔으로 필림을”(교성 1:3)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이라는 훌륭한 찬송가를 열심히 부름으로써 기쁨을 느낍니다. (찬송가, 59장) 나는 이제 복음에 따라 충실히 헌신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있음을 감사하고 있지만 진실로 예언자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대회 때마다 예언자가 주신 메시지와 모든 총관리 역원들의 설교를

통해서 영감과 깊은 감명을 받고 귀가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시험이란 우리가 집에 돌아간 후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킵블 대관장님은 4년 전 대회의 폐회 모임에서 여러 총관리 역원들의 설교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와 지시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자신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귀가하는 즉시 모든 말씀에 따라 온전히 생활하려고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 성도의 빛, 1976년 2월호, 문단 3참조) 왜 우리는 모두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체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가족의 필요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빛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구세주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경전을 읽고 싶일조를 넘니까? 여러분은 이웃과 다투니까? 또는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와 다투니까?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몇 가지 특별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 손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언자의 말씀을 귀기울여 들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언자께서 모든 청년은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한 지 벌써 5년이 됩니다.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계획”, 성도의 빛, 1974년 9월호, 문단 12 참조) 젊은 청년들 중에 절반이 아직도 집에 그대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회 회장과 가정 복음 교사되시는 형제 여러분 왜 아직 심령의 병을 앓고 있는 자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왜 “...상한 자를 싸매며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겔 34:4) 아니합니

까? 주님은 그의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예언자에게 어떻게 귀를 기울이느냐 하는 것은 레이먼이나 레뮤엘이나 니파이 같은 사람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지어 줍니다.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 중에서도 레이먼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불신앙자, 비회원, 충실한 회원과 헌신적으로 봉사하지 않는 회원, 지도자 및 거룩한 신권 소유자 전원에게 나는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권능을 가진 자로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스펜서 더블

류 킴볼 대관장님은 지상의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의 예언자이심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는 바로 이사야의 후계자요, 말라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요셉 스미스와 다른 예언자들의 뒤를 계승한 후계자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되는 사도로서 지상에 계시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복음이 말일에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지금이 바로 준비할 날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권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의 음성은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기쁜 음성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미국아 미국아

“나는 주님이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백성들에게 영국아, 독일아, 멕시코아,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라고...말씀하시는지 자문해 봅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여행한 후 그의 교향으로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의 교리에 놀랐으나 한편 감정을 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가르치려 하는 줄 알고는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있지 아니하냐”(마가복음 6:3)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배척하므로 비탄에 젖었으며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마가복음 6:6) 여기셨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교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막 6:4)

그러나 그는 나사렛에서만은 거절당하지 않았읍니다. 그의 성역이 끝날 무렵에는 거의 온 나라가 그를 배척하였던 것 같았읍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배척당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37)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이 배척의 결과, 즉 그들이 자초하게 될 비극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마태복음 23: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황폐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후 몇 년이 지나서 로마 군대가 성지를 휩쓸어 버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았을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예언을 완전히 나타내 준 큰 파멸이었습니다.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마태복음 24:21)

조세퍼스(주후 37~100, 유대 역사가)가 그의 기록에서 그 환난을 묘사한 것과 같이 거의 2천년이 지난 오늘일지라도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웃 민족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생각을 돌리며 예언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황폐가 닥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후손들에게 임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열두 지파가 포로로 잡혀 끌려갔읍니다. 두 지파의 백성들이 돌아왔으나 로마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열 지파의 백성들은 온 세상으로 분산되어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배반의 결과로 황폐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나타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싸워 살아 남을

수 있는 백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영원한 교훈을 어기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나는 경전에 기록된 이와 같은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고대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척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우리에게도 황폐가 임할까요?

이른바 기독교자들은 그에게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입으로는 그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범죄와 부패 행위로써 그를 부인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위선을 경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욱 온 힘을 기울여 위선에 대항하는 자는 없습니다. 기독교 국들은 진실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순종합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의 성스러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은 사방 어디에나 있습니다. 순결의 참된 의미는 거의 망각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법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그의 거룩한 의식이 변경되었거나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상실되었습니다. 각 종파의 신조에는 인간의 가르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사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옛날에 나사렛에서 이상히 여기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불신앙을 이 상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으나

기독교인들이 모두 똑같은 것을 말하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파가 없어야 한다고 말 하였음에도 현대의 기독교에 이같이 많은 종파가 있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는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판단력을 갖고 완전히 단합해야 하고 각파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고전 1장 참조)

기독교인들 사이에 생긴 분파와 기독교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합니까? 우리가 그를 배척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배척하는 것일까요.

침례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 곧 성찬을 들 때 주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또다시 맺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관한 성스러운 상징물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성약을 확인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찬을 들 때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축복된 떡과 물을 먹음으로써 그 약속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축복된 떡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찢긴 살을 상징합니다.

축복된 물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무한한 고통을 겪으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그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교성 19:18 참조)

속죄는 이제까지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속죄의 덕택으로 우

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복음대로 생활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각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축복된 떡을 먹을 때 이성스러운 상징물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로서 우리가 현세에서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성약에 그러한 구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우리의 성약에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며 그의 거룩한 의식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순종에는 순결, 진실, 고결, 정직, 순수함, 사랑, 절제, 충실,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행함, 형제애, 인내 및 헌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 : 15) 그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말일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또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진지하게 다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므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현대의 세상은 고대의 세상에 입한 것과 똑같은 황폐를 똑같은 이유로 자초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

은 그의 시대에 멸시받았지만 모든 사람, 심지어 그의 원수들조차 회개한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 : 37)

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는 주님이 왜 이와 같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현대의 백성들 이에게 말씀하시는지 자문해 보며 그가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의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성 1 : 35 참조)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냐”

혹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국아 영국아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냐”

혹은 “독일아” 또는 스칸디나비아아 또는 지상에 사는 다른 백성들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냐”

우리가 이 현대에서 그를 배척하면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겼을 때의 배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진능하신 하나님을 무관심으로 인하여 또는 고의로 배척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직도 우리의 귀에 쟁쟁합니다.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교성 6 : 12)

그의 계명은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덕과 정직과 다른 미덕에 관한 그의 표준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와 같은 표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기 위해서 주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옛날과 똑 같은 형태로 황폐가 임하리라는 것을 뜻합니까?

왜 입법부는 동성애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 부도덕한 행위를 판매하게 처리해야 할

니까? 왜 국가의 관리들은 악덕 행위를 너그럽게 보아 주며 심지어는 그러한 행위를 옹호해야 합니까? 왜 입법자들과 법원이 이 땅의 헌법의 이름을 빌어 기도와 경전 낭독을 반대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볼 수 있는가?”, 찬송가, 영문, 131장)

그들은 기독교적인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지지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중립 상태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중립 상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지지하든가 반대하든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고 있습니다. (마 12:30 참조)

왜 입법부는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 것을 찬성하고 일요일 철시 법률을 폐기시켜야 합니까? 이른바 기독교의 백성들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용납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연로 부족과 기타 불편한 것으로 인하여 피로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활동을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합니다. 왜 우리는 성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환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처해 있는 사실을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맹목적으로 큰 재난 속으로 뛰어들어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범죄와 모든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하고 올바른 단계를 밟아서는 안 됩니까?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완전히 순종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나라가 진실로 그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지금 미국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영국이나 멕시코나 스칸디나비아

나 독일이나 동양이나 남미나 기타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법을 회개하며 그의 거룩한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전쟁의 짐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의 짐은 물론 개인과 공공의 막대한 부채의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개인적인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러한 짐에서 해방된다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크게 덜어지게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짐에 비교해 볼 때 참으로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의 멍에는 쉽습니다. 또한 그는 따뜻한 사랑으로 회개한 자를 모두 환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아 미국아 네가 오기를 원할진대 내가 아직도 너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영국아, 스칸디나비아아, 멕시코아, 독일아, 일본아, 한국아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여,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그에게로 나아온다면 그는 지금도 여러분을 모으려고 하시며 영적인 양식을 주시며

번성하도록 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같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또한 왜 하나님이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와 남미와 멕시코와 동방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모든 다른 나라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노래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그에게 마음을 돌이키면 그는 각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전쟁과 분쟁과 빈곤과 실직 문제와 실업 수당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범죄와 도덕적인 부패와 그들에게 뒤따르는 모든 질병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매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상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기꺼이 즉시 그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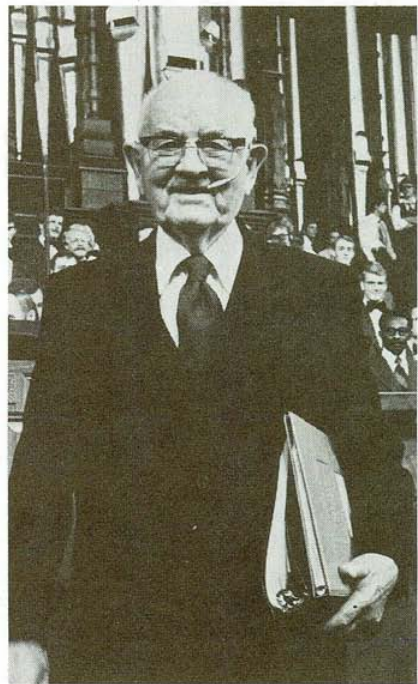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의미한 아름다운 말로 주의를 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엄연한 사실, 즉 생의 실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미대륙에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여 200년간 계속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평화와 번영이 있었습니까. 200년 동안 전쟁도, 범죄도, 감옥도, 빈곤도, 도덕적인 타락도 죄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낱 이야기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사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결코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조건을 따른다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수십억 달러의 군사비를 평화를 추구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수십억 달러를 인류를 향상시키는 일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종간의 분쟁도, 파업도, 불매 동맹이나 공장 폐쇄도 군대나 해군도 그리고 인공 위성에 의한 간첩 활동도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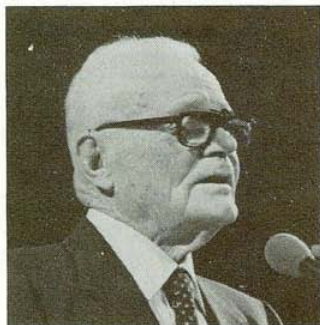
그것은 모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는 우리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상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에루살렘아, 미국아, 영국아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들이여, 들을지어다. 주님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영성을 유지함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곧 영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리는 지름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니파이의 동생 야콥의 다음과 같은 훈계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제목이 내 마음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마음이 육육에 사로잡힘에 사망이요, 영으로 충만함에 영생임을 기억하라.”(니이 9 : 39)

맥케이 대관장님은 영성이란 “자신을 극복하는 승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식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은 인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점 더 큰 힘을 얻게 한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이 발전하는 것을 느끼며 진리를 통해서 영혼이 발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생의 가장 숭고한 경험의 하나이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풍성한 삶에 이르는 더딤돌, 루엘린 알 맥케이 편, 솔트레이크 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1년, 99페이지)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다

음과 같은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모든 영은 물질이니, 다만 극히 청결하고 순수하여 보다 청결한 눈으로써만 분별될 수 있느니라.”(교성 131 : 7)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에게...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그가 저들 가운데 서시면...”(아브라함서 3 : 22-23)

이러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영이십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한복음 4 : 24)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나” (교성 130 : 22) 그의 몸은 물질적인 것도 육욕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교성 29 : 34) “나의 권능 곧 나의 영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 중 무엇이든지...”

“...곧 영으로도 만들었고 물질로도 만들었으니,

“먼저는 영적으로요, 그 다음은 물질적인 것이라 이것이 나의 일의 시작이니라. 또다시 말하노니, 나의 일의 마지막은 처음이 물질적이요, 그 다음이 영적이니라.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느 때에도 결코 나는 속세에 관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교성 29 : 30-32, 34)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곧 영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



기(세상에) 사는 주민(주민의 영)은 하나님  
이 낳으신 아들 딸”(교성 76 : 24)입니다.

또한 “(주님의)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  
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  
라.

“또한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  
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교리와 성  
약 84 : 46-47)

“모든 인간의 영은 태초에 부여하였고 하  
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에서 구속하여 주셨으  
므로 인간은 또다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  
로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되었느니라.

“저 사악한 자가 와서...인간의 자녀로부  
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교리와  
성약 93 : 38-39)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와 같은 영성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천사로부터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며(모세서 5 : 6-8 참조) 그  
후 “주의 영으로 불들려” 침례받고 성신을  
받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같이 아담  
은...영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모세서 6  
: 64-65; 모세서 5 : 10 참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  
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니라.

“이에 사탄이 저들[그들의 아들 딸]에게  
와서 이르되, 나 또한 하나님의 한 아들  
이라 하고 저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말  
[즉 그들의 부모의 가르침]을 믿지 말라 하  
니 저들이 믿지 않게 되었으며 도리어 사탄  
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때로부터 인  
간은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좇는 자가 되었  
더라.”(모세서 5 : 12-13)

영성은 신앙과 회개와 침례와 성신을 받  
음으로써 옵니다. 성신을 자신의 동반자로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  
성은 그와 같이 성신을 동반자로 삼을 수 있  
을 만큼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유지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첫째 되는 큰 계명과 둘째 되는 큰 계  
명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네 마음  
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몸  
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 37, 39) 또한 그  
러한 의무에는 십계명과 산상수훈에 순종하  
는 것과 신앙개조대로 실천하고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도의 중요  
성에 관해서 생각할 때 아담과 이브가 동산  
에서 쫓겨 난 후 받은 첫번째 계명이 “저들  
이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모세서 5 : 5)  
것이었음에 유의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  
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말한 하늘 사자는 바  
로 그가 바치는 희생이 “...아버지의 독생자  
의 희생하실 모형”이라고 말한 천사였습  
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  
라. 또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하니라”(모세서 5 : 7-8)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계명보다 더 자주 되  
풀이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은 없었습  
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관한 가장 감명깊은 교  
훈의 하나는 다음 경우에 야벳의 동생이 받  
은 교훈이었습니다. “...주가 다시 야벳의 동  
생에게로 오셔서 구름 가운데 서서서 무려  
세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야벳의 동생을 꾸  
짚으시니, 이는 저가 주의 이름을 일컬어  
간구하기를 잊었던 까닭이다.

기록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야벳의 동생은 저가 범한 행악을 회  
개하고 그와 함께 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주  
께 간구하며, 주가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형제들과 저들의 죄를 각각 용서

하려니와 다시는 죄 짓지 말지니, 나의 영이 항상 인간들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는 줄을 너희가 기억할지니라.”(이더 2:14-15)

야벳의 동생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기도한 후 얼마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기 이전의 상태인 영체로서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이더 3:14-16)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도의 힘에 관한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증거는 야곱의 아들 이노스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보라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이 의로운 분이었음을 아노니, 그의 언어로 나를 가르치며 주의 사랑과 훈계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축복을 돌리노라.

“나는 또한 내가 나의 죄 사함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한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 하노니,

“보라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밤이 되도록 소리를 높혀 하늘에 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었더니,

“한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기를, 이노스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로다 하시니라.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알았.

“주여 어찌 이 일을 이루시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네가 전

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래지 않아 육신으로 친히 나타내 보이시리라. 그러니 이제 가라 너의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동포 니파이인들의 번영을 비는 마음이 솟아나, 하나님께 나의 온 심령을 기울여 저들을 위해 간구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어 이르시기를, 나는 너의 형제들이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에 응답하리로다.”(이노스서 1-10절)

경전을 상고하는 것은 영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엘마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성취한 기적적인 선교 사업에 관해 이야기 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쳤더라.

“그 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엘 17:2-3)

기도하는 것과 경전을 상고하는 것은 영성을 갖고 유지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받드는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성 10:5)

요한은 경전에 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

성찬의 목적은 계속해서 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떡과 물에 관하여 계시

로 주어진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는(마시는) 사람마다...그의 영이(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소서” (교성 20 : 77, 79 참조)

성도들이 미주우리주 책순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1831년 8월 7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교리와 성약 59편의 계시에서 주님은 영성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계명에 따라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이 땅에 올라온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산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죽은 자는 자기의 모든 수고를 떠나 안식을 얻을 것임이니, 저희 업적이 저희를 뒤따르리라. 또 저희들은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니라.

“참으로 그 밭이 시온의 땅을 딛고 있어 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좋은 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요, 땅은 힘을 솟아나게 할 것임이니라.

“또 내 앞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자는 하늘에서 축복으로 관을 쓰게 될 것이요, 그들이 필요할 때에 적지 아니한 계명과 계시를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저들에게 계명을 주며 이 같이 이르노니, 곧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 네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바치라.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기도

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쁘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

“진실로 이것이 금식이요 기도니, 다시 말하면 기쁨이요 기도니라.

너희가 감사와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 일을 하면, 크게 웃으면서는 하지 말지니 이는 적니라.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로 하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무를 기어 오르는 것과 땅위를 걸어다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리라.

“참으로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이나 곡간이나 과수원이나 채소밭이나 포도원 그 어느 것이나 땅에서 나오는 풀이나 좋은 것은

“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니니,

“참으로 육체를 강건케 하며 사람에게 힘줄 복돋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었느니라.

“또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니, 적당히 취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취하지 말지니라.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

“보라,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러나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

“나 주가 이를 말하였고 성령이 증거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9 : 1-4)

형제 자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생활 방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영성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주님께서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또 나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알게 되리니”(교성 93 : 1-3)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곧 영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생활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두 영성을 갖는 데 성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를 찾게 되기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교회 역원 지지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대회의 거수 지지를 얻기 위해 역원들을 소개하기 전에 킴블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전세계에 스테이크 축복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업무가 많아지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엘드레드 지 스미스 장로를 명예 축복사라고 부릅니다. 명예 축복사란 그로부터 교회 축복사의 직분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킴블 대관장님은 다음 역원들의 명예로운 해임을 발표하고 그들의 훌륭한 봉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지지를 문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역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학교 본부 회장단, 회장, 러셀 앤 벨슨 형제, 두 보좌 윌리엄 디 오즈월드 형제 및 제이 휴 베어드 형제, 그리고 본부 청남 회장단, 회장 닐 디 세러 형제, 두 보좌 그레이엄 더블류독시 형제 및 켄 지 맥케이 형제입니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호명에 따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이 주일학교와 청남의 새로운 회장단으로 지지받기 위해 발표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지지하시는 분

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며,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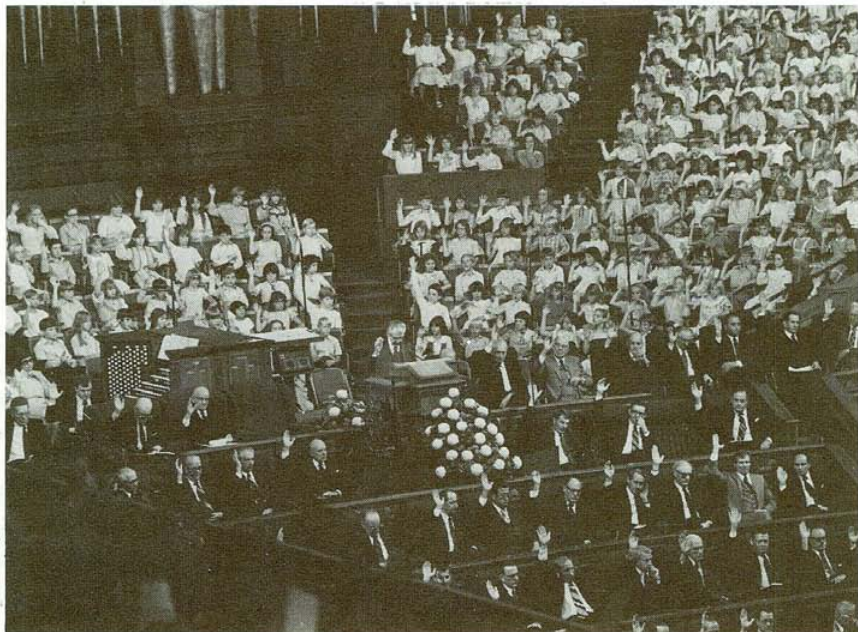
엔 엘돈 태너 형제를 대관장단 제 1 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대관장단 제 2 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을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퍼더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이상의 형제들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블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재단 이사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명예 축복사로 엘드레드 지 스미스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프랭클린 더 리차즈,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에이 더어도어 터틀, 닐 에이 맥스웰, 매리온 더 행스, 폴 에이 치 던,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이상의 형제들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 밖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더어도어 엠 버튼, 버나드 피 브룩뱅크, 로버트 엘 십슨, 오 레슬리 스톤, 로버트 디 헤일즈, 애드니 와이 고마즈, 조셉 비 워스린, 하트만 렉터 이세, 로렌 시 던, 텍스 더 피네가, 진 알 쿡, 칼즈 에이 디메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칼로스 이 애시, 엠 러셀 벨라드,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디오거, 본 제이 페더스톤, 딘 엘

라스, 로이든 지 메릭, 로버트 이 웰즈, 지 호머 더럼, 제임즈 앤 패러모어, 리차드 지 스코트, 휴 더블류 피녹, 에프 엔지오 부쉬, 요시히코 기꾸찌, 로널드 이 포울먼, 메릭 에이 커스버트, 로버트 엘 백맨, 렉스 시 리브 일세, 에프 버튼 하워드, 테디 이 브루어튼,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으로 조셉 앤더슨, 윌리엄 에이치 베넷, 제임즈 에이 켈리모어, 스티얼링 더블류 실, 헨리 더 테일러, 존 에이치 반덴버그, 에스 딜워스 영, 이상의 형제들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관리 감독단의 관리 감독으로 빅터 엘 브라운 형제를 제 1 보좌로 에이치 버크 피터슨 형제를, 제 2 보좌로 제이 리차드 클라크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역 대표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 대표 전원.

주일학교 회장으로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제 1보좌로 로널드 이 포올맨 형제, 제 2보좌로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형제,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청남 회장으로 로버트 엘 백맨 형제, 제 1보좌로 본 제이 페더스토운 형제, 제 2보좌로 랙스 더 피네가 형제,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바바라 브래드쇼우 스미스 자매, 제 1보좌로 메리언 리차즈 보이어 자매, 제 2보좌로 셸리 윌크스 토머스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청녀 회장으로 엘레인 에이 캐넌 자매, 제 1보좌로 알린 비 다저 자매, 제 2보좌로 노마 비 스미스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초등학교 회장으로 나오미 맥스필드 섬웨이 자매, 제 1보좌로 클린 레몬 자매, 제 2보좌로 도로시어 루시 머독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이상의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교육 기구 임원으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엔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닐 에이 맥스웰, 매리온 더 행스, 빅터 엘 브라운, 바바라 비 스미스. 이상의 여러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으로 월포드 지 메들링, 해롤드 에이치 베틀, 웨스턴 이 해밀튼, 데이비드 엠 케네디, 워레 이 퓨.

태버나클 합창단 단장으로 오를리 에스 이반스, 지휘자로 제럴드 더 오를리, 부지휘자로 도날드 에이치 리플링거, 태버나클 오르간 반주자로, 로버트 킨딕, 로이 엠 달리, 존 롱거스트,

이상의 여러분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킴블 대관장님 이상의 총관리 역원과 부 역원 전원 이 만장 일치로 지지받았습니다. \*



# 기도와 응답

“나는 영감의 음성이 소리보다는 오히려 느낌으로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명의회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젊은이들에게 기도하고 기도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영감을 받도록 간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회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조차 팔짱을 끼고 머리를 숙이는 것을 배우며, 부모나 형제 자매가 작은 소리로 가르쳐 주는 말을 듣고서 곧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기도의 일부로서 응답의 부분이 있는데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을 잘 보호해 줄 것입니다.

수년 전 박물 학자인 존 버로우씨가 어느 여름 날 저녁에 사람들이 많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의 소음이 외에 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 보았습니다. 아

무도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  
니다.

모든 사람이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어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동전은 소리를 내며 길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소리보다는 더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의 교통에서 생기는 모든 소음과 새 소리를 구별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새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한다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아들 한 명은 항상 무전기를 청취하는데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받은 성탄절 선물은 매우 간단하게 조립된 무전기였습니다.

그가 성장하고 우리가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며 그가 무전기를 살 수 있을만큼 돈을 벌 수 있을 때, 더 복잡한 무전기를 받았습  
니다.

나는 수년 동안에 여러 번, 그 중 몇 번은 그가 세계의 먼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공전 방해 음성과 한두 마디의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며 때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전 방해 음성에 신경을 안 쓰도록 자신을 훈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의 혼란과 영감의 조용한 음성을 구별하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다면 영감의 조용한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조용히 옵니다. 경전은 영감의 음성이 고요한 작은 음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노력한다면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우리 자녀들은 거의 연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알게 되듯이 그러한 시기에 부모가 밤에 방해받지 않고 푹 잔다면 그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갓난 아기와 이가 나고 있는 아기가 있고 또는 열이 있는 아기가 있다면 하룻밤에 백 번이나 일어났다 앉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백 번은 과장된 말입니다. 아마 20번이나 30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밤에 “나”와 “아내”가 자녀들을 분담하여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내는 갓난 아기를 위해 일어나곤 하였으며 나는 이가 나고 있는 아이를 돌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각자 맡은 아기의 음성만을 들으며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는 듣지 못하고 깊이 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년 간 이 사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들으며 원하는 것을 보고 느끼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평생을 살면서 기회가 있어도 영감의 음성을 좀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 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린도 전서 2:14)

경전에는 이것에 관한 교훈이 많습니다.

리하이는 그의 아들들에게 시현에 관해 말했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은 그의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부친이 저들에게 주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디. 저들이 마땅히 주께 간구

하여야 하였음에도, 마음이 강박함으로 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였음이라.”(니파이일서 15:3)

그들은 동생인 니파이에게 부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주께 간구하여 보았느냐?...

“저들이 (그에게)이르기를, 간구하지 않았노라.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심이라...”(니일 15:8-9)

그후 그들은 니파이를 해치려 하였읍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악을 행함에는 재빠르나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도다. 너희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으며, 너희는 시시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천사가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였으나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니파이일서 17:45)

나는 영감의 음성이 소리보다는 오히려 느낌으로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나는 지혜의 말씀의 기본 목적이 제시와 관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매우 어릴 때부터 차, 코 오피, 술, 담배, 마약, 기타 건강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먹는 사람을 발견할 때 매우 걱정합니다.

만일 “환각제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쉬운 말을 거의 알아 들을 수 없다면 가장 예민한 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영의 속삭임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은 건강의 율법으로서 소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체에 가치있는 것보다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훨씬 더 가치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여러분의 신체에 일어날 수 있는 몇가지 일이 있

으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영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렇게 생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지시하고 인도하며 가르치고 경고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한 예지를 불어넣어 주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당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감을 받는 것을 배워십시오.

우리는 청소년 활동에서조차 영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활동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염려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영감을 필요로 할 때 더 빨리 영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열광적인 음악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 약간 분개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러한 음악이 가득 차 있는 동안 많은 영감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반대로 합당한 음악은 여러분이 영감을 받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또한 여러분은 회로를 방해하는 공전 방해 음성 이외에 가짜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받고 악마가 미혹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 놓아 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와 같은 거짓 음성을 알아 차리고 그러한 음성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어떤 속삭임이 영감인지 유혹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에는 젊은이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나타나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근본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자신이 도덕질을 하고, 거짓말하며,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도덕적인 방법을 하도록 어떤 해로운 근원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청소년으로서 양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심은 여러분이 옳지 않은 것을 알도록 고무시켜 줍니다. 양심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경전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 줍니다. 물론경 모로나이서 7장을 읽어 보십시오. 1절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선과 악을 구별하여 판단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다. 또한 이를 판단하는 일은 낮과 밤을 구별하여 온전하게 아는 것같이 지극히 간단한 일이니라.”(모로나이서 7:15)

젊은이 여러분, 7장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장에는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란에 빠져 있고 잘못 인도되고 있다고 느끼면 부모나 지도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얻도록 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내일이나 그 다음날 또는 미래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완전하게 여러분을 교회 활동과 관리 분야에 참여시키기 위해 조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응답을 받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젊은 동안에 영적인 것은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처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일을 충분히 오랫동안 행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영

적인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가끔 우리는 단지 아니라는 응답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회원이 어떤 일이 그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번 고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하여 나는 교회사를 통해서 배운 위대한 교훈을 상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요셉. 원고를 마틴 해리스에게 주어라. 네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거나. 그러면 네가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알 거야. 그후 네가 당황하고 혼란에 빠질 때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네가 그전에 순종하고 받아들였을진대 좀더 일찍기 택하였을 올바른 길을 걷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분별없는 조급한 손으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계획을  
엷히게 한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외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매듭을 푸는 동안 잠잠하라’  
(작가 미상)

어려운 문제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그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교성 98:12) 주듯이 여기 저기에서 작은 영감으로 올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가운데 오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연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경우에는 응답이 감명 깊은 영감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삭임은 뚜렷하고 명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젊을 때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사도로서 똑같은 근원으로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어린 소년이었을 때 들었던 것과 똑같은 영감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그 신호는 훨씬 더 분명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회원들에게 스테이크의 중요한 직책을 맡도록 부름을 주어야 할 때 기도로 여쭙어 보고 응답으로서 즉시 직접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교리와 성약 4:7)라는 단순한 말씀만큼 더 자주 되풀이 해서 주어진 메시지는 경전에 없습니다.

나는 종종 지시를 받기 위해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합당하지 않은 근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러한 지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매일 밤은 마음을 다해 기도드린 후 잠자도록 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의 말씀을 귀기울여 들으십시오.

상식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이 영감을 받을 때 방해되게 하는 장소와 일들을 삼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발전시키십시오. 공전 방해 음성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배우십시오.

대용품을 위조품을 삼가하십시오.

성신을 통해서 영감과 지시를 받는 것을 배우십시오.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비행사로서 오늘날 갖고 있는 전자 장치를 갖지 못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한 가닥의 희망은 무전기의 신호 전파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지 않고 일정하였으므로 진로

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 다. 만일 일정한 신호의 한쪽으로 움직이면 신호 전파는 “A”에 해당되는 모르스 전신부호 “dit-da”를 보낼 것입니다.

만일 신호의 다른 쪽으로 빛나가면 신호 전파는 “N”에 해당되는 모르스 전신부호 “da-dit”를 보낼 것입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날에는 항상 공전 방해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조종사의 생명은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모든 공전 방해 음성보다 먼 비행장에서 보내 오는 약한 신호에 귀기울이는 것에 달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신호를 보내는 영적인 신호 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과 경청하는 방법, 특히 영적으로 경청하는 방법을 알면 인생이든, 청명한 날씨가든, 폭풍우이든, 전쟁이든, 평화이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

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종종 기도와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 가르칩니다.

아마 우리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은밀하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은 아직 어리더라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과 같이 그리고 내가 간증드리는 바와 같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이 교회를 관리하시며, 이 교회에 가까이 계시고, 그의 예언자와 지도자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과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이들 기자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곧 회복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증가되는 회원들은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 회원은 복음 선교사와 함께 일함으로써 이 교회의 급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3주일 전에 나는 페루의 리마에서 새로운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대경기장에서 7,000여명의 성도들과 구도자가 모인 가운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와같은 감동적이고 영적인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리는 주차장에서 세 명의 신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리마에 오셨습니까? 페루에는 여러분의 교회 회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째서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질문이 끝나자 한 여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때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통은 상당히 혼잡해졌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마

치고 나오는 때였으므로 기자들의 이러한 답변에 대답할 이상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나는 주님의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는 배도와 회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치신 교리로부터의 배도와 초대 교회의 부패 및 초기의 신성한 의식은 인간의 편리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며 오늘날 이 지상의 훌륭한 사람들은 수많은 종류의 교리와 예배 의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종교가 혼란에 빠져있다는 많은 증거와 역사적인 사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의 암흑끝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구세주의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시어 이 말일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기이한 일을 행할 기초를 닦는 데 요셉 스미스라는 어린 소년이 도구로 쓰이기 위해 택함을 받고 준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요셉 스미스와 회복에 관해 간략하게 말하자 그의 모습이 나의 마음속에 크게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흔히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잡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들 기자와 세상 사람들이 회복의 이야기와 그 의미 곧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나와 같은 느낌을 받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알아 예언자의 부르심과 역할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신성한 부름을 받

은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다고 나의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을 했으며, 예언자가 조직을 도와 세워진 이 교회는 거룩한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나 이제나 다름없이 이러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시는가?”

기도도 잘 하지 못했던 한 청년이 자신의 신앙에 의지하여 숲 속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고 그가 혼자 있음을 확인한 후 무릎을 꿇고 그의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숲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에 보았던 어떤 빛보다 더 밝았습니다. 그 앞에 영광을 지닌 두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모든 교회는 그릇되며, 교리는 부패했고 의식은 변경되었으며 신권의 권능은 상실되었으므로 배운 것은 없으나 겸손한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다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 15-20 참조)

세상에 팽배해 있는 종교적 가르침은 하나님을 전 우주에 퍼져있는 연약한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형시켰으며, 하나님의 인격성과 신회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이론과 불확실한 교리를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년 예언자는 숲에서 나오며,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방문하여 가

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스미스 2: 25)

요셉은 이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형상이며 음성을 낼 수 있고 말씀하시며 친절하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와 같았으며 단지 다른 개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강철과 같이 강직한 사람일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조롱과 사회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항거할 수 있고 모세와 같이 위대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자 소년 예언자는 다른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전해준 물문경 출현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예언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전해준 것과 일치되었습니다.

고대 미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관한 기록인 물문경은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번역되었으며 이 기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물문경 표제지 참조)

물문경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며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책 중에서 귀중한 책입니다.

1820년의 첫번째 시현으로부터 1844년 6월의 어느 아침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의 시체를 실은 두 대의 포장 마차가 카메지에서 나무까지 6시간 동안의 여행 끝에 서서히 들어오던 때까지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 동안에 하늘이 열렸고 이 시대의 이 위대한 사업과 왕국의 기초가 놓여졌던 것입니다. 그의 교회는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조직되

있으며 사도는 필요한 신권의 열쇠를 맡았습니다. 요셉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그의 충실한 동료들의 마음속에는 그의 신성한 부름에 대하여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간 그들에게 영감받은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대 교회의 조직과 신권은 사도와 예언자와 축복사와 칠십인과 장로와 감독과 교사와 제사와 집사 그리고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고 성도들을 강화시켜 성도들의 조직에 결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과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위탁하신 교리와 의식과 권능과 함께 재조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은 거두어지고 주님의 교회와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복음 교리는 포괄적이고 완전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교리와 성약 93:29)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인간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세상에 인간의 기원 즉 인간이 이 지상에 올 때 거룩하고 영원한 목적을 갖고 왔다는 참된 지식을 전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조금씩 "계울에 계울을" 더하여 천사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성역을 통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뜻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갔으며 그분의 구속의 행위를 통하여 모든 인류는 무덤에서 부활되고, 그들이 복음의 원리에 순종한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통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한복음 14:2) 우리는 영광의 단계와 그 영광에 적합한 자에 관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까지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조지 엘버트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내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스테이크 부장이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일반 회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해의 왕국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승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훌륭한 것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우리는 누구나 승영에 이를 수 있습니다.”(대회보고 1933년 10월 25페이지).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심원한 원리의 하나가 1836년 커틀랜드 신전에서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는 시현으로 살아있을 동안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 복음을 듣거나 받아들일 기회를 받지 못한 자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와 같은 특권을 갖게될 것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라”(요셉 스미스—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 9절)

존 테일러 대판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말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이십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물문경을 세상에 내어 놓았나니,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를 번역하여 동서 양대륙에 이를 간행하는 일에 매개체가 되어 이 책에 실려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세상의 네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전파하였고 인간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본서인 교리와 성약을 이루는 계시와 계명과 다른 많은 지혜로운 문서와 교훈을 세상에 내어 놓았고 또 수천의 말일성도를 모아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여 지울 수 없는 영예와 명성을 남겼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앞에서 위대한 생애를 보였고 또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대부분이 그러하였듯이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자신의 피로써 인봉하였고”(교리와 성약 135 : 3)

성도들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 때 충실한 친구와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는

그들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예수 기름부어 예언자 삼고  
말일의 경륜을 시작케 하니  
뜻왕과 온 백성 경배하라  
예언자 찬양하라 승천한 예언자  
폭군도 적도 이젠 대적못하리  
하나님 예언자 함께하시니  
이 영웅 이길 자 없도다  
(찬송가 185장)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사도행전 3 : 21)만유의 회복에 관해 간증드립니다.

참된 성도들은 모두 성령의 은사와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표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곧 그분의 권세와 영향력을 통하여 인간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진리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잃었던 것…… 곧 완전한 선권을 또 다시 회복할 곳”(교성 124 : 28)에 선견이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1847년 1월 윈터 쿼터스에서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 요셉 스미스에 관해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충실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말씀을 모두 지키면 영광을 바라 볼 수 있으리라. ……요셉 스미스까지 이른 것이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늘에서 저를 불러 나의 사업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였느니라.

“저는 그 기초를 닦았고 충실하였도다. 그러므로 나는 저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니라.”(교성 136 : 37—38)

요셉은 회복의 예언자였습니다. 나는 그의 신성과 위대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언어: 신성한 의사 소통 방법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에게 신성한 방법으로 의사를 소통하겠다는 열의를 갖고 사랑과 이해에 찬 보다 훌륭한 말”을 사용하여 대화해야 합니다.



찰즈 에이 디데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하늘에 제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기록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니삼 13:9) 경건과 사랑과 순종으로 가득찬 인사말이 주님 자신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의 서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특별한 의미와 영감적이고 고귀한 생각을 불어넣고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이해의 경지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한마디 한마디를 엄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언어의 표현과 모범을 봅니다.

단어, 문장, 언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 자신과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마디 말—즉 하나의 단순한 낱말이 여러 가지 생각과 영향력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결합은 우리에게 사상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리석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단지 한마디 말로써 승인이나 부인, 축복이나 저주, 의문이나 지식, 우정이나 적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억양으로써 사랑과 증오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거

칠게 할 수도 있고 감미롭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으며 크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파도처럼 도도히 토할 수도 있으며 열광시킬 수도 있고 승리와 긍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셰크스피어의 작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음악보다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이저’하고 부르는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다”(줄리어스 시이저 제 1막 제 2장 15-17번째 줄) 말은 독약처럼 한 방울 한 방울 스며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도 있고 우물우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이란 한번 나가면 다시 주워담을 수 없으며 바람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말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 함축된 의미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설득시키고 강제하고 영향을 주고 정복하는가 않는가에 따라 그 단어의 용도가 여러가지로 달라집니다.

말이란 자신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문이 각각 다르듯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생활 방식을 설명해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부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왔으며 왜 그렇게 독특합니까? 이것은 모세서 6:5-6에 나타나 있듯이 태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언어로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나니, 이는 영감의 영으로써 기록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음이니

라. “이들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은 읽고 쓰기를 배웠고 깨끗하고 더럽히지 않은 언어가 보전되었더라.”

언어는 신성한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창조된 목적 때문에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고린도전서 13:1). 아나카리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부분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혀”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나쁜 부분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역시 “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야고보서 3:9-12).

물몬경에서 우리는 다음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니파이서 2:11) 그러나 우리는 말 속에 있는 상대되는 것이 통제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라는 충고를 받을 때 이것은 단지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만 언급하는 것입니까? 부패한 언어, 더러운 언어, 은어, 악과 더러움과 영육의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마음을 감동시키고 빛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헛되이 일컬어지거나 망령되이 일컬어져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은 언어가 청년들과 성인

남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남성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육과 예절과 매력과 경건은 곧 여성들의 전유물이란 말입니까? 선교사들이 동반자나 구도자나 자기 지도자를 평하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무례할 뿐만 아니라 경건과 사랑이 부족한 것 같이 들리는 그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달성시킬 수도 있고 약속이나 기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말미암아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으며 비참하다는 느낌과 위대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고조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명기 8:3) 기도할 때의 말은 성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증거하고 간증을 나눌 때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교리와 성약 76:22-23) 신분을 나타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명을 요약할 때 “사랑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함이라”(모로 7:46) 우리의 가족에게 사랑을 보일 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에언자 즉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과 같은 살아 계신 에언자가 말씀할 때 그 말씀은 주님의 뜻과 생각을 말해 주는 것이며 신성하고 완전한 말의 표본이 됩니다.” 이는 나의 영육이 간결함을 기뻐하며, 주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역사 하심이라. 주 하나님께서 총명의 빛을 주셨음이요 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각각 저들의 언어와 총명을 가리시어 말씀하시느니라.”(니파이서 31:3)

예를 들면, 킴볼 대관장님께서서는 최근에 행하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언어 이외에 다른 나라의 언어도 배워둘 것을 강조하셨읍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북경말과 광둥말을 유창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79년 3월 30일)

우리는 또한 여러 개의 외국어를 공부함으로써 세상에 복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명과 행동 뿐만 아니라 이 사용하는 언어의 순수성에 의해 다른 백성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신 7:6).

언어는 신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매일 매일의 가정 생활에서 이 말에 숨어 있는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은 사랑을 나타내는 언어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

요한 것이어서 이것이 없이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며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죽는 일까지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도 가족이 타락하고는 융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타락은 한마디 말 즉 단 순한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에게 신성한 방법으로 의사를 소통하겠다는 열의를 사랑과 이해에 찬 보다 훌륭한 말을 사용하며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언어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독생자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오늘날 이 지상에 살아 계신 예언자이시며 그는 주님의 대변자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의하여 영원히 성스럽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다 배웠고”

“예언적인 사건이 전개될 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곧 우리가 보다 더 자신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 내에서 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이 디오도어 터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우리 교회에는 국제 선교부가 있습니다. 이 선교부는 카로스 어셰이 장로가 관리합니다. 이것은 스테이크나 선교부 지역 밖에 거주하는 모든 교회 회원들을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이 선교부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군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가족이나 국제 기관에 일하고 있는 가족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가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인도양의 리유니온 섬에 살고 있으며, 리비아 뱅가지에도 8가족이 살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카라치에도 5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과 그외 다른 가족들은 교회의 단위 조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의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를 가집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족을 위해 가정 예배를 갖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녀들을 모아서 초등학교를 갖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는 초등학교 회장

과 보좌와 교사를 겸하며 언제나 건물 관리인의 일을 맡습니다. 가족 가운데 신권 연령의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신권 의무를 가르칩니다.

실제로, 교회가 완전히 조직된 곳에서는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는 모든 부모에게 자기 자녀를 가르치도록 격려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은 교회로부터 몇 가지 기본 자료를 받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원리라는 교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족은 교회 정기 간행물과 가정의 밤 교재를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교회의 표준 경전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가족 중심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제한된 자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면 이러한 가정은 교회의 어느 가정보다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가정에 필수적인 일은 어느 가정에서나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교회 단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보다 가까워지며 어느 곳에 살든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하여야 할 일을 교회에서 위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가족을 조직하셨습니다. 그는 가족이 배움의 중심이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가족이 교회 단위 안에 살거나 밖에 살거나 적용해야 할 훈계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한 많은 성구 가운데 몇 가지만 인용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 : 28)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93 : 36, 40)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주기를 가르치며” (모사이야서 4 : 15)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 : 6)

주께서는 어떤 다른 기관보다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안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인생과 성격 형성에 있어서 외부의 어떠한 기관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부모에게 부여한 특권입니다.

신권은 특별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훌륭한 것을 심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나쁜 것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에 의하여 무제한으로 흘러들어오는 악을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기관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나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멸망시키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으로부터 격려되어 있다면 어떻게 모든 종교적인 훈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함으로써 가정에서는 거의 아무 것도 못하게 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음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가정에서 가르친 것입니까? 그것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음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가정에서 가르친 것입니까? 교회는 가정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가르치라는 부모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은 결코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물질적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립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서도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까지 받아오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여러분의 어깨에는 가족의 영적인 부지를 돌볼 보다 많은 책임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경전을 연구하면 반드시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를 취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즐거운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가족 전통을 세우고 유지하십시오. 공정한 규칙과 법칙으로 기강을 세우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고 소속감을 줌으로써 자기 존중을 심어 줍시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합시다. 바로 이런 것이 인생의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확립합시다. 그러면 너무나 자주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장식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언적인 사건이 전개될 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곧 우리가 보다 더 자신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정 내에서 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경에서 몇 가지 모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 신부님에게서 태어나 부친이 아시던 학문을 거의 다 배웠고 (니파이일서 1 : 1) 확실히 니파이는 영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실제적인 일도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

친이 알던 학문을 거의 다 자식에게 가르치  
는 아버지를 둔 아들은 행복합니다.

아픔의 아들 이노스는 그의 부친을 존경  
했던 또다른 예입니다.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이 의로운 분이었  
음을 아노니, ……주의 사랑과 훈계를 가르  
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축복을 돌리노라

“보라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  
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  
이 스며들음을 느꼈고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  
하였고”(이노스서 1:1, 3-4)

그의 봉사의 생애는 이 위대한 영적 경험  
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부

친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겼습니다. 이런 것  
은 위대한 모범이며 부모의 가르침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  
다.

우리들 가운데 소수의 몇몇 사람은 자신  
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으로부터 갈  
채를 받을 것이며 대부분은 비교적 이름도  
없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  
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로부터 찬사를 받  
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계획에서 볼  
때 명예나 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  
니다. “나……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  
나……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모든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견하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시히코 기무찌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오늘 말씀드리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김블 대관장님, 태너 부대관장님, 롬니 부대관장님, 벤슨 회장님, 십이사도 여러분과 총관리 역원 및 이곳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일본과 한국 성도를 대표하여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찬사같은 음성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최근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여 노래를 불렀을 때 회원 및 비회원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읍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우리의 주요 일간지의 평론란에서 극구 찬양한 것으로부터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문의 논평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읍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소리와 아름답고 심원한 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요미우리 도오쿄오, 1979년 9월 8일자) 다른 평론가는 이렇게 적었읍니다. “그들은 음의 영광스러움과 힘을 맛보게 해주었다” (교베 뉴스, 1979년 9월 10일자) 또 다른

평론가는 이렇게 적었읍니다. “그 합창단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잡아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남겨 주었다.” (교토 뉴스, 1979년 9월 11일자) 태버나클 합창단 초청에 있어서 주요 후원자인 주교 텔레비전 사장은 합창단원의 눈이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하여 자신과 그의 동료가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읍니다. 우리의 존경하는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술했을 때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늘의 음성이 부르는 아름다운 음악의 대교향악을 듣게 됩니다.” (엔사인, 1974년 5월호, 46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나는 우리나라와 조용한 나라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놀라운 업적을 볼 때마다 그들을 보내주신 부모에게 나의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나는 아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기 위해 부업으로써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한 어머니를 만났읍니다. 그 자매는 자기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읍니다.

나는 내가 최근에 만난 어떤 선교사의 아름다운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구도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여러분의 아들인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론한 기적을 보았읍니다. 나는 이 신사를 어느 특별한 노년의 모임에서 만났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행복을 심어 준 젊은 물론 선교사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가르친 그의 부모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쁘게 장로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8년 전 어느 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다가 자동차에 치었습니다. 그 운전사는 나를 버리고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는 11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2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기 전에 우리 가정은 아주 단란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내는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왔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나는 복지 수당으로 생계를 연명했습니다. 나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살아 있는 채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려면 몸을 굴러거나 사지로 기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여러 번에 걸친 수술의 최종 결과를 알기 위해 의사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그렇게 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철교 가까이 닦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그는 여러분의 아들인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구세주께서 하신 아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요한복음 10 : 14).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한복음 10 : 27)

즉시 복음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기 야마씨는 그들과 공부하는 가운데 복음이 참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이 말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보통 때처럼 선교사들은 그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식일 아침 일찍 잠이 깨어 용감하게 교회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그의 집에서 요꼬하마 교회로 가는 정거장까지 가는데 거의 세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요꼬하마 교회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정거장에서 교회까지 가는 데는 무려 한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 걸는다면 5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벽에 붙어서서 교회까지 갔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그가 교회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기야마 형제는 선교사와 회원들로부터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느꼈으며 자신이 거기에 이끌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 : 34).

그후 얼마 안되어 수기야마 형제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좇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 : 5)

침례받는 다음 날 그는 일찍 잠이 깨었습니다. 그는 보통 때처럼 몸을 구르기 위해 다리를 뻗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에는 무언가 전과 달라졌음을 느



졌던 것입니다. 그는 다리에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은 힘으로 융긔웃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남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완전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던 이와 같은 경우의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막 5:34)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구야마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평안히 갈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적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구도자를 것처럼 사랑했던 한 위대한 젊은 물론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은 과정이지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생의 어떠한 걱정도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인간의 고통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예수께 나아오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합시다.(요 3:5) 이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믿는 자에게 나의 성령을 나타내 주리라. 저들은 나로 말미암아 나게 되리니, 곧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5:16). 나는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선교사 라 장로와 포터 장로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과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예언자가 권고하신 바와 같이 모든 나라로부터 선교사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 참된 교회의 회원들은 이 영원한 복음 즉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국민과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교성 77:8)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마 5:14)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압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행 4:12 참조) 오직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물론경에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실려 있음을 압니다. 이 교회는 참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판장님은 오늘날의 율과 같은 분이요 살아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십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온 영혼을 다해 그를 지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올바른 결정을 내림

“인생은 두 가지 귀중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시간이며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자유입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최** 근 몇몇 대회의 토요일 오후 모임을 마치고 태버나클을 떠나려고 할 때 신권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세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성도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라게도 들어가기 위해 서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픈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오늘밤 나는 여러분의 신앙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회의 이 모임에서 내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대상은 왕같은 신권을 가진 이 빼어난 세대입니다.

신권회에서 말씀하도록 지명받았을 때, 나는 새로운 청남 프로그램 책임자로 임명된 백맨 장로를 불러서 아픈 신권 소유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주제에 관해서 제언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에 나는 백맨 장로로부터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쪽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은 곧 자신의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나갈 것인지, 직장을 가질 것인지 결혼할 것인지 등의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의 쪽지에는 “피너츠(망콩)”라는 제목의 만화가 동봉되어 있었고 그 만화에는 리너스와 루시가 있었는데 리너스는 아름답고 단단한 눈뭉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상황을 살펴본 후 리너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찼어. 네가 원한다면 나에게 그 눈뭉치를 던질 수도 있어. 네가 원한다면 나에게 던지지 않을 수도 있어. 만일 그 눈뭉치를 나에게 던지기를 선택한다면 나는 너를 땅바닥에 뺨개칠거야 그것을 던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너는 무사할 거야”

그때 리너스는 혐오하는 표정을 보이며 눈뭉치를 내버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찼어, 그러나 나는 아무 것도 얻지 못했어”

리너스가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차다고 말한 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두번째 역할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길의 모든 발견을 앞에는 결정이 놓여 있습니다.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는 행복의 추구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시간이며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환회와 바꿀 수도 있고 저속한 욕망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욕망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허영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올바른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지속적인 만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경의 처음에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가족에 관한 위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며 리하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매우 안정되고 안락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주위에는 인생의 훌륭한 것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 부친이 가족 회의를 엮니다. 그분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침랑과 장막과 등에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을 갖고 가거라. 금은과 너희들의 귀중한 물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갈 여유가 없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광야를 떠나라는 명을 받았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친이 광야로 떠났으니, 집과 상속의 땅과 금은 보화를 모두 남겨 두고 다만 가족을 이끌고 양식과 천막만을 가지고 떠나 갔느니라.”(니파이일서 2:4)

얼마 가지 않아서 부친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꿈을 꾸었나니, 꿈에 주님께 서 너와 너의 형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라 명하셨느니라.

“보라, 이는 레이벤이 늦쇠판에 새겨진 유대인의 기록과 너의 조상들의 족보를 가졌음이라.

“주께서 내게 명하사 너와 너의 형들을 레이벤의 집에 보내어 기록을 찾아 광야로 가져오게 하라 하셨느니라.”(니일 3:2-4)

그것은 아들에게 맡겨진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니다. 레이벤은 매우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부친에게 불만을 토하였습니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어려운 일이었습니니다. 그러나 한 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

이 젊은이들이 기록을 얻기 위해 레이벤에게로 갔을 때 그들에게는 내려야 할 여러 가지 결정이 주어졌습니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첫째, 그들은 운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았으며 레이벤이 뽑혔습니니다. 그는 레이벤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늦쇠판에 적혀있는 기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니다. 레이벤은 이러한 요청에 너무 기분이 나빠 화를 냈습니니다. 그는 레이벤을 쫓아 내며 늦쇠판을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니다. “보라 너는 도둑이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였느니라.”(니일 3:13) 레이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니다. 레이벤은 뛰쳐나와 동생들에게 되돌아와서 운에 맡겨 지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니다.

니파이는 그 기록을 얻는 방법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니다. 그는 집에 두고 온 모든 부 즉 금은과 모든 귀중품에 관해 생각했습니니다. 그는 금은 보화를 모아 그 기록을 사려고 했습니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이벤의 집에 들어가 늦쇠판과 금은 보화와 바꾸자고 제의했습니니다. 그들이 가져간 보화가 엄청난 것을 보고 탐이 난 레이벤은 이를 빼앗고자 종들을 시켜 그들을 내어쫓아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니다. 세상의 어떠한 물건도 기록과 바꾸지 못했습니니다.

이제 니파이의 형들은 기록을 얻으려다가 두 번씩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에 니파이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습니니다. 니파이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이와 같이 그들을 설득했습니니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제명을 충실하게 지키도록 하자. 보라, 주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하시니, 레이벤과 그의 오십이나 설

혹 수만의 부하가 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보다 강하지 아니 하시겠느냐?”(니일 4:1)

누가 그의 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레이벤과 그의 모든 종들보다 강하십니다. 그래서 밤에 니파이의 그의 형들을 에루살렘 성 밖에 숨게하고 레이벤의 집으로 거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는 운이나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때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갔느니라”(니파이일서 4:6)

레이벤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앞에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하여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바로 레이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록을 연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길 때 훌륭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리하이의 아들들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대한 교훈을 배웁니다. 물론 결정을 운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때 해병대에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캘리포니아의 펜드렌튼 캠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의 결정을 운에 맡겼던 결과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일을 기억합니다.

나의 친구들은 주말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맨스 홀에 같이 놀러가자고 했습니다. 매주 나는 그곳에 가자는 친구들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여러 주 동안 그들의 권유를 뿌리쳤습니다. 그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만 그것을 운에 맡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큰 맨스 홀을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탔는데 전차가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아가씨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전에 내가 보았던 그런 아가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전위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접근해 오자 나는 해병대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특수한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후퇴했던 것입니다.

나는 전차의 뒷열에서 그들과는 외관이 전혀 다른 네 아가씨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춤추러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는 “우리는 아담스 와드의 물론 무도회에 가고 있어요. 당신은 물론 교회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전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스 와드에서 가장 즐거운 저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운에 맡기는 것보다는 자신을 더 신뢰하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려는 니파이와 그의 형들의 결정은 운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을 때 어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그의 십대의 딸이 세상의 방법에 따르도록 유혹하는 압력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생활에 이러한 압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반에서는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데이트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같은 반의 남학생들은 그녀가 교회에서 배운 표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데이트를 신청하는 모든 남학생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표준에 관해 말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과 데이트할 때는 그녀의 표준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트를 승락하기 전에 그들로부터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유명한 대학 풋볼 팀에서 인기있는 선수가 그녀의 가

장 특별한 무도회를 앞두고 그녀에게 닥아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가진 표준을 조금 낮추다면 그 무도회에 데리고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못하더라도 나의 표준을 낮추지는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도록 결정할 만큼 충분히 강해지십시오.

니파이는 주님께 의지하고 그의 방법대로 따르기로 결정할 때 성공적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몇 년 전에 처치 뉴스에서 주님의 방법에 의존하기로 결정한 어떤 젊은이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언제나 교회에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스톡홀름 지역 대회에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러한 성공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혼자서 밖에 나가 젖소의 젖을 짜고 건초를 쌓아 올리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여러 번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스펜서 더블류 킴블은 어떠한 종류의 술이든 입에 대지 않겠다. 나, 스펜서 더블류 킴블은 결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차를 마시지 않겠다.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하셨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내가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분은 이런 것이 가장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속하지 않는 다른 것도 많습시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는 그때 어린 소녀으로서 “나는 결코 이런 것에 손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에 이것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한번도 이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많은 유혹이 따랐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분석조차 해보지 않았습시다. 나는 중단하지 않았고 그것을 헤아려 보지도 않았습시다. 언제나 “내가 그것을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킴블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얼마 후에는 내가 차나 커피나 담배나 어떤 종류의 알콜성 음료나 마약을 맛보지 않고 또 한해를 지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재님과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단지 다음 사항을 강조하기 위한 것 뿐입니다.

만일 모든 소년 소녀들이 성장해서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게 될 때 “나는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떠한 유혹이 닥쳐와도 “나는 결심했어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야”라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처치 뉴스 1975년 10월 4일 : 1974년 8월 덴마크, 핀란드, 뉴웨이, 스웨덴 지역 대회, 86-87 참조)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내리는 모범을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까?

오,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저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께서 명하신대로 가서 행하겠습니다.” (니일 3:7) 하나님의 방법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인생에서 주님께 대한 봉사로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다스리는 자

“형제 여러분, 현재의 자신과 앞으로 되어야 할 자신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함께 모였던 모임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성신의 권세가 없다면 나는 이 순간의 중압감을 견디어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형제 여러분에 대한 나의 깊은 사랑을 표시하면서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나의 신뢰는 우리가 따르는 주님에 대한 신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지식은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여러분을 결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형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침례의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판사의 접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통치자가 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통치자로서 여러분의 신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세에서 정하신 기간에 따라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이러한 기간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성임과 현재의 합당성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에 관한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의 하나님의 사업과 모든 인류의 구원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이 세가지면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즉 개인, 가족, 공식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

여러분은 하나의 개인으로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이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한자”(교성 84:34)가 되도록 성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신권 소유자로서 충실함을 통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이 자신을 다스릴 때에만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는 자유 의지입니다. 개인으로서 여러분은 자신을 다스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어진 거룩한 권리입니다. 곧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선택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의 결과는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것이며 진보하고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할 때 여러분은 발전을 제한하는 것에 자신을 결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결하게 되어 보다 깨끗하고 순수한 자들과 친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이 원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벳 소유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들의 대부분이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을 조성하는데 자유 의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는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서 허비하는 많은 시간들은 이러한 필요를 거의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텔레비전 프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가령 텔레비전이 어리석음과, 폭력과, 부도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차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유효적인 가치는 여러분이 낭비한 시간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일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지 놀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직선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디도서 1: 15-16).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주님이 행동하신 대로 행동하도록 그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은 신성한 임무와는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에 20시간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을 복음 공부하는 습관으로 전환한다면 일 년내에 물론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와 신구약 성경 전부를 읽을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신앙 개조, 복음 원리와 신권회 기본 교재, 구원의 교리 I, II, III 약속된 메시아, 교회 역사 그리고 성경, 물론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를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한 성도의 빛과 뉴 이라와 프렌드 등의 교회 잡지를 읽을 시간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시간에 10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시간에 20페이지 이상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속도로 읽는다면 하더라도 1주일에 10시간의 시간을 왕국을 세우는 다른 활동 즉 개인 일지를 작성하고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을 행하며 가정 복음 교육을 행하고 복지 사업과 우리의 자유와 그의 많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과 국가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음 말씀을 반복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디도서 1: 15-16)

여러분 개개인은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아직 아버지가 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자기 가족을 다스릴 신성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이 교회의 기본 단위임으로 가족을 다스리는 대로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가족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목표로 삼을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결

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공통적인 목적에 있어서 다른 가족과 하나가 되도록 가족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없이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생활 규범을 기쁘게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영적으로 교통하게 해주는 금식과 기도예 의하여 또한 경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연구함으로써 커집니다.

신앙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회개의 각 단계를 이해하고 따라야 할 필요성도 명백해집니다.

가족들의 어떤 결정은 그릇되어서 그들의 발전이 정지되고 타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하게 되고 올바른 길로 되돌아 갈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작위와 부작위의 죄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신뢰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고백의 과정을 알아야 하며 배상하고 그 죄를 버리도록 결심하게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키고 회개의 단계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은 다른 가족과 하나가 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족을 다스리십니까? 신권에 의해 다스립니다.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은화함과 은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우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

게 꾸짖을 것이나...”(교성 121 : 4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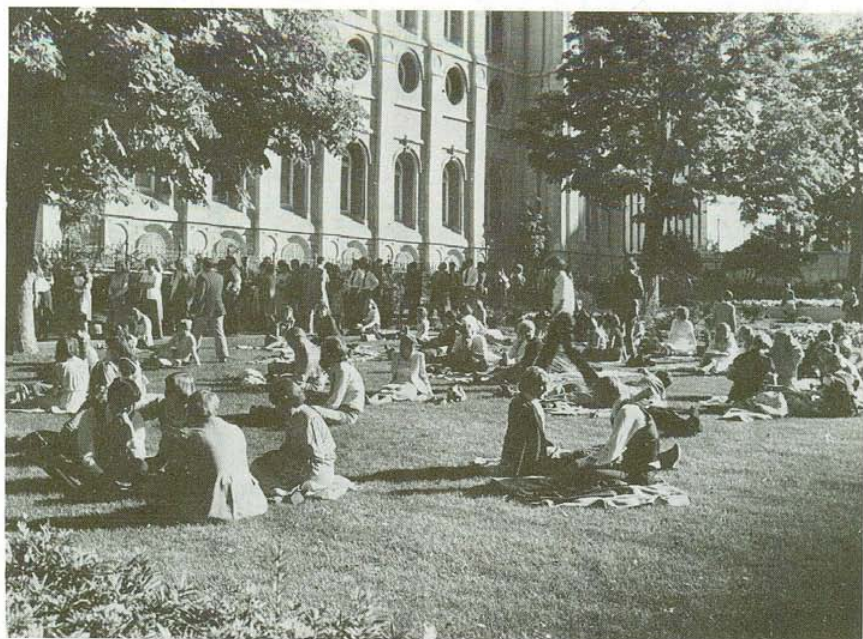
여러분은 금식과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교리를 가르치고 정구적으로 경전을 읽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회개하고 회개의 단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며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대로 살기 위한 가정 및 가족 중심의 규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서로 봉사하는 규범이 세워집니다. 이러한 체제는 모든 연령에 속한 가족의 세상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교회의 공식 조직은 우리가 개인과 가족으로서 질서 정연한 방법으로 함께 모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가르치고 성약을 지키며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거룩하고 질서있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교회입니다. 이 조직은 교회 회원이 개인과 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보조 조직에 자발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보조 조직은 신권에 의해 다스려지고 신권을 보조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회원들은 이러한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결코 독자적인 세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복음 중심의 가정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 중심 체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정을 가르쳤으며 그분의 책임은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고하고 침례를 베풀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히 기도할 것과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들이 없는지 살피며 모든 회원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성 20 : 50-5, 53-55 참조)

다스리는 자로서 이것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신권 소유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보조 조직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아껴야 합니다. 위대하고 충실한 종이 이런 조직의 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즉 “돕는 자”를 의미하는 보조 조직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전체적인 책임이 직접적으로 신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가족이 세상적이며 영적인 구원을 가져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신권의 책임입니다. 신권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

조 조직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속히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사업은 단지 특별한 때나 편리할 때만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현재의 자신과 앞으로 되어야 할 자신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변자이신 살아계신 예언자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주님을 믿는 신앙 없이 “우리는 복음이 주는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매리온 지 롤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형** 제 여러분, 나는 오늘밤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라고 일컬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신앙개조 4)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은 그와 같은 신앙의 중요성에 관해 의심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니다. 베초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천사가 아담에게 그가 드리는 희생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고 가르쳤습니니다.

그 천사는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모세 5:7-8)

니파이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주 하나님이 살아계실같이, ……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이름이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니이 25:20).

400년 후에 베냐민왕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길이나 방법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 받을 수 있으니”(모사이야서 3:17)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로부터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질문받이를 고쳤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7-10, 12)

예수님 자신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이 말일에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진지하게 진리를 이야기하라.

“회개하고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니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을 받들어야 하나니, 이는 저들이 말일에 그 이름으로 불리울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저들이 부름을 받게 될 이름을 알지 못하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거할 곳을 얻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18 : 21-25) 앞에서 읽어드린 성구로써 경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구원을 얻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부활하신 예수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내가 사람을 손에 달렸던 것같이 아버지로 인하여 달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선악 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들린 것이며 아버지의 권세로 내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저들이 각각 행한대로 심판받게 하리라.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는 흠족할 것이요, 저가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배어 불 속에 던져지리니, 아버지의 공의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로다.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생명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니파이삼서 27 : 13-17, 19-21)

물론 이것은 복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 날—아마 여러 주를 보내신 후에 니파이인에게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설명하시면서 요약하여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요약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업과 영광인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 : 39)을 성취하기 위해 제정하신 계획이며 프로그램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회의에서 영의 자녀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발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사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을지라, 그가 저들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영이 된 이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

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 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같은 분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니, 또 다른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첫째를 보내리라.

“이에 둘째가 성내어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니, 그 날에 많은 자가 그를 따랐더라.”(아브라함서 3 : 22-28)

그때 거기 모였던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 발표하여 삼분의 이의 찬성을 얻었던 복음 계획 즉 프로그램은 하늘 또는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이러한 영들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보여 주었습니다.

이 계획은 그들이 지상에서 경험을 얻도록 육신을 주고 또한 자유 의지를 부여해서 선과 악의 영향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완전을 향한 영원한 진보를 계속하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계획에는 하늘로부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추방하는 것과 이 지상의 창조와 이 지상에 아담과 이브를 보내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후손이 지상에 펼쳐지게 되는 일들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복음 계획에는 또한 인간 가운데 잔인한 일을 행하는 사탄의 일과 인간의 사악함과 인간의 육체적 영적 사망도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세주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것과 사망을 가져온 아담의 죄로부터의 속죄, 회개를 통해 개인적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과 더 많은 일들이 복음 계획에 의해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천국 회의에서 이 계획을 제출했으며 속죄를 통해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자유 의지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무시되는 이에 대항해서 자유의지 대신 강제하도록 계획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예를 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도록 선택되었으며 그는 천국 전쟁에서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 싸움을 인도했으며 지상을 창조하여 지금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모세서 1 : 29)을 가져다 주는 그의 역할은 모든 경륜의 시대를 통해 인류에게 보여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아담에게도 보여졌습니다. 또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보여졌습니다. 기원전 2200년경 예수는 야벳의 동생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빛을 갖게 되어, 나의 아들이 되며, 또한 나의 딸이 되리라.”(이더서 3 : 14)

절정의 시대에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여자로부터 태어난 그는 유혹과 육신의 나약함을 이겨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능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유혹을 받되 결코 죄에 굴복하지 않았고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아담의 범법을 속죄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무덤을 이기고 자신과 모든 인류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무덤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며 육신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하늘에서 구속주가 되도록 예임되었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온 인류의 죄의 짐을 몸소 지셨습니다. 그 방법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신비스러운 것인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신음하던 구세주의 고난은 죄없고 순결하신 그리스도로서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일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 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명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 [교리와 성약 19 : 16-19]”(제임스 이 탈매지 신앙개조 71페이지)

니파이의 동생 야콥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곤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여, 보라 만일 육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에게 속박되어 함께 악마가 되며 다시는 일어 서지 못할 것임이라.

“이 음흉한 피물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대하시지 아니하뇨……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지라. 이 죽음 곧 내가 이야기한 바 세상의 죽음이 죽음의 사슬을 풀었으니 세상의 죽음이라 함은 무덤

을 말함이라.

“또한 내가 이야기한 바 영의 죽음도 죽음의 권세를 불리치리니, 영의 죽음이란 지옥을 뜻하는 것인 바, 사망과 지옥이 각각 죽은 자를 내어 놓으며 지옥이 속박했던 영을 내어놓고 무덤이 속박했던 육체를 내어 놓을 것이며, 오직 부활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권세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저마다의 것으로 회복되리라.”(니파이서 9 : 8, 10-12)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회의에서 제의하신 그러한 봉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복음이 제공되는 축복을 받을 가망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 : 24) 이것은 바울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롬 1 : 16)이라고 말할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복음의 첫째 원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내가 엄숙하게 증거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과 베냐민왕의 말씀에 내 자신의 간증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나는 “인간에게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모 3 : 17). 형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나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교회 행정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도록 겸손히 간구합니다.”



엔 엘든 태너  
대관장단 제일보좌

형제 여러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무리 앞에서 겸손해지며 이 신권은 자신이 소유한 직분 내에서 그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인간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가르침과 주님의 신권 소유자와 맺은 성약대로 살 때 발휘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권세에 대하여 생각만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론 신권은 이 말일에 침례 요한에 의해서 회복되었으며 그는 요셉 스미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안수를 통하여 부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가 개개인 이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

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4 : 33-40)

신권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능입니다.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와 거기에 거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신권의 권능입니다. 이 교회는 신권의 권능에 의해서 조직되었으며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조직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소년인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내셨으며 그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계시에 의해서 인도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

은……하나님의 뜻과 계명으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되고 본 교회의 첫 장로가 된 요셉 스미스 이세에게 주신 것이요,”(교리와 성약 20 : 1-2)

또 우리는 다음 구절을 읽어 봅시다. “보라, 너희 가운데 작성될 기록이 있으리니, 그 기록 중에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전자와 번역자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장로로 불리우리니,”(교리와 성약 21 : 1)

나는 형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으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언자 즉 우리의 사랑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립니다.

나는 본부로부터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 교회를 민수 주의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만 사실상으로는 회원들이 선출한 역원들이 회원을 다스리는 대신에 이 교회는 신정 체제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대표자를 통하여 그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개조 제 5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

자, 이것이 바로 요셉 스미스가 주님에 의해서 그의 교회 대관장으로 택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별된 방법입니다.

나는 교리와 성약 107편을 읽으면서 요셉 스미스에게 신권의 각 직분과 각 직분의 의무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서 간증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게 됩니다.

“벨기세택 신권을 가진 대제사들 중에서

세 사람의 관리 대제사가 선출되어 그 직분에 임명 성임되며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 교회의 대관장단인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거듭 이르노니, 대신권의 직분을 관리하는 대관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통할하며 모토와 같아야 하느니라.

“저는 교회의 머리로써 자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지닌 선전자요, 계시자요, 번역자요, 예언자니라.”(교리와 성약 107 : 22, 91-92)

또한 “십이 순회 평의원은 부름을 받아 십이사도가 되나니,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될 자들이니라.

“저들은 정원회를 구성하며 권위와 권능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세 관리 대제사와 동등하도다.”(교리와 성약 107 : 23-2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스미스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십이사도의 의무와 권능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현재의 대관장단 다음가는 것이며……. 또한 십이사도는 대관장단 이외에는 어디에도 중속되지 않으며……또한 내가 없는 곳[교회 대관장을 뜻함]에는 십이사도를 관리할 대관장단이 없습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솔트레이크 시티 : 테저렛 북, 1938년, 105-6페이지)

요셉 스미스가 사망하자 브리감 영을 회장으로 하여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의 관리 역원이 되어 3년 반 동안 교회의 제반 일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브리감 영이 교회 대관장으로 선출되어 그가 보좌를 택하여 성임하고 성별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고 존 테일러가 교회 대관장으로 취임하는데 3년 2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으며 존 테일러가 사망하고 나서 윌포드 우드렐이 교회 대관장으로 선택되고 성별되는데 1년 9개월의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대관장이 돌아가시면 다음 대관장을 성별하는데 불과 몇 일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십

이사도는 대관장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대관장단이 조직될 때까지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나는 1973년 12월 26일에 해틀드 비리 대관장의 서거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는 딸과 그의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지내려고 아리조나의 웨닉스에 있었는데 리 대관장님의 비서인 아서 헤이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리 대관장님이 몹시 편찮으시며 내가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계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0분 후에 전화를 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리 대관장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2 보좌인 롬니 부대관장님이 내가 없는 동안에 교회 일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인 스펜서 더블류 킴블과 함께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리 대관장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롬니 부대관장님이 킴블 회장님을 향하여 “형제님이 관리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가 없으면 십이사도를 관리할 대관장단이 없다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리 대관장이 사망하시고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십이사도가 교회를 관리하는 권능을 맡았습니다.

리 대관장님의 장례식이 끝난 후 킴블 회장님은 12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슬트레이크 신전 평의회실에서 모든 사도들의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롬니 부대관장님과 나는 그 평의회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앉았으며 따라서 거기에는 열네 명이 참석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롬니 부대관장님이 기도한 다음에 킴블 회장님이 매우 겸손한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의 느낌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금요일에 신전에서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보냈고 자신의 새로운 책임을 떠맡고 보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 신권의 예복을 입고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킴블 회장님은 나에게 그 모임을 사회하라고 하시고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에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킴블 회장은 이 모임의 목적을 설명하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부터 시작하여 서열에 따라 정원회 회원 각자가 그날로 대관장단을 구성해야 하는지 또는 십이사도 평의회로서 수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생각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지금 조직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는 킴블 회장에 대하여 또한 십이사도들과 함께 그가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많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스펜서 더블류 킴블을 교회 대관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두번째로 마크 이 피터슨 장로가 똑같이 지명하고 만장 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자 킴블 대관장님은 엔 엘돈 매너를 제일 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를 제이보좌로 지명했고 그들은 각자 기꺼이 그 직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봉사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힘을 바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만장 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자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두번째 서열인 마크 이 피터슨 장로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을 십이사도의 수석 회원으로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것은 만장 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석한 모든 회원들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소리를 내어 스펜서 더블류 킴블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열두번째 대관장으로 축복하고 성임하고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킴블 대관장님이 소리를 내어 엔 엘돈 매너를 교회 대관장단의 제일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를 제이보좌로 성별했습니다. 그는 똑같은 절차에 따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촉박하고 성별했습니다.

그리하여 십이사도 평의회에는 열한 명의  
회원이 있었으므로 정원회의 빈자리를 채우  
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총관리 역원을 부르  
는 방법을 알게 되면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대관장이 요청하여 십이사도 평의  
회 회원이 추천한 사람과 대관장 자신이 고  
려하는 사람 가운데 대관장이 영감과 계시  
를 통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영감과 계시로 인하여 총  
관리 역원은 실제로 먼저 십이사도 평의회  
에서 기록하게 지명받고 승인받은 후에 나  
중에 부름을 받고 성별되며 그 뒤에 대회에  
서 지지받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예를 보  
이기 위하여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있을 때 교회  
대관장으로부터 십이사도의 빈자리를 채우  
기 위해 합당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부탁을  
받고 매우 훌륭한 친구의 이름을 여러 번 제  
출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택함을 받지 못했으며 그  
랜트 대관장님은 만일 자기가 교회 대관장  
이 되고 채워야 할 빈 자리가 있다면 그 사  
람이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부름을 주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관장이 되고 공석을 채울 필요가  
있게 됐을 때 그는 주님께 자신이 누구를  
원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으나 주님이 원하  
시는 사람을 뽑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랜트 대관장이 조금은 알지만 별로 잘 알  
지 못하는 멜빈 제이 벨라드라는 이름이 머  
리에 떠올랐으며 바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그를  
지명했고 십이사도의 승인을 받았습니  
다. 그는 대관장님과 십이사도 평의회에 의해서  
성임되고 성별되었으며 다음 대회에서 지지

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경험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캐나다의 앨버타에  
있는 켈거리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면  
서 1960년 10월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대  
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내가 묵고 있던 유타 호텔에서 전화를 받았  
는데 다음 날 아침인 토요일 아침에 맥케이  
대관장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지 그날 몰랐으며 그날 밤  
에 별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약속된 시간에 대관장님의 사무실에  
서 그를 만났습니다. 내가 의자에 앉고 그  
를 쳐다보자 그는 나의 무릎에 손을 얹고  
눈을 틀어다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너 부장님, 주님께서는 형제님이 십이  
사도 보조로서 총관리 역원의 부름을 받  
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  
다.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부적당하다고 느끼지만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을 섬기는  
데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려고 노력  
했습니다.

그날 아침 교회의 다른 총관리 역원과 함  
께 십이사도 보조로 지지받기 위하여 프랭  
클린 더 리차즈 장로, 테오돌 엠 버튼 장로  
의 이름과 함께 내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대회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교  
회의 모든 역원들은 그들의 직책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됩니다.

지금 나는 반대 지지를 어떻게 처리하는  
가에 관한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1977년  
10월 대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려  
분 중에는 그 절차에 관하여 들은 사람도  
있으며 그 반대의 지지를 한 사람이 자신의  
거수를 기록해 주기 원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거수를 처리하

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한 사람을 제의 하고는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행사에 지지 했으므로 나는 그 사람에게 십이사도의 한 분을 만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 도를 만나도록 부탁한 목적은 왜 그 행사에 서 추천된 역원이 지지받기에 합당하지 않 는지 보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일 어떤 사람이 지지받 아서는 안되거나 또는 지지받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 다면 그를 만나게 되어 있는 사도에게 말씀 드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도는 대관장단에게 그것을 보고합니다.

나는 뉴질랜드에 가서 스테이크를 다시 조직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것 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시에 스테 이크부장 이외에는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뉴질랜 드 스테이크에 있는 감독과 고등 평의원의 명단을 부탁하여 그것을 읽는 동안에 유난 히 눈에 띄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 은 캬블이었습니다. 나는 그 명단을 읽을 때마다 그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덴버 그 감독이 나와 함께 있었으며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모두 접견했습니다.

접견이 모두 끝난 다음에 나는 반덴버그 형제에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합 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 에 일어섰고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 일 형제님이 그 책임을 맡고 있다면 누구를 이 스테이크의 부장으로 택하겠습니까?”

그는 “빌 캬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반덴버그 감독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 님께서 이런 지명을 인도하신다는 또다른 증거입니다.

교회 행정에 관계되는 모든 일은 대관장 단의 지시 아래 행해지며 모든 일은 대체적 으로 세 분야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 대관장단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

둘째, 대관장단의 지시 아래 십이 사도가 집행하는 종무, 셋째, 대관장단으로부터 지 명을 받아 관리 감독단이 집행하는 종무가 있습니다.

대관장단이 직접 집행하는 것의 몇 가지 예를 들면, 지역 대회, 성회, 예산편성, 교 육, 역사, 인사, 신전, 감사, 협의 평의회 및 복지 봉사 등입니다.

이제 십이사도의 책임의 일부에 관해서 간단히 그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십이사 도 평의회는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아 교회 의 모든 종무와 친신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이 수행하는 교회의 종무 일체에 관한 책임 을 집니다.

교회 전체를 통하여 스테이크 대회의 일 정표를 짜고 7월을 빼고는 일년 내내 매주 열리는 이 대회에 참석할 총관리 역원을 지 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총관리 역원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 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기 위하여 주일에 총회뿐만 아니라 토요일 저녁 모임을 위하여 준비된 프로그램을 이 용하고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들은 스테이크 부장단 및 스 테이크 역원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룩한 발 전과 더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함께 논의합니다. 총관리 역원들은 대회에서의 임무와 여행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 주일에 적어도 이들은 어떤 때는 삼사일씩 자기 가정을 떠나야 합니다.

현재 십이사도 밑에는 네 과가 있습니다. 각 과는 십이사도의 지시 아래 삼사명의 친 신인(그들의 임원과 함께)이 관리합니다.

이 과는 즉 신권, 선교, 계보, 교과 과정 과입니다. 나는 나중에 두세 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다룰려고 합니다.

또한 십이사도 평의회는 새로운 선교 부장 을 위한 세미나와 지역 대표를 위하여 일년 에 두번 세미나를 계획하는 책임을 지고 있 습니다.

우리는 십이사도가 단독으로 이 무거운 책

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전에 몇 사람이 십이사도 보조로 임명된 것을 알 것입니다. 또한 더 최근에는 교회가 급속히 성장함으로 인하여 또한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이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칠십인 제일정원회 회원이 되도록 임명받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의 다른 칠십인 정원회를 관리한 단 일곱명의 회장으로로부터 이 정원회가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칠십인은 십이사도회 곧 순회 고등평의 원회의 지시 아래 교회를 설립하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함에…” (교리와 성약 107 : 34)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은 십이사도의 지시 아래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과를 관리합니다. 신권과에서는 벨기세택신권, 아론 신권 및 보조 조직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건의하며 활동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교과 과정과에서는 훈련 자료, 공과 교재 및 비행정적인 지침서를 제공하고 교회 잡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교회 출판물의 생산을 조정합니다.

협의 임원은 교리, 고유 번호 등에 관하여 학습 과정을 위한 모든 자료와 잡지를 검토하고 협의 위원회에 보고하며 이 위원회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및 관리 감독과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회원 개개인을 신전 사업, 선교 사업, 교회의 다른 조직에서의 책임과 영생을 위하여 준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협의합니다. 개인을 영생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선교과에서는 예비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선교부에서 사용할 선교사 선교 자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선교사의 임무를 돕고 방문자 센터의 운영을 감독하며 기타 선

교사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를 감독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가 어떻게 부름을 받는지 알면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감독은 예비 선교사가 부모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를 접견하여 그 사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기 전에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합당하고 선교 사업을 수행할 열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부모와 상의합니다. 부모가 허락하면 감독은 그 사람을 스테이크 부장에게 추천하며 스테이크 부장도 그 사람과 접견합니다. 합당하고 열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관장단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선교 사업의 부름을 주기 위해 결정할 때 추천서에 나타난 그 사람의 태도와 당시에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부 등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합니다. 그리고는 영감을 통하여 그 사람이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선교부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대관장단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며 그 부름을 받게 되면 즉시 각 선교사는 대관장에게 회신을 보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고 어떻게 주님의 영감이 그의 사업을 인도하시는가 보여 주는 어떤 선교사 부름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예를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부름을 주는 편지가 어떤 선교사 그룹에게 보내졌을 때 선교사과의 집행 서기는 미국 동부의 어떤 선교부로 부름을 받은 청년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읍니다. 그 어머니는 그 청년의 부모가 몹시 실망했는데 그 이유는 그 청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독일의 선교부에서 봉사한 적이 있으므로 그 청년도 독일 선교부로 부름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기가 어머니에게 그 청년은 그 부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어머니는 그가 학교에 갔으며 그가 없는 사이

에 편지를 개봉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가 어디로 부름받게 될 지 몰랐습니다. 그 서기는 그 청년이 교회 대관장으로부터 받는 유일한 편지인 그것을 어머니가 뜯어 보았다는 데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고 그 청년이 그 편지를 읽은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하도록 제언했습니다.

다음날 그 어머니는 몹시 죄송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다시 하면서 그 청년은 그 부름에 대하여 아주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밀한 가운데 외국으로 부름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리 감독단의 사무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대관장단으로부터 지명받은 모든 속무의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는 시설이 포함되며 그들은 종무 분야에서 필요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유지하기 위한 봉사과로서 일합니다. 또한 제정, 회원 기록, 금식 헌금, 십일조, 구매,

번역 및 배부에 관계되는 일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지 사업과를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 과에 관한 중요한 프로그램과 정책은 복지 사업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 위원회는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관리 감독단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구성됩니다. 복지사업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에 걸쳐 데저렛 산업 운영; 스테이크, 와드 및 선교부 복지 프로그램; 감독의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교회가 매우 커지고 성장함으로써 특히 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조직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행정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그런 곳에는 대부분이 교회의 제반 행정에 관한 경험이 거의 없는 회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지부와 지방부, 와드와 스테이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976년경에 방문한 베네주엘라의 카라카스에서 선교부장이 회원들



의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거기는 3, 4백명이 참석했는데 5년 이상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 뒤에 우리는 카라카스에 하나의 스테이크를 조직했으며 가장 오래 된 회원이 7년 밖에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개발 지역에 있는 조직에는 많은 훈련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중무 행정을 위하여 전 세계를 집행 관리자의 관리를 받는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런 지역 중에 열두 개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있습니다. 집행 관리자는 모두 칠십일 제일 정월회 회원이며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행정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그 지역에서 선택되었거나 가능한 한 그 지역에 가까이 사는 경험이 많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지역 대표가 있습니다. 각 지역 대표는 여러 개의 스테이크 및 선교부를 관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테이크와 선교부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솔트레이크시티의 본부와 직접 연락하는 대신에 지역 대표를 통하여 집행 관리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속무에 관한 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실무 책임자가 있으며 그는 관리 감독단의 지시 아래 그들이 거하도록 지명받은 지역의 일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며 모든 행정 지역에서 합당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행 관리자와 실무 책임자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주의깊게 협력하고 협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일은 모두 대관장단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관장단은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 8시에 모든 절차에 대한 완벽한 기록을 갖고 있는 비서와 만납니다.

이 토론에는 대관장단에게 발송된 서신도



포함되는데 거기에는 교리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스테이크 부장단과 고등 평의회에서 파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항소까지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장과 목치장에 대한 표준, 최면술, 안식일 준수, 지역 역원에 대한 불만, 영혼 재래설, 신체의 일부를 과학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 화장, 이식 수술, 법적 인 문제, 등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새로운 신전장의 택함, 언제 어디에 새로운 신전을 지을 것인가 또한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과의 모임에서 논의할 안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열리는 성회와 지역 대회도 계획합니다.

화요일 아침 10시에는 지출 위원회와 만나는데 이것은 대관장단, 십이사도 비 분과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각과의 장이 그들에게 필요한 지출을 고려해 주도록 제출하며 분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과에서 스테이크나 워드 건물, 선교사 숙소, 방문자 센터 등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신청과 유지비에 관한 토론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리 감독단에서는 복지 사업을 포함하여 지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요일의 대관장단 모임은 역사과, 인사과, 공보과 등의 각과의 장이 대관장단에 직접 제출하는 보고를 듣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한 방문자와의 약속도 가능하면 수요일 아침으로 계획합니다. 나는 언제나 서신이나 구두 보고를 통하여 직접 간접으로 들어오는 보고를 받을 때 교회 대관장이 방문자들에게 끼친 영향에 감명을 받습니다.

대관장단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는 대학교와 단과, 신학 연구원 및 중등부 또한 기타 교회 학교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교회 교육 위원회 및 재단 이사회와 연석 회의를 갖습니다. 또한 매달 한 번 수요일에는 협의 평의회를 갖는데 이것은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및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모든 책임 분야가 조정되고 명료해 지도록 정책, 절차 및 행정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복지 사업 위원회를 만납니다.

그들은 목요일 아침 10시에 신전의 이층에서 십이사도 평의회와 함께 모이는데 거기에는 십이사도가 8시부터 모여 있습니다. 신전이 완성된 때로부터 바로 이 방에서 교회 지도자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영적인 느낌을 경험하며 때로는 이전에 돌아가신 위대한 예언자가 임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역대 교회 대관장 열두 분의 초상화가 하이람의 초상화와 함께 벽에 걸려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도를 부르신 갈릴리 바다에 계시는 구세주의 사진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과 승천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평의회실에 앉았던 수많은 위대한 예언자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 아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관장단이 목요일 아침에 이 방에 들어서면 우리는 십이사도 전원과 악수를 나누고 신전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꿇어앉아 기도하고 제단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나서 평상복으로 갈아입

습니다.

지난 번 모임의 의사록에 관해서 토론한 뒤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합니다. 스테이크 부장단의 추천에 의한 감독단의 변경에 대한 승인—전에는 십이사도 모임에서 토론했습니다. (1977년에는 매주 평균 25명 내지 30명의 새로운 감독을 승인했다는 것을 알면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통하여 스테이크, 와드, 선교부, 신전 조직 및 경계와 역원의 변경; 보조 조직 역원 및 행정: 각과의 장이 제출한 문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스테이크 대회 및 기타 활동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장례식, 말씀 약속 등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모임에서 행정이나 정책에 관한 어떤 변경이든지 모두 고려하고 승인하며 그것은 교회의 공식 정책이 됩니다. 이 토론에 관한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십이사도 중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어떤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고 각각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시했던 때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이 그 토론을 요약하고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때 나는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언제나 올바른 해답에 도달하는가를 보고 우리 모두가 그것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을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형제는 나에게 “형제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회원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지 간에 그 결정은 만장일치로 되어야 합니다.

매달 첫째 목요일에 대관장단은 모든 총관리 직원 즉 십이사도, 칠십인, 관리 감독단을 만납니다. 이 모임에서 모든 사람에게 프로그램이나 절차에 관한 제반 변경 사항을 알리고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칩니다. 대관장님은 회원들이 간증하도록 부탁하며 그 다음에는 신전복으로 갈아입고 성찬에 참여한 다음 참석한 회원 전원이 참여하여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모두 끝나면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이외에는 모두 해산하며 남은 사람들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목요일 모임의 정규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록 서기는 거기서 말하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목요일의 각 모임이 끝난 후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식당으로 가서 배정된 방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 방에는 훌륭한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휴식 시간으로서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경험을 교환하고 공통의 관심사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미있는 토론에 관하여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는 관리 감독단이 대관장단을 만나서 보고 하고 행정에 관한 문제를 토론합니다.

아시아시피 교회에서는 보너빌 국제 주식회사, 베네티셜 생명 보험 회사, 유타 호텔 시온 증권 회사, 미저렛 신문사, 미저렛 공제 조합 등과 같이 교회에 이익을 주고 공공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기업체를 갖고 있

습니다. 또한 광대한 농장과 목장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교회가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 관리 감독단 등과 같은 책임을 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합당하게 운영되고 지역 직원들도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인도받도록 바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님 자신에 의해서 인도받는다라는 것을 간증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교회 회원인 것을 감사드리며 영생을 얻도록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 교회의 우리 자매들

“이 교회의 여성들은 우리와 그 행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우리와 똑같이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사업을 행하야 하는가 하는 배너 부대관장님의 탁월한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신권회 모임은 교회의 모든 남자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행사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릴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감사드리며 인간의 역사상 또는 교회 역사적으로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재능과 헌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지상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주일 전 오늘 밤 교회의 모든 여성들이 이 커다란 테버나클을 채우고 지금 여러분이 모여 있는 바로 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나는 직접 여성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병실에서 특수 텔레비전으로

이 훌륭한 모임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가슴은 이곳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훌륭한 자매들을 위한 특별한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인 카밀라 자매가 그 사랑스러운 자매들에게 나의 간단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에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권회 뿐만 아니라 연차 대회의 모든 모임에서 형제들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비슷하게 권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이제 형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자매들에게 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지상에 각 시대마다 특별한 여성들을 보내 주셨는데 그런 여성들은 우리에게 깊고 영원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공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고 또 지금도 중요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심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 어머니, 딸, 자매, 그밖의 여성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가 여성을 대할 때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고귀한 딸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모로 취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 모두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행할 가장 위대한 교회 일은 여러분 자신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소책자 가정을 강화함, 8페이지 참조)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교회 일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자기 가정에 있는 교회 자매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섬기고 인도했는지 아닌지에 의해 판단도 됩니다. 내가 섬기고 인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과 모범과 비이기적인 봉사를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기 가정에서 지도자며 중인 동시에 겸손한 가장이 되려면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비이기적이고 봉사하며 사려깊고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인 아내와의 부부 관계는 완전한 부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스테이크 부장, 감독 및 그 보좌

들과 형제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아직 합당한 남자에게 영원히 인봉되는 축복을 받지 못한 자매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의롭게 가정 생활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들이 연연 중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정에서의 위치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축복으로 여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했거나 남편이 없는 미망인 또한 아버지가 없는 어린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책임에 늘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여성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의 남성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매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좋지 않은 보고를 받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이 생길 때 그것은 여성들에 대한 무신경과 사려깊지 못한 태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래서 안됩니다. 이 교회의 여성들은 우리와 그 행하는 일이 다를



지라도 똑같이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일은 우리와 지명받은 일이 다름지라도 우리가 행하도록 부탁받은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세상적인 길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매우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강하고 선하고 참되며 그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다루어지고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해 주고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들은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은 방종하거나 짐짓 겸손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매와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리에 의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우리의 행동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만큼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경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더 달라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했는가 또한 적절히 대우했는가. 또한 한 마음 한 뜻인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다른 자신의 교회 지명을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지상에서 우리의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 가족과 교회의 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맥케이 대판장님은 현명하게 "어떤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1964년 4월 대회보고, 5페이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을 기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때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을 매우 여러 번 말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세상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며 그 머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압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사랑과 축복과 선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공헌

“복음의 메시지는 감미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와 선의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것입니다.”



앤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일보좌

오래 전에 뉴헤이에서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사는 젊은 미망인이 구두를 수선하도록 구두를 제화점에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수선한 구두가 왔을 때 구두 속에 종교적인 소책자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소책자에 흥미를 느낀 그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른 낡은 구두를 담은 꾸러미를 갖고 걸어서 반시간이 걸리는 제화점으로 출발했습니다.

구두 수선공에게 구두를 맡기고 나오려는 순간 그 소책자에 관하여 묻고 싶었습니다. 언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 잠시 망서렸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제화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자제분의 구두에 대는 밀창보다 더 가치있는 것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하면 놀라시겠지요.”

“내 아이의 구두 밀창보다 더 좋은 것이라니 무엇을 줄 수 있지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

니께서 듣기만 하신다면 주님이 그의 자녀에게 참된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생애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과 내세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 지상에 있으며 죽은 후에 어디로 가실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모르던 것 즉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안나 윗소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존 앤더슨 윗소우는 겨우 일년 전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큰 아들인 존 앤드리애스트는 여섯 살이었으며 작은 아들인 오즈번은 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젊은 미망인과 큰 아들은 무덤을 파놓은 곳 옆에서 있었는데 그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하는 교회 장례 예배의 병혹한 말이 들렸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사는 지구보다 더 행복한 곳에서 미래에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생활은 의로왔으며 그녀의 마음에는 해답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의문으로 가득 찼는데 그녀가 속한 종교에서는 그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화공에게 다음과 같이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며 우리는 몰몬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구두를 수선해서 보낼 때는 언제나 새로운 소책자가 있었으며 결국 그녀는 호기심에 끌려 몰몬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안나 윗소우는 지성적인 여성이었

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장로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으나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교리의 요점에 관하여 논쟁하고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못해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지 2년이 조금 더 지난 1881년 4월 1일에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 피요르드(빙하의 침식으로 생긴 협만)의 가장자리에는 아직 얇은 얼음이 덮여 있었고 침례받기 위하여 그것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 물은 얼음 같이 차으나 그녀는 죽는 날까지 그 옛날 토론점의 피요르드의 침례받는 물에서 올라올 때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내부에 불이 붙었으며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안나의 큰 아들인 존 에이 윌소 장로가 쓴 복음 그물(솔트레이크시티; 1942년 임프르브먼트 이라, 47, 53-57페이지)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는 나중에 사도가 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십이 사도 평의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1830년부터 전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되풀이 되도록 어떤 특별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까?

1830년 4월 6일 어린 농부의 아들인 요셉 스미스에게 하늘의 시현이 열린 후의 일련의 사건이 있는 후,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최초로 교회가 조직되었을 당시의 회원은 단지 6명에 불과했습니다. 조직하는 데 따르는 다른 조치가 있는 후 그들은 강으로 가서 다른 사람 몇 명에게 침례를 베풀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1980년 4월에 150주년 기념 경축을 할 것이며 그때는 회원 수가 4백 3십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

는 이런 일을 가져온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사 29 : 24)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복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인도해 온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요셉 스미스의 초기의 생활을 간단하게 검토해 봅시다. 그는 1805년 12월 23일 버몬트주 윈조군 새론읍에서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16년에 스미스 일가는 뉴욕주 팔마이라로 이사했다가 곧 가까운 만체스터로 이사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여기에서 모든 종교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느 날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 : 5)

그 성구는 이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소년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해 보고는 모든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참된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기 위하여 숲 속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그의 간증에서 여실히 설명한 대로 그의 머리 위에서 빛 기둥이 내려왔으며 그 가운데 두 분이 나타나서 그 중 한분이 다른 분을 가리키면서 “요셉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 : 17)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가 시현을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조소하고 욕했으며 제시나 시현같은 것은 없으며 그런 것은 사도와 함께 없어졌고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삼년 동안 평범하게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시헌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1823년 9월에 다시 모로나이이라고 하는 하늘의 사자가 방문했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 천사는 근처의 언덕에 묻혀 있는 금판에 써여진 책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 금판에는 이전에 미대륙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관한 기사와 구세주께서 이 고대 사람들에게 전하신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4년 동안 매년 한번씩 그 금판이 묻혀 있는 장소를 방문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고 마침내 금판을 받아 번역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모로나이 천사를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물문경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 마지막 장에 이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서 10 : 4-5)

바로 이 권세가 매년 수십만 명의 개종자에게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물문경이 참되며 이것은 성경에 수반되는 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새롭고 그 이상의 증거이며 그가 옛날에 미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에 관한 기록이라는 간증을 전해줍니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실하고 헌신적인 수백만 회원의 가슴에 불타

는 강한 간증의 원동력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참된 교회를 찾아 다니며 다른 종파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혼란한 교리에 당혹함을 느끼는 14세의 이 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가 시헌을 보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박해를 감수하고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후에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할 때에 그가 분명히 빛을 보고 소리를 들어 시헌을 보았다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가 거짓을 말한다고 했으며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하여 조롱받으며 옥실을 들었던 때와 똑 비슷한 심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그가 실제로 시헌을 보았다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시헌을 보았으며 자기에게 시헌이 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아래 어떠한 심한 박해도 이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었으며 사람들이 그를 뺨박하여 죽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숨이 질 때까지 그는 알고 있었고 또 알고 있으려 할 것이며 그가 빛을 보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온 세상도 그로 하여금 달리 생각케 하거나 달리 믿게 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요셉스미스 2 : 24)

나는 그가 금판을 받고 그것을 보호하고 번역하는 그 무거운 책임을 인식할 때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정구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로 외국어를 해석해야 하는 대단한 과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길이 열렸으므로 서기, 출판업자, 재정등을 모두 제공받았습니다.

어떤 저자는 1843년 9월 4일자 뉴욕 썬지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은 비범한 성품 즉 영웅적인 예언자의 성품을 타고 났음

에 틀림없으며 카알라일이 살아 있으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며 어쨌든 미래의 역사에서는 사회에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 줄 사람의 부류에 들 것이다”(교회 정사 6:3)

미국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라는 책에서 우리는 존 헨리 이반스가 이렇게 쓴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큰 도시의 시장이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민이 되었으며 연방 군대 이외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훈련된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으며 도시와 대학교의 설립자가 되었다.…”

“그는 책(물몬경)을 썼는데 이것은 백년 동안 문학 비평가들을 당황하게 했으며 어늘날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읽혀지고 있다. 그는 조직 사회의 출발점에서 근대 사회에서 거의 가장 완벽한 사회 구조를 설립했고 완전성과 응집성을 위하여 역사상 그 어떤 종류의 것에도 도전하는 종교 철학을 개발했다. 또한 그는 인간의 마음에서 질병, 노년, 실직, 빈곤으로 인한 가난의 공포의 무리를 몰아낼 경제 체제를 위한 기구를 설립했다.” (뉴욕 : 맥밀런, 1946, 4페이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공헌은 세상에 어떤 큰 의의가 있을까요? 그 중의 몇 가지를 고려해 봅시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신화에 대한 개념일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신이 다른 세 개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으나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직접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개성과 형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소년은 그 숲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형상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하시며 사려깊고 친절하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개

체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그가 요셉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은 똑같이 개체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십니다.

그 숲에서 일어난 일은 계시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확고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계속적인 계시의 필요성에 관하여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요셉 스미스는 그가 받은 계시에 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진리를 권능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우리는 천세에서 살았으며 우리는 이 생에서 자신을 증명하며 우리가 충실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한 진보를 통하여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되시는 것과 인간이 그 자녀인 것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또다른 가르침은 사탄 즉 악마가 실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끌어내어 그의 포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유 의지의 교리에 관해서 가르쳤는데 즉 우리는 축복이나 벌이 따르는 선이나 악을 스스로 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린도후서 5:10)

그는 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세상에 알려 주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계시를 통하여

집사부터 대제사까지의 모든 신권 직분과 그의 의무를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교리와 성약 107편에 매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 교회가 주님이 옛날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와 똑같은 조직과 직분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요셉 스미스는 계시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가 영의 장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신성한 것이며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육체를 돌보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자기 영이 거하기에 합당한 장소로 우리 육체를 관리하도록 돕기 위하여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이 계시를 따르면 육체와 마음에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신약에서 가르쳤지만 사도 시대 이래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던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이 교리와 함께 가족 단위의 영원성과 해의 왕국의 결혼의 원리를 가르쳤는데 이것은 현세와 영원을 두고 계속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 계시며 그리스도가 성경과 현대의 경전에 묘사된 실제 인물로서 십자가에 못박히고 부활하기 전과 그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 사시면서 가르치고 어린이와 병자를 축복하셨고 여러 곳으로 여행하시며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만족스럽고 영광스러운 느낌입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왜 그를 신화적인 인물이나 위대한 철학자로 생각하려 하며 그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려 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 구원에 필

수적이며 지상에서 그의 성역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 요한이 베푼 침수교사의 침례에 의해 자신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마 3:15)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써 지시하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19-20)

그는 모든 구원 의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수행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의식을 행할 권능을 지닌 사람에 의해서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는 구약 및 신약 성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타락과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요한계시록 14:6-7)

나는 오늘 아침 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사가 날아갔으며, 영원한 복음이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의 의식을 집행할 권세를 갖고 지상에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인간에게 위임한 하나님 권세

인 신권의 권세가 교대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과 기타 모든 초기 사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예언자를 통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각각 자기 가 살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 스미스도 이 말일에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예언자, 선전자 및 계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모든 국가, 족속, 방언 및 백성에게 복음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2만 8천명 이상이 되는 우리 선교사들이 그리스도가 지상에 제살 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간단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되는 위대한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

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 : 27)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다음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위한 안수례”(신앙개조 4)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지상에 사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이 교회는 주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자 곧 스펜서 더블류 킴블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와 선의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받아 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승영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간증이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물몬 사상의 신비

“세상 사람들이 물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천국이 되도록 하고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도록 해주는 율법과 진리라고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브루스 알 맥킴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나는 지금 엔 엘돈 태너 부대판장님이 감명깊게 간증하신 것에 대한 두번째 증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좀 새로운 교리를 들고 싶어하며 좀 이상한 광경을 보고 싶어하며 종교계의 가장 큰 신비인 물몬 사상의 신비를 해명하고 싶어하고 캐묻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독특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시온을 건설하고 사람들이 인자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국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신 분의 성도로서 우리는 물몬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때 흔히 그랬듯이 “망상, 거짓 예언자, 일부 다저” 또는 일부에서 요즈음 말하듯이 “인종 차별 주의자, 여성의 적, 족장 같은 독재자” 또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되게 주장하듯이 “아담의 송배자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자비를 부인하는 자”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이상한 종

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각 시기의 케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는 백성들 사이에 편견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주장과 우리의 급속한 성장과 세상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시샘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기적인 말과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사회적 및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이런 말은 주님의 사업의 참됨과 신성에 대한 또다른 증거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악마는 죽지 않았으며 한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눅 23: 21)라고 외칠 때 그의 음성을 높였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병적 흥분 상태에서 지금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와 공개적인 대화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믿으며 왜 우리의 대업이 그렇게 경이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벤전 2: 9)이라는 우리의 칭호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독특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이는 우리가 세상을 버렸고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하고 진리와 미덕의 길을 걸기로 성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시대에 참된 신자들에게 관하여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하여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이제 우리는 우리 이웃 즉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유대인, 이방인 모두의 견해와 관심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정중히 우리가 믿고 참되다고 알고 있는 몇 가지를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안정과 기쁨, 내세의 영광과 명예에 관한 우리의 소망은 모두 우리의 교리, 신학, 우리에게 나타난 계시에 의한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나은 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우리의 신조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지 알고 싶어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장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개체이며 거룩하신 분으로서 무한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는 지존하신 분이요 영원한 절대자이며 수없는 세계와 거기에 거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며 가족 단위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의 영을 느꼈습니다.

그는 율법을 제정하셨으며 그의 자녀들이 발전하고 진보하여 자기처럼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은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죽어야 할 육체를 얻고 신앙으로 생활하면서 시험을 받으려 올 장소로서 이 지구를 창조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지상에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임하도록 아담의 타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인간을 타락의 상태로부터 구원할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속죄는 육체를 입은 독생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높고 거룩한 사업을 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정의 시대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의 선하심과 자비를 통하여 또한 그의 속죄의 희생으로 인하여 옵니다. 그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모세 1:39)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입니다. 그의 사업은 중재와 화해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하고 영원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의 속죄가 완전한 효력을 미치도록 하고 순결케 하는 그의 피의 권세를 우리 자신을 위해 적용하기 위하여 그와 그의 아버지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칭복 받을 때 우리의 전생애 동안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성약을 맺고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거룩한 권고자의 인도를 받아 빛 가운데 견고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도록 모든 세대에 걸쳐 제시된 계획입니다. (빌 2:12, 참조)

그러므로 이제 너희 하늘아 들을지어다.

오 너희 땅은 귀기울일지이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며 그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도록 간청하시는 하늘 위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약속된 만유의 회복을 시작하셨음이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그가 나타나십니다. 육신의 인간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봅니다. 그는 명명하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그의 아들의 복음이 새로이 알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제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의 아들은 그의 음성과 증인과 계시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870년 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 1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즉시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교성 98: 12) 주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물문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에 의해서 계시되고 번역되어 세상에 출판되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가 다시 확인되었으며 태초로부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을 발표하며 새로운 계시가 주어집니다.

성역을 베푸는 찬사도 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열쇠와 권세와 신권을 부여합니다.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과 그 모든 열쇠와 권세를 부여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멜기세덱 신권, 거룩한 사도 직분, 왕국의 열쇠,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룩한 임무를 다시 부여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이 두번째로 모이도록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사람이 하늘과 땅에서 매고 풀 수 있도록 인봉하는 권세를 가져 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영원하고 온전히 회복되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완전해지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굴러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 6: 10 참조)

이 거룩한 복음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구원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거룩한 신전에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권세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모세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인을 집합시키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개종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과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고대 예언자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실한 자 가운데에서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절름발이가 걷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지상의 왕국을 다스렸던 것과 똑같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사도와 예언자들이 말하고 성역을 행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족 단위를 더 높게 존중합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여성들보다도 더 큰 존경을 받고 더 중요한 일을 수행하며 타고난 재능을 개발합니다.

참으로 복음의 주된 목적은 남성과 여성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영원을 두고 영원한 가족 단위를 스스로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기쁨과 내세에서 영생을 얻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물론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가 천국이 되도록 하고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도록 해주는 율법과 진리라고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완전한 생명과 구원의 계획, 모든 신비 중의 신비, 곧 이 불문 사상은 하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금강석과 같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의 자녀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계시요 찬사요 시현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인간에게 증거하는 성신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에 가서 하늘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이 도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것은 육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고 분명하며 감미로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것은 말씀하시는 모든 총관리 직원들의 통일된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이 성공할 것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운명을 인도하실 것이며, 지금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신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올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그의 말일성도들 가운데서 통치하기 위하여 하늘의 구름 가운데에서 다시 올 때까지 발전하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에서 화평을 얻고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우리는 모두 회개와 고백과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죄와 약점을 씻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버나드 피 브룩뱅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인간이 만들어 낸 종교와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나 이 지구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인간에게 권고하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 : 8-9)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을 위하여 이 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회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이 생에서 가장 높은 목표의 하나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 : 3)

또한 주님은 인간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 : 37)고 명하셨으며,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거

룩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진실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면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부어 주리라. 네가 받을 복이 크리니, 참으로 네가 얻게 되는 세상의 보화보다 많고”(교리와 성약 19 : 38)

우리는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골로새 5 : 17-18)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사탄과 이 세상의 나쁜 권세와 영향력을 정복하고 극복할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만드는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10 : 5)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성한 축복입니다. 다시 구세주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태복음 6 : 9-13)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씨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며, 이 생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약함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회개해야 하며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발전시키는 일에 헌신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생의 유혹에 대처하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서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중요한 축복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무 것도 주 앞에 행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너희들 영육에 이로운 것이 되도록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성결케 하시리로다.” (니이 32 : 9)라고 가르쳤습니다.

의미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하나님의 참된 특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급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구원으로 인도하며 무지는 그 목표에 대한 장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회개하고 고백하며 자기 죄를 버리면 완전한 용서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무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요리와 성약 58 : 42, 43)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하며 끊임없는 기도와 순종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과 육체를 순화시키고 쌓아 올려야 합니다. 고백에 있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고백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진실한 기도에 대한 보상으로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가르치고 약속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태복음 7 : 7-8)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적을 갖고 생활하고 일하고 관찰하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인간에게 항상 이런 말로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너희가 마음으로 염려함을 아노니, 이 일이 나를 슬프게 하여 이러한 것을 말하게 하였도다.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영에게 귀기울였던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악령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가르쳐 기도하면 안된다 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힘을 잃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무 것도 주 앞에 행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너희들 영육에 이로운 것이 되도록 내가 행한 일을 성결케 하시리로다.”(니파이서 32 : 8-9)

주님의 종 이노스는 진실한 기도의 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을 강조할 것을 분명히 원하셨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이 말은 몇 번 인용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나의 죄 사람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한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 하노니,

“보라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밤이 되도록 소리를 높혀 하늘에까지 소리가 들리도록 부르짖었더니,

“한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기를, 이노스야 내가 죄 사람을 받았으니 내가 복되리로다 하시니라.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는 거짓 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알아” (이노스서 1:2-6)

우리는 모두 이노스처럼 회개와 고백과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죄와 악함을 계속해서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주님의 약속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 (교리와 성약 58:42-43)

회개는 몸과 마음을 순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며 더 큰 완전과 경진을 얻게 해줍니다.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와 회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 부터 응답을 받는 것에 관해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라. 그가 천지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

지셨음을 믿으며,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만사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또한 너희 죄를 회개하여 죄를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믿으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진실로 너희가 이 모두를 믿을진대 이를 행하라.”

“이미 내가 이른 대로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며, 그의 사랑을 맛보며 너희 영육을 그토록 기쁘게 하는 죄사함을 얻었거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합당치 아니한 너희를 대함에 선하시며, 오래 참으심을 항상 기억하여 스스로 지극히 겸손하며,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천사의 입으로 전하여진 장차 오실 이를 믿는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을 늘 기억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행할진대 항상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며 언제나라도 죄 사람을 받을 것이라. 또한 너희를 지으신 이의 영광, 곧 공의로우시며 참되신 이의 영광을 더욱 더 알게 되리니” (모사이야서 4:9-12)

여러 성구에서 개인적인 기도의 힘과 필요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행여 마귀가 너희를 꾀어 사로잡을까 염려함이라.

“또한 내가 너희를 가운데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교회에서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 (니파이삼서 18:15-16)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밀같이 채로 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

게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니파이삼서 18 : 18-2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족 기도를 갖도록 권고하십니다. 그는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파이삼서 18 : 21)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 중의 하나는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가르칠 거룩한 책임과 자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를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교성 6 : 12)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축

복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구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일때,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도록 할지이다.”(모르나아서 7 :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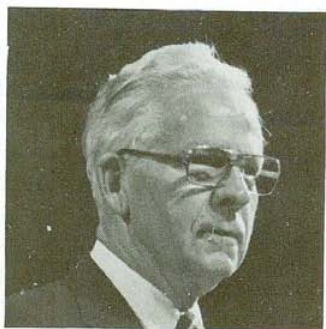
우리는 하늘에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겸손한 기도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생애 동안 거룩한 기회와 축복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순결한 생활을 하며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변화를 통한 진보

“주님은 그의 교회가 방해로 받아 정체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의 왕국의 발전을 위하여 예언자를 통해오는 끊임없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마빈 제이 애쉬워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관 상수의 뿌리가 조여져서 자랄 수 없게 되어 시들어지자 우리의 젊은 친구 한 사람이 그것을 좀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작은 화분에서 꺼내어 가능한 한 뿌리와 흙이 상하지 않도록 애쓰면서 좀더 큰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 뜻내기 정원사는 그 나무를 지켜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여전히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경험이 많은 정원사에게 자기가 실망한 것을 이야기하자 그 사람이 도와 주었습니다. 그 정원사는 그 나무를 빼내고는 흔들어서 뿌리에서 흙을 털어 내고 큰 뿌리에서 갈라진 것을 모두 자르고 빼냈습니다. 다시 그 나무를 화분에 심어 나무 주변에 흙을 다져서 콕 끼이게 했습니다. 곧 그 나무는 새 생명을 얻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자신의 뿌리를 인생의 토양에 뻗게하여 속박을 받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너무 부드럽게 다루고 토양을 휘젓거나 큰 뿌리를 잘라 내려는

모든 사람에게 반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진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로 변화는 어렵습니다. 변화는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가 방해로 받아 정체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의 왕국의 발전을 위하여 예언자를 통한 끊임없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변화 그 자체처럼 필연적이고 일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은 언제나 변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관계,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형제 자매 간의 관계는 모두 동적이고 변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해주는 불변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나나 현재의 자신처럼 되어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를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의심하고 그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기도 전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변화를 고려하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의미가 깊은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변화는 주님의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변화할 기회가 우리 생활에서 오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발전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하나? 나는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나?” 매우 조심스럽게 대안을 고려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할 계획을 하는 데 매우 필요한 선결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계

획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생활에서 변화할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탁월 변화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방법을 택할 자유를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울창한 숲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침반이 귀중하듯이 복음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에 길을 나타내 가리켜 줍니다.

시 에스 루이스(1893-1963, 영국 소설가, 수필가)는 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에 관하여 쓸 때 변화에는 흔히 고통이 따른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본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하여 들어오신다. 맨먼저 여러분은 그가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배수관을 똑바로 하고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등의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그는 지독하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집을 이리저리 두들기기 시작하며 사리에 맞지 않게 행하는 것 같아 보인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그는 여기에 새로운 지붕을 달고 저기에 마루 바닥을 더 늘리며 탑을 올리고 정원을 만드는 등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알맞은 작은 오두막집을 만들려고 생각했으나 그는 궁전을 지으시고 있는 것이다.”(시 에스 루이스 기독교 사상, 뉴욕 맥밀런 출판사, 1960년, 160페이지)

그렇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때에는 큰 만족도 있습니다. 인생은 언덕과 계곡의 연속이며, 계곡에서 가장 훌륭하게 발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변화는 회개에 있어서 의미깊은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나는 유타주 교도소 예배당 기공

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기공식이 끝난 다음 교도소장 모리스씨가 주지사 스코트 매시슨과 나에게 그 시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도소 주변의 정원을 유쾌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성을 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는지 교도소장에게 묻자 그는 그 땅을 개간하도록 두 죄수에게 감방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도소장은 우리가 그들을 만나도록 감옥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벌과 브라운이 감방으로부터 우리에게 걸어들 때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는 표정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 땅을 가꾼 것에 대하여 찬사의 말을 보내고 싶습니다. 꽃밭과 채소밭은 보기에 아름답고 잘 가꾸어져 있군요. 훌륭한 일을 한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들의 표정에 나타난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찬사로 그들은 자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여 돌이 많고 잡초로 덮인 마당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시킨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좀더 일찍 돌이 많고 잡초로 덮인 그들의 인생의 벌판을 생산적인 정원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지역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이런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정원을 변화시키는 일을 맡은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생활을 개선한 것입니다.

언젠가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우리의]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의]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중요한 인용문에서 발췌, 에머슨 로이 웨스트 편, 슬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8년, 19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배경의 새롭고 안전한 길로 걷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꿈도 꾸지 못한 높은 곳에 도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참한 역경에서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불가능한 시작의 몇 가지 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번째 예는 극도로 불행한 가정 생활을 한 소년입니다. 그의 가정은 그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이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수시로 기분에 따라서 지나치게 엄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아버지로부터 종종 언어 맞았습니다. 그 소년은 유년기의 많은 시절을 버스 안이나 기차 역이나 싸구려 호텔에서 자면서 보냈습니다. 그 소년은 열네 살 때 탈주자로서 체포당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모두가 그를 신뢰할 수 없고 자주 난폭하게 구는 고독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두번째 예는 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소년입니다. 그는 유년 시대를 통털어서 쉽게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약한 육체는 그의 지나치게 큰 머리를 지탱할 수 없을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정신 박약"인 것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워했으므로 한번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소년을 때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전에 세 아이를 잃고 나서는 슬퍼서 더 이상 노력하기를 거부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어떤 젊은이는 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번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소년이 다른 어떤 소년보다도 읽고 공부하려는 마음이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엠 기번즈, 순교자, 하나님의 예언자 요셉스미스,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7년 26페이지) 이웃 사람들이 그의 생활 방식과 생각의 많은 부분 을 이상하게 생각했으므로 그는 자기 또래

의 친구들에게서 배척당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법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으며 끊임 없이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단계는 사람이 인생에서 건설적이고 가치있는 변화를 가져 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갈 때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한 계 단씩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교회정사, 6:306-7) 우리는 자기 생활에서 의미 깊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그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예언자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 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네 몸에 지니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 (앨 5:14)

우리의 인생에서 변화를 귀중한 도구로 만드는 데 밭아야 할 중요한 비가지 단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감동은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 준 경험담을 나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의 와드에는 올바른 방법대로 살지 않는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자매에게 권고하자 그녀는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그 감동이 그녀를 현재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생활 방법"이 감동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지 않으며 더우기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똑같은 상태로 머무는 사치보다 더 큰 힘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실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어디에서, 왜 변화시킬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

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르쳐 줌으로써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지식을 갖게 되면 진보하기 위한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변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에머슨(1803-1882, 영국 수필가, 시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잡니다. 그가 압박받고 고통을 당하여 패하면 생각해야 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며…중용과 참된 기술을 배웁니다.” (“보상” 칼트 월도 에머슨의 완전한 글, 뉴욕, 윌리엄 에이치 와이즈 앤 출판사, 1929년 161페이지)

우리의 변화는 계획된 것이어야 하며 질서 정연해야 합니다. 변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면 비록 우리 생활에서 몇 가지 근본적인 것을 변경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완전을 향하여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변화하기 위한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중국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결단력이 있다. 약한 사람은 바램이 있을 따름이다.” 우리에게 발전할 결단력이 없으면 변화하기 위한 다른 모든 단계는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패배자와 승리자를 구분합니다.

조금 전에 나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예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첫번째 소년의 인생은 부랑자를 비롯해서 무장 강도와 살인으로 인해 계속된 체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변화할 필요성을 결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살인을 범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사람은 토마스 에이 에디슨의 유년시절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극복하기에는 너무 힘들게 보였으나 그는 변화하여 인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정신 박약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역사가 가장 위대한 발명가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헌신이 전세계를 더 훌륭하게 바꿨습니다.

세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북서 지방에 사는 어느 젊은이와 그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805년 추운 겨울날 버몬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기보다 더 위대한 권능에 따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어렵게 시작해서 변화를 찾았고 말일의 경륜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기도와 사업은 말일에 가장 크고 깊은 변화를 지구에 가져 왔습니다.

브루스 바아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하면 인생을 통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늙었거나 너무 어리거나 너무 중년에 들어섰기 때문에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권리와 목표와 변화의 기쁨을 궁극적으로 포기할 때 정말로 노년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고정된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우리의 나이가 육십이든 칠십이든 오십이든 열다섯이든 간에 끼여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열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의미깊은 변화를 통하여 끼여이 자신을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는 시기가 결코 없도록 하십시오.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와드나 스테이크 단위에서 지도자의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에게 편리하고 마음이 편안하기에는 너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저 사람을 그대로 두지 못하나?” “왜 우리는 그녀를 받아들여야 하나?” “왜 우리 와드를 분리해야 하나?” 우리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필요한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 변화는 드뭅니다. “나는 그 프로



그럼에서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왜 그 사람이 그런 부름을 받았는지 물렸지만 지금은 그것이 당시에 꼭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회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언제나 과도기가 있으며 이 과도기에는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일을 배우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영구 불변한 우리의 생활 철학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교회 정책의 변경은 더욱더 혼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책임을 절대로 말지 않기를 바라는 뜻을 표현할 때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 우리에게 바로 그 부름의 축복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많은 병으로 고생하던 바울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

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그리스도)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평신도가 지도자를 맡고 교회이기 때문에 변화의 축복이 자주 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재능으로써 그런 변화에 대처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름과 가중된 책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친 변화에 대처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에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생으로 변화하는 것은 의미 깊은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더 나아지도록 전전하고 질서정연한 변화를 찾고 받아들이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영광은 제니 부대관장  
제1모과



스펜서 더블류 김부대관장



메리온 제롬니 부대관장  
제2모과



에드워드 레프코 벨은



마코이 피터슨



리그렛드 러처스



워워드 더블류 윌버



고든 미 펄러



포머스 에스 몬슨





로버트 딘 리처드



토머스 웨이츠 헤이스



윌리엄 웨이 화이트



윌리엄 웨이 화이트



윌리엄 웨이 화이트



윌리엄 웨이 화이트



윌리엄 웨이 화이트



데이비드 엠 스미스



로버트 엠 스미스



로버트 엠 스미스



로버트 엠 스미스



로버트 엠 스미스



로버트 엠 스미스



로버트 엠 스미스



로버트 엠 스미스



로버트 엠 스미스



로버트 엠 스미스



로버트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찰스 엠 스미스

### 철심인 제일 정원회

### 관리감독단

### 철심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2명 승복자

테디 이 브라운 제이치 고슬링드 이셔

에이치 버크퍼더는 제1모과

빈디셀 드라울 관리자

제이 리처드 플러크 제2모과

앤드루 지 스티스 조셉 맥미슨 제임스 에이치 배넷 제임스 에이 리얼모어

스티븐 윌 더블유 신 헨리 디 배일터, 존 에이치 만빙버그

에스 웨이스 링

# 경전 읽기

“경전은 매일 일정한 양을 읽는 것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경전을 읽고 연구하라는 지도자의 충고를 따를 때, 여러 가지 유익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공부입니다. 구약 및 신약으로 알려져 있는 경전의 일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적 논문, 철학적 이론, 역사적 기록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우리가 이 경전과 기타 경전의 참된 목적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책이 참으로 기본적인 종교 문학서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에 관한 기본적인 말씀과 그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은 자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믿으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외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전에는 하나님께서 몸소 계시하신 기록이 들어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해시켜 주는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유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바쁜 인간에게는 항상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가치도 없는 조잡스러운 것을 읽거나 보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독서하는 습관은 매우 다양합니다. 책을 빨리 읽는 사람과 느리게 읽는 사람도 있고 시간가는 대로 틈틈이 조금씩 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 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단번에 읽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려면 그냥 읽어 보거나 정독하는 것으로 끝나기 보다는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루에 상당히 많은 양을 읽고 며칠씩 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됩니다. 매일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규칙적인 시간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경전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열려면 기도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추구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눅 11:9)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받아 들이고자 준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해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연구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으로는 한 밤의 휴식으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씻어버린 아침 시간을 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의 일을 끝내고 걱정거리를 한 옆으로 치워 놓은 한 밤의 조용한 시간에



읽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 데, 그렇게 하여 경건과 대화하여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 일을 마치게 됩니다.

하루 중 어떤 시간을 정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읽을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이겠으나 다만, 매일 30분만 규칙적으로 시간을 낸다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주제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전을 읽는 동안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연구하기를 즐기기도 하지만, 여럿이 함께 연구하면 더 이룰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을 곁에 불러 모으고, 함께 경전을 한 페이지씩 읽어 나가며,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와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한다면, 가족이 모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흔히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기본적인 종교 문학을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치는 대로 마구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매일 또는 매주 일정한 양의 페이지나 몇 장을 계획하여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읽는 사람이 즐겁게 읽어 나가기만 한다면 재미있게 잘 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다지 의미있는 연구를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장수를 정해서 읽기 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경전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때로는 단 한 구절을 연구하는 데 그 시간을 소비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과 가르침은 쉽게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야기는 단순히 전개되어 갑니다. 구세주는 별로 단어를 많이 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씀의 뜻이 너무 분명

하므로, 함께 모이게 되면 그것은 독자들에게 명백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몇 마디의 단순한 낱말에 표현된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데 여러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구세주의 생애에는 마태와 마가라 누가와 자기 말한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마가가 단 두 절과 뒤이어 베 마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영역 성경에는 이 말이 들어 있음—역자 주—]) 회당장중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마가복음 5:22-24) 이 이야기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초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짧습니다. 그림을 보듯이 분명하며 어린 아이라도 무리없이 되풀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병을 앓는 어린 소녀와 예수께서 그녀에게 손을 얹어 주셨다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본다는 말은 경전에서 다양한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작스런 일 또는 기대하지 않던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와 함께 한 일행이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 가시자, 가버나움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라(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회당장중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당시 규모가 큰 회당은 여러 장로들이 한 사람의 회당장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면서 우러러 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회당장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마가는 “야이로라 하는 이”라는 말로 그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예는 경전의 어디를 보아도 이 사람이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가 예수와 잠시 만남으로 해서 그에 대한 기억은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영향을 미쳐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 와 새롭고 더욱 훌륭한 생활로 이끌지 않았다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기억속에 살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회당장이라는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즉, 병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는 선생의 발아래 엎드린다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학식있고 지체가 높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보았으나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장벽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말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필요로 인해서 인간이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올 때 흔히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내 어린 딸이”라고 말하는 야이로의 딸리는 목소리는 구세주 앞에서 무릎꿇은 이 지체높은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영혼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어 신앙에 대한 큰 인식이 뒤 따릅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것은 비통에 젖은 아버지의 신앙에서 나온 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는 것은 무엇이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부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들은 곧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족에게 손을 얹으시면, 가족은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라는 말이 따릅니다. 이 사건이 그 날의 일정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구세주는 다시 바닷물을 건너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닷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예수는 한 아버지의 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 청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야이로에게 내일 쯤 그의 딸을 보아 주겠노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이에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너무 바빠서 이웃 사람의 요구 사항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의 첫 부분은 읽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는 어린 소녀의 손을 잡아 사건에서 살려 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는 구세주에게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을 새롭고 더 나은 생활로 들어 올리시고 살려 내십니다. 나는 경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지식을 알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신, 구약으로 된 성경외에도, 주께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경전으로, 그리스도의 다른 증인이 되는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연구하고 의롭게 주님을 추구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외설물—무서운 전염병

“분명히 부도덕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떠합니까? 보고, 들으면,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형** 제 자매 여러분, 이번 주에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 근교의 산야를 아름답게 뒤덮은 아람드리 느릅 나무들을 나무꾼들이 큰 도끼와 동력톱으로 잘라낸다고 합니다.

그 중 웅장한 나무는 수령이 100년도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경탄하며, 시원한 그늘 밑에서 들놀이할 하고, 수백 세대에 이르는 동안 새들이 짹짹 뻗은 가지 사이로 날아다니며 즐겁게 노래했겠습니까!

원로격이 되는 느릅 나무들이 이제 죽어갑니다. 그것들이 죽게 된 것은 너무 늦어서, 가을 때문에, 아니면 가끔 그 지역에 불어대는 강한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은 겉모양은 멀쩡한데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범인은 치명적인 화란 느릅나무 병을 옮겨주는 느릅나무 좀벌레입니다. 이 병충해는 유럽과 미국 전역에 걸쳐 광대한 느릅나무 숲을 좀먹어 들어갔습니다. 느릅나무가 즐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수단

을 동원하여 구제해 보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란 느릅나무 병은 대개 맨 위에 있는 어린 잎이 시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밑에 있는 가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여름이 되면 대부분이 잎사귀가 노랗게 말라 떨어져 버립니다. 온 숲이 좀먹어 들어갑니다. 느릅나무 좀벌레가 죽음의 종소리를 울린 것입니다.

느릅나무는 인간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작은 씨에서 시작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장하여 성숙해 갑니다. 하늘의 밝은 햇빛과 땅의 많은 축복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로 둘러싸인 개인적인 숲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돌연히 이 세대에 들어서서 흉칙하고 잔혹한 적 죽 외설물이 우리 앞에 흉악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느릅나무 좀벌레와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무서운 좀벌레를 옮겨 줍니다. 나는 그것을 “부도덕의 허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음란한 이야기나 그런 따위의 외설물에 대하여 웃어가며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스럽고 귀한 모든 것을 더럽히며 파괴시키는 일에 오염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외설물이라고 부르는 좀벌레는 치명적인 일을 하여,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면역을 떨어뜨리며, 항상해 나가려는 의도를 막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 부도덕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떠합니까? 보고, 들으면 그렇게 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전염성이 있는 의설물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마피아단에 의해서 제작되며 전염성과 중독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연방 수사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의설물에 소비한 돈은 한 해 동안 2억 4천만 불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또한 그처럼 악한 목적으로 소비된 돈이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 기관도 있습니다. 의설물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은 그것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며 경찰력을 다른 면에서 더욱 이용할 수 있다는 대중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각국의 법령이나 지방법도 그것에 손을 미치지 못하며, 처벌은 경미하고, 많은 벌금을 부과시켜도 그들의 모험에는 필선 못미칩니다. 미연방 수사국은 의설물이 성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기관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서부의 어느 대도시에서 한 경찰관은 강간이나 청소년 성범죄로 체포된 사람의 72퍼센트가 의설물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었다.”

출판업자나 인쇄업자는 매일 의설물을 수백만 장씩 찍어 내어 폭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쓰는 경비는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최고의 질의 종이를 사용하여 원색으로 만들어 냅니다. 영화 제작자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연예인도 그런 방면으로 몰들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절제는 사라졌습니다. 소위 현실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기있는 한 텔레비전 배우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목인의 한계가 이제 극에 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출연한 필름은 추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대본을 읽을 때부터 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는 그것을 금요일 밤 특별 시사회에서 방영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환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배우도 있습니다. “출판업자와 마찬가지로 영화 제작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

중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도가 “질다” “열다”하는 말로 굳이 그 의설물의 차이를 나타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들의 해악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론”의 저자 알렉산더 포프의 말은 얼마나 적절한 말입니까?

악덕은 무서운 모습을 지닌 괴물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데 자꾸 눈에 뜨인다.  
그러나 자꾸 대하다 보면,  
그 모습에 익숙 해져서,  
처음에는 참아 주다가,  
다음에는 연민의 정을 느끼고,  
결국은 안아 주고 만다.

(존 바렛, 주요 인용물 모음 보스턴, 리틀 브라운사, 1968년 409페이지)

의설물이라는 좀벌레가 계속해서 번져 나가게 되면 이웃에까지 옮겨가 인간 생활을 오염시킵니다. 어떤 것은 음험한 접촉으로 심한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잠시 동안 저와 함께 미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길이 남아 있는 노래에 나오는 장소인 뉴욕시의 유명한 브로드웨이 45번가로 가 봅시다. 그곳에는 도시의 복잡한 교통망에 둘러싸인 조그만 섬위에 제 1차 세계 대전 69천투부대의 군목으로 유명한 프란시스피 더피신부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는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부상자를 치료해 주기 위한 약품 상자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영적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훌륭한 동상을 보고 있노라면, “저 너머”, “백난로를 태우며”, “브로드웨이에 나의 안부를” 등의 흘러간 노래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노래를 잘 알며 브로드웨이가 45번가에 애정을 간직하고 있던 당시의

옛 전사들이 이 거리로 되돌아 와 더피 신부 동상 옆에 우리와 함께 서 있다면, 그들과 우리의 눈에 어떤 광경이 비치겠습니까. 그곳에는 매춘부와 외설물을 파는 상점으로 꽉 차 있으며 음란한 영화와 그것을 선전하는 배운 사인이 명멸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피 더피 신부의 동상은 죄와 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설물이라는 쯤벌레가 이 지역을 망쳐 놓았습니다. 쯤벌레는 여러분의 도시와 이웃과 가족에 사정없이 잠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칼튼 대학의 로렌스 엠 존드 명예 대학장은 불길한 경고를 들려 준 일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원자 폭탄이나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 문명 사회가 쇠퇴할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21개 문명국중에서 19개국은 외부 세력에 정복당해 서가 아니라, 내부의 요인으로 인해 멸망된 것이라고 아놀드 토인비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현대 사회도 그렇게 멸망해 갈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 현대 문명 사회가 멸망될 때는 나팔 소리도 없고 깃발도 휘날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소리없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암암리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달에 나는 새로 나온 영화 평을 읽었습니다. 주연 여배우는 해설자에게 자기는 처음에는 대본과 자신이 맡게 되는 역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담당할 역은 14세나 소년의 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역은 절대로 맡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어머니가 모든 장면마다 참석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허락했습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코브라 맥에 잡힌다면, 어머니가 “바라보고서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비소나 스트리키닌(신경 흥분제)을 먹어 보게 하겠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래 전 옛날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메아리쳐 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누가복음 13 : 34-35)

오늘 날은 고대의 소들과 고모라가 다시 태어난 듯합니다. 거의 들추어 보지도 않는 먼지가 쌓인 성경의 한 페이지에서 나는 이와 같이 부도덕이 허용되고 악덕이 자행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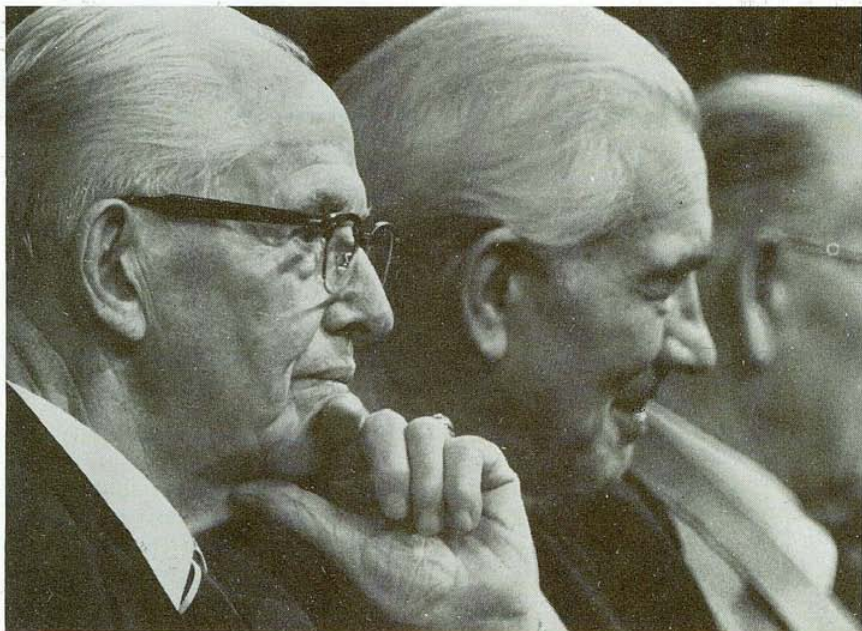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을 외설물이라는 쯤벌레에 치명적인 해를 받지 않도록 성벽을 쌓을 책임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투쟁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 41 : 10)는 불변의 진리를 나타내 줍니다. 악에 설득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미세한 음성에 의해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틀림없이 길을 잃지 않고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훌륭한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재미있는 생활, 고도로 세련된 생활, 인기 있는 생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아들, 딸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셋째, 부도덕을

허용하는 모든 싸움을 이겨 나가라는 것입니다. 악을 전염시키는 외설물이라는 쯤벌레에 맞서려면, 우리는 초기 미국의 유명한 기수에서 따온 "나를 밟지 말라."는 것을 전쟁의 기치로 삼아야 합니다. (존 바렛, 주요 인용문, 모음 1090페이지)

여호수아의 열렬한 선언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너희 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 : 15) 우리의 마음을 순결케 하고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음성을 높이고, 행동을 보십시오.

그러면 외설물이라는 쯤벌레가 아주 명치적인 경로에서 중지당할 것입니다. 부도덕의 허용도 어떤 강한 힘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도 안전히 요단강을 건너 약속된 땅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



# “많은 환란이 있고 난 연후에 축복이 임할 것임”

“슬픔과 고통, 역경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매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13년전, 일본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한 젊은 군인의 아내가 내게 전화를 걸어 나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공군 파일럿인 그녀의 남편은 며칠 전에 월남전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곧 내 사무실로 커다란 사진을 꺼안고 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그녀는 헬멧을 손에 들고 젯트 전투기 옆에 자랑스럽게 서있는 멋있는 파일럿인 남편의 사진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 자기가 너무나 남편을 사랑하였으며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약 2년전에 개종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다닐 때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 그가 복음을 소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침례를 받았으며, 그들은 신전에서 결혼하여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한 생활은 참으로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이 흠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기쁨과 기대를 품고 미래를 내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빨리,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끝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아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녀에게 어떤 위로를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란중에서도 충실한 자는 저의 상이 천국에서 더욱 크리라.

“너희는 이 후에 있을 일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란이 있는 뒤에 올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느니라 많은 환란이 있고 난 연후에 축복이 임할 것임이니.”(교리와 성약 58 : 2-4)

교회의 초기 회원과 지도자들은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과 신앙때문에 죽을때까지 바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개척자의 길을 따라 끝없이 여행하는 동안,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사망하여 길가에 묻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죽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단 연고라.

“내 안에서 죽지 아니한 자에게는 화 있을 진저,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쓴 연고니라.

“너희는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 그리하여 저들이 죽어 저들을 잃게 되었을 때 눈물흘리며 특히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슬퍼하라.”(교리와 성약 42

: 46-47, 45) 최근에 나는 태평양 한 가운데 있는 통가의 바바우섬에서 한 충실한 교회 회원의 장례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형제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교회 회원은 물론이며 비회원도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장례 행렬이 그의 집을 떠나 무덤으로 향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마침내 잔잔한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서고 감독과 참석자들은 가족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슬픔을 참고, 더러는 울기도 하였으나 그 미망인은 사랑하던 남편 곁에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부활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후에 그녀와 남편은 뉴질랜드 신전에까지 여행하여 현세와 영원을 위해 함께 인봉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크나큰 재능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서는 평화로운 분위기와 복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넘쳤습니다.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역경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알려진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 주시어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 주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기도의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킴블 대관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의 밑바닥에 처한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의 회오리 속에서 서도 오히려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 주는 힘을 얻게 됩니다.”(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7페이지)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1965년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한 폭풍우나 심한 안개 속에서 신전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은 내적으로 폭풍우에 시달리고 개인적인 슬픔과 고통스런 갈등 속에서 더욱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65년 4월호, 16페이지) 여러분께 다른 경험을 말씀드려 볼까요? 수년 전 일본의 한 선교 지역에서 한 스테이크를 조직할 때였습니다. 접견하는 자리에서 지방부장은 자기는 회사에서 가장 큰 지점의 지점장으로 승진되기로 내정되었으므로 곧 그 도시로 이사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이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만난 총관리 역원은 그에게 상관을 만나 승진을 재고 하여 그가 교회에서 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일할 수 있도록 그 도시에 그대로 있게 할 수 없는지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부장은 상관에게 말해 보았지만, 그가 책임지게 되어있는 지점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인사 이동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테이크 조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지명을 연기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설명했지만, 총관리 역원은 지방부장에게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상관을 찾아가 그렇게 청해본 뒤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밤 늦게 나는 그 지방부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장은 그 도시에 그대로 남아 있게 해 주고 승진을 고려해 달라는 그의 요청에 상당히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그에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본 후 5분 후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나머지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나에게 충고를 구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주님은 일본에 시온의 스테이크를 조직하기 위해 사도 한 분을 보내셨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답을 구했다해도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는 나에게 감사하고,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는 선교본부에 와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총관리 역원이 회사내에서의 그의 지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지방부장은 그의 승진은 취소되었으며 그는 회사에서 어떻게 결정하든 그것에 따르겠노라고 했습니다.

총관리 역원은 떠나기에 앞서 이 사람을 축복하며 그가 직장에서 얼마간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 나가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보다는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므로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부름 받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해 안가서, 지금까지 스테이크 부장의 일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되어, 주님의 사도가 한 약속이 이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의 시련과 역경을 충실히 이겨 나갈 때 그 보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언자 요셉이 받은 약속을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네 불행, 네 끈고는 잠 시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교성 121 : 7-8)

울슨 에프 휘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우리가 겪는 시련은 조금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며, 인내와 신앙과 용기와 겸손의 자질을 키워줍니다. 특히 우리가 끈기 있게 참아 나갈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인내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인품과 영을 키워주며, 마음을 정결케 하고, 더욱 부드럽고 자애롭게 하여, 더욱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합니다. 슬픔과 고통, 역경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깨우침을 받게 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와 좀더 닮아가게 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킵블, 기적을 낳는 신앙, 솔트레이크시티 메저릿 출판사, 1972년 98페이지)

킵블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제심을 가르칩니다. 구세주의 고난도 그의 교육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요”(히브리서 5 : 8-9) (기적을 낳는 신앙, 98페이지)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디어 내도록 합시다. 주께서 의로운 심판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아멘. \*



# 현세와 영생을 위한 행복

“우리는 현재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리차드 스코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여러분은 훌륭한 그랜드 피아노를 쪼개서 장작을 만들거나 값비싼 휴대용 제산기를 사용하여 책상 서랍을 비집어 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귀중한 물건을 어처구니없이 사용하여 망쳐버리는 일은 생각할 수 없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마음과, 육신과 영적인 귀중한 자원을 처참할 정도로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아무런 만족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행복을 찾고 친구를 얻고자 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해 실망에 빠져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는 회망과 확신의 메시지를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원리에 입각한 것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바를 가져다 줄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언자가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

기 위함이라.”(나이 2 : 25)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현세와 영생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충고를 들려주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들은 명확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와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도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게 될 줄로 아시고, 행복에 대한 참된 계획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가 세상을 나타낸다고 해 봅시다. 이 안에는 두 개의 자석이 들어 있는 데, 하나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를 나타냅니다. 자석에서는 강한 영향력이 발산되는 데, 우리는 그것을 보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허위의 차이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또 하나의 자석을 사용한다면, 진리를 나타내는 자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자석은 서로 잡아당길 것입니다. 서로 밀어내는 것을 보고서 허위를 나타내는 자석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러한 신성한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혹의 손길 뒤에는 음흉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에게 관심을 쏟도록 계획합니다. 그는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몰두하게 하여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고, 영원히 얻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 자석 즉 탐지기에 장벽을 놓는다면, 나는 진리를 나타내는 자석과 허위를

나타내는 자식의 영향력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혹에 지거나, 무관심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장벽을 쌓고 그 효율성을 약화시켜, 결국은 진리와 허위를 구별해 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생명을 바치시어 우리 각자가 회개의 기적을 통해서 죄의 장벽을 없애고 양심을 되찾아 그릇된 것에서 참된 것을 다시 알아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신의 은사를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보다도 더 민감하고 강한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는 순수한 진리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의 권고와 장애물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신의 은사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 귀중한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여 그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성 4:7) 여러분이 참된 마음으로 구한다면, 여러분은 큰 진리로 인도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화의 메시지와 같은 훌륭한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고 참된 교회를 찾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곧 그 교회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칙례받고 회원이 될 수 있고, 안수례에 의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만사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명하노니,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하시는 바를 그대로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행하며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라. 나는 너희가 구원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기 바라노라. 그리하여 악령이나 악마의 교리나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말미암아 괴임을 받지 않게 하라.”(교리와 성약 46:7)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의 지배를 받게 하기 위해 이 지상에 세워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공을 위한 완전한 계획 즉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걸음으로 나타난 능력만으로 성공의 잠재력을 측정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충분히 이겨 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드리는 기도에 성신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며, 우리 생활에 영감과 지시를 내려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생활해 나가 좀더 유리한 고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지표를 좀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 저 멀리서도 생의 지표를 바라볼 수 있어 좀더 효과적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자제심과 절제 그리고 기꺼이 변화를 받아 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더 높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계되는 영원한 목표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영원한 성장을 막는 영적인 독소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갈 길을 분명히 보기에 앞서 먼저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을 수없이 시정하고 스스로 시험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전에는 알지 못하는 큰 지식과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행복은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중심이 됩니다. 그 주요한 요소는 신실한 신앙, 참된 회개와 완전한 순종과 헌신적인 봉사로서 이루어 집니다.

나는 자석을 예로들어 진리를 나타내는 영향력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도 신앙과 기도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 곧 물몬을 찾아 회복된 진리에 대하여 물어 보십시오. 물몬경을 구하여 읽고, 생각해 보고, 그 원리대로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와 영생의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지상에 완전한 진리를 회복하셨음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그의 신권 곧 권능을 회복하시어 그의 이름으로 필요한 구원의 의식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판장은 그의 예언자입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서 충만한 진리와 신권의 권능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실천해야 할 계명

“주님은 그와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약점과 부족함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합니다.”



오 레슬리 스토운 장로  
칠십일 제일 정권회

우리가 구세주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주께서 세상에 내려 주신 여러 훌륭한 것을 기억할 때 큰 영감을 받습니다. 그는 역사가 기록되기 오래 전에 이미 사셨습니다. 그는 천국 회회에 참석하여 그의 아버지를 도와 하늘을 만들고, 땅을 창조하며, “우리가……인간을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청에 따라 인간을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강압으로 이끌려는 사탄의 계획에 반대하여, 주님은 아버지의 자유의지에 관한 계획을 지지하여,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절정의 시기에 약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아가 가르치며 선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고, 적까지도 사랑하라

는 새로운 생활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며 모든 사람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개인이나 국가가 이 규범에 따라 생활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사람들이, “좋아, 용서는 해주겠지만, 그것을 잊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데,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리와 성약 64편 8-1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고 큰 죄가 저에게 머물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39절에는 그리스도가 당시의 여러 율법사와 만났던 기사가 써여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인간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늘 왕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둘째 계명을 주셨을 때, 첫째 계명과 같이 두 가지를 되풀이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 40)

주님은 그 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어 다른 모든 율법과 계명이 그 위에 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 봅시다. 인간이 들찌 계명에 따르지 않는다면 크고 찢겨되는 계명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분명해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찌니라.”(요한일서 4:20)

니파이삼서 11장 29-30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버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고 분노를 돌구어 서로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의 가르침이라.”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 살펴보면,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있음이 누구에게나 분명해 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만심을 꺾고 이웃과 상충되는 점을 무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방금 니파이삼서에서 인용했듯이, 다툼과 분쟁은 악마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축복하고, 병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화평하는 자입니다. 그는 수 없이 많은 병자와 절름발이와 소경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신 연후에,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까지 오르셨을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빼앗은 자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까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위해 돌아가셨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는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을 이겨내어 세상 사람을 부활로 축복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육신을 받고, 지식을 얻어, 능력과 성품을 기르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곳에 와서 악을 이겨내고, 주님의 면전에 돌아가 거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참되고, 충실하며 근면하며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시험받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수 많은 축복을 생각해 보면, 물몬경에서 베냐민 왕이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생각납니다.

“또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모사야 2:22)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당히 단순한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며 또 그런 의도도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에게 약점과 부족함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과 자율성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여러가지 계안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때때로 주님의 계명중에는 이 생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거두게 됨을 낮이지나면 밤이 오는 것과 같이 명백히 알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10)

우리는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얻게 되리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맡은 일을 하지 못하여,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하지 못했으므로 주님의 합당한 종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받게 되는 많은 축복과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크신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

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중 가장 큰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4:7)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회복에 관하여 그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또한 오늘날의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이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진리와 의의 길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 지도자들을 항상 영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도자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어 막중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 “우리는 남녀노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말일성도 노인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여덟 가지 제언.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몇 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에리에서 펜실베니아주의 핏츠버그로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큰 교회의 목사와 자리를 같이 하고 앉았습니다. 그는 성직자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노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함께 모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물문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물론인 젊은이와 노인, 십대와 어린이, 부부들이 함께 예배당으로 끌려들어 가는 것을 보면, 교회에 함께 모여 누구나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일로 나는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을 애급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바로왕을 납득시켰던 재난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이 겹쳐 일어나 애급왕이 결국 항복했습니다. 메뚜기의 위협을 받고 나자, 바로왕은

모세가 여인과 어린 아이와 노인들을 남겨 놓으면 남자들은 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 10 : 3-11 참조)

그러나, 모세는 모두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출 10 : 9)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리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척자들이 132여 년 전 대이동때에 겪은 것과 같이, 모든 연령층이 함께 모험과 위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결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므로 우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삶은 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 분, 시간, 날, 주일, 달, 해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나갑니다. 어떤 연령층도 동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아기나 소년기, 청년기 혹은 노년기에 정착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어갑니다. 어쩌다가 늙어서도 계속 자라게 된다면, 흥미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사상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 : 16)

나는 내 생활을 돌이켜 볼 때마다 함께 생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에게 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큰 할머니는 내게 독특한 방식으로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정이 풍부한 나의 할머니는 손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많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축복사는 의로운 생활과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으로 청년의 생활 태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의 힘있는 음성과 간증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외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이며 지도자이신 킵블 대관장은 무한한 헌신과 정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필요한 존재이며, 모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계 경제 공황과 2차에 걸친 세계 대전의 황폐와 마차 시대로 부터 지속 2250킬로미터로 하늘을 가르며 나르는 콩고드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인물중 나손처럼 별로 언급되지 않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단 한번만 나옵니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행 21:16) 초기에 선교 여행을 할 때 오랜 제자 곧 나이는 많은 제자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이 그에게서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교회의 연로하신 회원들을 봅시다.

첫째, 구세주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주님에 대하여 좀더 자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관하여 읽어 보시고, 그를 받아 들이십시오. 친구를 사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평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금과는 다른 생활을 한 과거의 이야기를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애써 쌓아 온 일을 그대로 들려주십시오. 시간을 내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웃에게 들려 주도록 하십시오. 60년, 70년, 80년 전의 문제 해결책이 과거에 그랬던 것과 같이 오늘 날에도 역시 유효하고 도움이 될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조상을 찾으십시오. 신전의 문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열려있습니다.

많은 조상들이 그들을 위해 지상에서의 의식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가를 이용하여 틈나는대로 그들을 위하여 지상의 과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째,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없다면, 장로나 자매 선교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선교사들 만큼 걸어나다니며 전도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하기는 힘들겠지만, 비활동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복지 사업을 하고, 방문자 센터에서 봉사하거나, 마을의 지도자들과 만나고, 여러분의 모범과 판단력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서독의 스루트가르트, 멕시코의 허모실로, 펜실바니아주의 윌리엄스포드 콜로라도의 로키 포트등 어느 곳에서든 구도자들은 여러분의 응시를 듣고 여러분으로 인해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은 필요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여러 가지 좋은 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노인들은 흔히 불필요한 존재이며,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하게 의사를 표명하시어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섯째,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생활한다면, 월요일 저녁마다 친구들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외로운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밤은 그러한 것을 나누고, 경배하고 치유하는 이상적인 기회가 됩니다.

일곱째, 가능하다면, 매일 걸으십시오. 구세주께서 마련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적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생활할 것이 아니라, 생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십시오.”(노년기의 문제점, 타임, 1966년 7월 23일)

여섯째, 후회하는 것은 있어 버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까지 생활해 오면서 여러 가지 성공과 될 수만 있으면, 바꾸고 싶은 경험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연히 슬픔에 젖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구세주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속에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7:1 참조) 즐겁게 회개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나이 2:25)는 성구는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적용되는 것입니다.

버나드 버룩씨는 85회 생일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5년 8월 20일자 어 느 신문 기사) “나는 항상 나보다 15년은 더 나이가 들어야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바꾸어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하고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 여러분은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연로하신 친지들을 가까이 하여 안부를 묻고 사랑을 표시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는 어머니나 아버지, 감독, 교사, 또는 기타 어른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도록 합시다.

둘째, 우리는 함께 동반자가 되는 관계를 발전시켜 함께 일함으로써 왕국에서 더욱 훌륭하게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과 정원회 회장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은 노인 회원들에게 직책을 주어야 합니다. 총관리 직원중에 영감을 주며, 가르치며, 왕국을 추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80대와 90대의 훌륭한 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째, 우리는 보다 연로하고 현명한 분들이 하는 말씀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합

니다. 귀 기울이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조급해 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그분들의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넷째, 어른들이 사랑과 인고의 세월을 통해 우리의 필요사항을 따뜻하게 보살피 주었듯이 우리도 각박한 세파 속에서나마 그분들의 육구를 보살피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눈물을 따뜻이 어루만져 씻어 주었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 드립니다.

끝으로, 나는 우리의 장로되시는 지도자 여러분과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



# 성신의 은사

“햇빛과 물이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것처럼 성신의 은사도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나는 오늘 오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미국의 대통령인 반 부렌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대통령은 예언자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세상의 다른 교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칩제의식을 지키고 있으며, 안수례에 의해서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뒤이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사상은 성신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정사, 4:42 참조)

나는 교회 회원인 우리 모두는 권능을 갖고 있는 자로 부터 받게 되는 성신으로 인해 내게 일어났던 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햇빛과 물이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것처럼 성신의 은사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요소가 없다면 식물은 곧 죽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성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와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것은 헌신적인 교회 회원들의 생활에서 여러 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토론토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서, 캐나다의 수상은 태너 부대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를 주지 않고도 어떻게 회원들에게 그 많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회원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볼 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연단에는 총관리 역원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 분들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을 때 생계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벤슨 회장이 십이사도 회의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직후 아직 서부로 가서 성임, 성별받지 않았던 때에 내가 워싱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시 관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으며, 마침 그와 함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독님, 우리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일하면 생계비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지 만, 어느 정도 저축해 놓은 것이 없다면 전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분이 농무성 장관으로 계셨을 때 그에게 그러한 부름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만한 보수를 받게 될 것인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곳으로 달려 와 십이사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태너 부대관장님이 총관리 역원의 한 분으로 부름받았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맥케이 대관장은 우리에게 그는 캐나다의 수상이 될 위치에 있으며 캐나다에서 여러 대

기업체의 장을 지내고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맥케이 대판장이 그에게 총관리 역원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자신이 받게 될 보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는다 해도 이 분들이 한결같이 종래 해 온 기업체와 직업을 다 버렸음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들이 그와 같이 했겠습니까. 그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고 예수께서 충고하신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리 감독으로 있을 때, 나의 보좌로 일하시던 애쉬튼 감독이 사망하여, 그 후임으로 아이잭슨 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큰 보험 회사의 장으로 있었습니다. 조지 알버트스 미스 대판장이 그에게 나의 보좌로 기꺼이 일해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보험 업무란 인사 갱신에 따라 상당히 크게 좌우되므로, 잠시 동부로 돌아가 회사 경영인을 지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기업체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나는 그가 매달 지불해 온 십일조 금액이 감독단의 보좌가 되어 받는 보수와 동일한 액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보수를 받은 지 첫 6개월 동안은, 교회에 그 금액 전부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일한 적이 없으므로, 지금이야말로 나도 무언가 일을 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본다면 참으로 흥미있는 사연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10명의 직원과 여직원 2명이 일하는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 교회의 대판장은 나의 부친을 내게 보내시

어 내가 캘리포니아주로 가서 켈리웃 스테이크를 관리할 의향이 있는가 알아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경위를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60일 동안에 기업체와 훌륭한 집을 팔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사하여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고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후 내가 솔트레이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허버 제이 그랜트 장로는 친여명의 단기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당시 감독의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일곱 자녀와 기업체의 일을 외사촌 형에게 맡기고 뉴 잉글랜드 지방으로 갔습니다. 정상인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날 전 세계에 28,000명의 선교사가 자비로써 일하고 있으며, 이 교회가 조직된 이래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유일한 이유만으로 그 일에 임해 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해 왔습니다.

벤슨 회장이 얼마 전에 동부의 한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생각납니다. 그는 어떤 목사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그 목사는 “벤슨 씨, 연회가 끝난 뒤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들이 조용한 곳으로 나오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도 그대로 본따 해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벤슨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선교사 제도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세계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선교 지역

에서 일할 동안 쓰는 경비는 스스로 부담하며, 교회에서는 단지 귀환할 때의 운임만을 지불해 줍니다.”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 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를 그 지역으로 보낼 때와 그 지역에서 쓰는 경비며, 귀환한 후에 드는 경비 일체를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누구나 내보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에서 인간의 왕족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운영되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제 밤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의 신권회 대회를 열었던 그러한 모임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선 방송망으로 연결된 1,700 여 개의 다른 건물에서, 동시에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약 200,000 명에 이르는 성인 남자와 청소년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우리는 세상에 소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이제 우리에게 훌륭한 노래를 불러 주신 이 합창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 합창대는 50년을 넘게 합창을 불러 왔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이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50명이 매주 이 곳에 모여 합창곡을 연습하며 이 곳에 와 우리를 위해 노래 부릅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서 내가 선교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닌, 아름답고 새로 신축한 예배당에

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곳의 목사가 우리를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땅이 파헤쳐져 지하층이 땅 밖으로 들어나 있기에, 나는 그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나서서 곧 그런 것을 보수해 놓는답니다.”

“그렇군요, 리차드씨.”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훈련 받은 지도자들이 많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목사는 매주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댓가로 합창단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든 합창단원과 모든 워드 합창단과 보조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요일에는 십이사도 지역 대표 모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니, 대개 190명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기업가, 정치가, 각종 전문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입니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성신의 은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언자가 말씀한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성신이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예의 하나는 베드로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 중에 자기를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마 26 : 33-35 참조) 그 뒤 예수가 잡혀 가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는데, 두 명의 여자가 각각 그를 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마태복음 26 : 69) 하고 말하자 그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후 한 남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자,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닭 우는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리라.”(마 26 : 75) 베드로가 성신을 받기 전에 그러했습니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가 떠나고 보혜사가 이르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보혜사……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 : 26)

성신을 받고 난 베드로를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고 명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행 5 : 29)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수년 전에 선교부장과 함께 중남미 선교부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 있는 한 사원에 들어가 보았는 데, 그 한쪽 벽에는 초대 교회의 십자가 사도가 죽음을 당하게 된 광경을 그린 유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왕에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신을 받고 난 뒤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구세주를 부인했던 그와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도 우리 회원들에게서 찾아 보려 한다면, 그러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를 통하여 평균 하루에 한 전석 아름다운 예배당을 헌납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그 건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십일조와 헌물로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 그들이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회원이 될 때 안수례에 의하여 성신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남부 지역에 있을 때, 한 순회 목사가 아틀란타 전역을 다니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빛을 청산할 수 있는가를 강연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 : 10)라고 한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10달 동안만 십일조를 내면 빛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후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진리에 상당히 가까와 지고 있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동안 십일조를 바쳐 왔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이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 10달 동안만 축복을 받기 보다는 일생 동안 축복을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 리차드씨,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에만 의존한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도 없으며 이 위대한 교회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끝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회복에 대하여, 거룩한 신권의 회복에 대하여, 성신의 은사를 포함한 신권에 의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은사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들과 나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그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아멘. \*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여호와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스펜서 더블류 킴 배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사 방금 말씀을 마치신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가 위대한 선교사였음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리조나에서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있을 때, 리차즈 형제님이 우리 스테이크로 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훌륭한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분과 내가 아리조나주 마이애미에서 대회를 마치기 위해 내려갔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우리도 그 곳에서 저녁 시간 내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리차즈 형제님도 기억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나는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대관장단은 몇 명의 총관리 역원과 함께 뉴 멕시코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 간 일이 있는데, 비행기 고장으로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리차즈 형제는 파일럿과 스튜어디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였으며,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 분은 선교사가 28,000명이라고 언급했

지만, 현재 29,000명에 이를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리차즈형제와 그가 말씀하신대로 충실한 모든 총관리 역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는 참으로 훌륭한 대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말씀해 주신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한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회생과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멀리서 이곳까지 와 주신 여러분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직접들은 메시지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함께 부른 노래가 오래도록 울려 퍼지며, 우리의 아멘이 길이 남아 있게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 여러분의 스테이크와 와드 및 각 가정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에서 약속된 땅으로 대이동한 위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내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는 한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풀어낸 직후에 열두 사람을 약속의 땅에 파견하여 탐지하게 하고 그 곳의 생활 조건에 대하여 보고하게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무리에 끼어 있었습니다. 열두 사람은 40일 동안 임무를 수행한 뒤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화과와 석류와 커다란 포도 송이를 베어 막대기에 꿰어 들고 왔습니다.

조사 단원들은 대부분이 약속된 땅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또한 그곳의 성읍은 강건하고 “아낙 자손”인 그 주민들은 거인처럼 보였노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찰대들은 이와 반대로 메뚜기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되 다른 영을 받은 갈렙은 다른 여러 곳에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탐지한 결과를 그는 매우 다르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거리라.”(민 13 : 30)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신앙을 지닌 자들로, 그들은 함께 이스라엘인들에게 곧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수기 14 : 8-9)

그러나 소심한 이스라엘인들은 안전하게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일을 상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후 40 여 년 동안 사막의 먼지를 마시며 떠돌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젖과 꿀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속박에서 풀려난 모든 신앙없는 자들은 소멸되어 없어지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과 함께 약속된 땅에서 살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

니다.

열두 사람이 약속의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지 45년이 지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끝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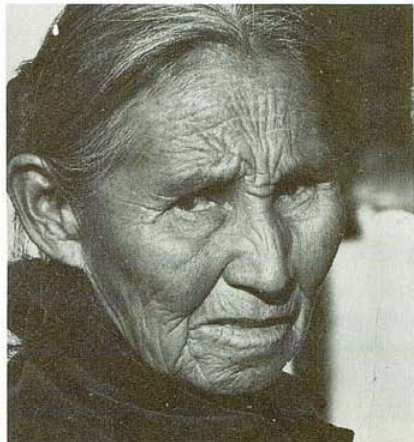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좃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 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최소한 복음의 영광 그 부름과 요구에 있어서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은즉,”(여호수아 14 : 7-8, 10-11)

갈렙의 본보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갈렙이 끝까지 투쟁하고 참되고 충실하며 자기 주민을 얻게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왕국





에 거할 곳을 약속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그 보상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끊임없이 충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갈렙의 감동적인 말씀은 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아직도 약속된 땅에서 살고 있는 거인같은 아낙인들은 정복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85세의 고령에 이른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 14 : 12)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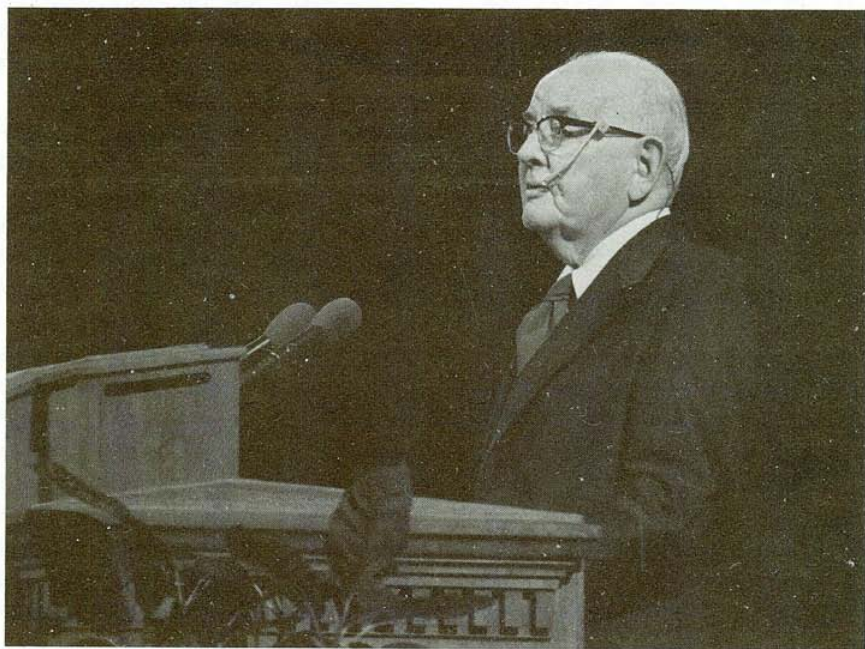
나는 이 순간 그와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큰 문제와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처지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곧 내게 이러한 문제점을 주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성스런 대업에 함께 참여하는 동료 역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결국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에게 약속된 땅

과 약속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며 이끌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 : 63) 나는 온 힘과 능력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즉 모든 신권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여성과 모든 청년 청년, 모든 소년 소녀가 그와 같은 서약을 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업은 참된 주님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주의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초석이 되십니다. 진심을 다해 여러분께 사랑과 축복과 함께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변화속의 불변성

항구 불변의 다섯 가지 경제 원칙을 따라 지키면, “어떠한 경제 여건하에서도 재정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앤 엘든 태너 부대판장  
대판장단 제 1 보좌

**제** 2차 세계 대전중에, 십이사도 평의회  
의 일원인 앨버트 이 보웬 장로는 라디오  
연설문을 모아 “변화 속의 불변성”(솔트레이크  
시티 테저렛 뉴스 출판사, 1944년)이라는  
제명으로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  
책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는 매우 시기적절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알력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전세계 사람들은 확실하고, 안정된  
메시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소란스러운 전쟁 시기와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복잡한 문  
명에 당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국제 정치  
문제 외에도,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개인적  
재정관리 문제로 인해 수십년 이래에 가장  
어려운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보웬 장로의 책 제명을 빌려, 내가  
60 여년간 일을 통해서 얻게 된 나름대로의  
경험과 확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나는 경제적 주기의 각 주기를 겪어 왔  
습니다. 청년 시절 일생의 첫걸음을 내디디

면서 나는 개인적인 디플레이션을 경험했습  
니다.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의 시기 뿐만  
아니라 국가적 및 국제적인 디플레이션도 경  
험했습니다. 나는 경제적인 주기에 이를 때  
마다 소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  
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로버트 프로스트와 같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변  
화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리로 인함이니.”

(“검은 오두막집” 로버트 프로스트 시선  
집, 에드워드 코너리 래덤 편, 1969년 58페이지)  
오늘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  
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만 한다면, 어떠한 경  
제적인 상황에서도 재정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항구적이고도 기본적  
인 원리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첫째, 이러한 경제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범위내에서 어떤 기본이 되는 견지를  
세우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손자 아이가 내게 이렇게 말  
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같이 성공하신  
분들을 뵈고 나도 내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  
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성공을 거  
둔 많은 분들을 만나 보고 어떠한 요인으로  
그 분들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지 알아 보  
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을 말씀해 주  
십시오. 할아버지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  
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  
고 있는 바 가장 위대한 성공의 공식은 주  
께서 주신 것이라고 손자에게 말 해 주었습  
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 : 33)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병영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왕국을 구할 때, 다만 물질적인 부만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내 경험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헨리 입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은 사물의 접질은 살 수 있어도, 핵심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물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을 살 수는 없으며,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사지 못한다. 친구는 구할 수 있으나, 진정한 친구는 얻지 못한다. 좋은 구해도, 심복을 얻지는 못한다. 즐거움은 얻게 되어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얻지 못한다.”(프로버스의 인생에 관한 명언 모음, 뉴욕, 프로버스사 1968년, 88페이지)

물질적인 축복도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목적으로 얻게 된다면 복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일차 세계 대전 당시 젊은 군인이었던 그는 병원에 있는 한 노인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80고령의 백만 장자로 죽음의 문턱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와 이혼한 부인이나 다섯 명의 자녀들 중 누구 하나도 병원에 와 그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부대관장은 그때 이 노인 친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으며 비극적이고도 비참한 상황을 깊이 인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노인에게 만일 다시 살게 된다면 어떻게 인생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노신사는 이런 말을 하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인생을 되돌아 보니, 재물을 모으는 데 너무나 급급하여 놓쳐 버리기는 했지만, 내가 간직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귀중한 재산은 나의 모친이 하나님에 대하여 품고 있던 단순한 신앙과 영혼의 불멸성이라고 생각하네.”

“.....자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지. 한 시인이 들려준 말보다 그것을 더 훌륭하게 대답할 수는 없겠

네” 그는 부라운 부대관장에게 가방에서 조그만 책을 꺼내 달라고 하며 “나는 이방인”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 내려 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신앙은  
나에게는 생소한 이방인  
어머니의 울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는 낯선 분  
기도가 내게 주는 위안을,  
부친이 돌아가실때 잡아주시던 영원한  
팔은 나에게는 생소한 이방인  
커다란 세계가 내게 와 나를  
부르니,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네.

내 눈이 멀어 주님의 손에서 내 손이  
빠져 나오는 줄도 몰랐네.

물거품같은 명성이 공허함을 현란한  
불 빛에 눈이 어두워 꿈꾸지도 못했네.

금덩이는 번쩍 번쩍 빛남을

내가 안 이후로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걸어서 버릴 것을  
일생동안 찾아 헤메었네

나는 열심히 싸워 많은 것을

얻고 앞섰으나,

어머니가 지녔던 그 신앙을

얻을 수는 없었네

명성과 행운과 그에 따르는

즐거움등 모든 것을 버려도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교회에서 멀리 떠난 생활을 해 온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한 간증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으나, 이 세상의 재화를 얻기 위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한 외로운 인간의 절규였습니다.

물론경에서 예언자 야곱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충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

에라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좇으리니, 험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은 자들을 살펴 구제하게 되리라”(야콥서 2:18-19)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왕국을 구하고, 일하고 계획하며 현명하게 소비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우리가 축복받은 부를 왕국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구한 면에서 인도되고 굳건한 기반위에 건설해 나간다면,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하여 부지런히 추구해 나가는, 인상적인 과업과 일생의 사업에 자신을 갖고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나는 다섯 가지의 불변적인 경제 원칙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불변성 1 : 정직한 십일조를 바친다.** 나는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주님과 교회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주님께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의 계명, 그것도 약속이 수반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땅에서 번성”(엘 50:20 참조)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데에는 물질적인 부 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육신의 건강과 활기있는 마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의 단합과 영적으로 커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는 현재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신앙과 큰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물주에 대한 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여러분도 이 계명에 충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큰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불변성 2 : 수입의 범위내에서 생활하십시오.** 나는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들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인

간이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번 돈을 조정해서 쓰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돈은 양전한 종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여유를 갖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그들의 환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가족에게 평안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한 가지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실망과 낙담을 안겨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복음의 표준,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1년, 111페이지)

우리가 벌어드리는 것보다 적게 소비하는 비결은 단순한 것입니다. 즉, 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거나 늙거나, 우리는 누구나 결국 자기 자신을, 우리의 욕망과 경제적인 욕구를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버는 것보다 적게 소비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불변성 3 :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비 욕망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현대의 경쟁적 자유 기업 체제는 한없이 많은 상품을 만들어 내어 좀더 편리하고 사치스런 것을 원하는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나는 그러한 체제나 유용한 이러한 상품을 비난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전한 판단력을 사용하여 구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회생은 영원한 자제심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세계 각국에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출생한 많은 부모와 자녀들은 오직 번영된 상태만을 보아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만족에 지배되어 왔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일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치품으로 여겨왔던 것이. 오늘날에는 필수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가 집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호화로운 가구를 들여 놓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 있으나, 그들의 부모는 수십년 동안 애쓰고 희생하여 겨우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원함으로써, 손쉬운 월부 구입 계획을 세워 곧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교회에서 제시하는 식품 비축 및 기타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수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과육과 금전 관리의 부족은 결혼 관계를 크게 긴장시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족을 부양할 만한 수입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벌어들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근원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젊은 아버지는 감독을 찾아 와 재정적인 상담을 하며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독님, 나는 기술 교육을 받아 돈도 꽤 많이 벌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었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소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훈련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이 중요한 훈련을 전적으로 학교나 대학교에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는 부채를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채에는 소비성 부채와 투자 또는 기업 부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성 부채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 사용 또는 소비할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의복이나 가정 비품, 가구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성 부채는 우리가 장차 받게 되는 수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게 되거나 긴급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빚을 갚기가 힘들게 됩니다. 월부 구입은 아주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 값에 많은 이자와 부과금이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외상 구입권으로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부채를 갚기를 주의시켜 드립니다. 돈의 여유가 없을 때는, 이자 지불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투자성 부채는 가족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투기성 투자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요행을 바라게 되면 그것에 도취되기 쉽습니다. 좀더 많이 모으려는 한없는 욕망에 의하여 많은 행운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좀더 많은 부를 얻으려는 탐욕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건강을 예측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킵블 대판장은 다음과 같이 사려깊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과거와는 비교해 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신한 것이며 이 지상에서 우리의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가족과 땅과 곳간과 부를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그들의 이상으로 섬기고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 주식, 증권, 재산, 부동산, 크레딧 카드나 가구, 자동차등 행복한 이 세상 생활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이러한 자기의 이상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와 같은 많은 자원을 우리의 가정과 정원회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성도의 빛, 1976년 6월호, 3페이지)

김볼 대관장의 말씀에 저의 간증을 덧붙이겠습니다. 가족이 당연히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따라 행복과 마음의 평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변성 4 : 예산을 세워 생활합니다. 한 친구에게 브리감 영 대학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집에 편지 쓸 때마다 항상 돈을 더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국제 전화를 걸어 딸에게 무엇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한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 아빠가 보내주신 돈을 어디다 다 썼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구나. 아빠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은 돈을 어디다 썼다는 계획이 아니라 예산 즉 돈을 쓰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부모는 타 지방에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돈이 없어 재미가 없습니다. 아들”이라는 내용의 전보를 집에 보내자, “정말 안됐음. 아버지”라고 회신을 보낸 아버지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접견한 결과 나는 예산을 세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구속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또는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지불할 금액은 구두 상자에, 영수 금액은 물레가락에, 현찰은 금전 등록기에 넣은 어느 이민해 온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업체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하고 그 아들이 물었습니

다.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애야.”하고 그 기업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배에서 내릴 때는, 입고 있던 바지 한 벌 뿐이었다. 지금은 네 누이가 미술 선생이고, 네 형은 의사이며 너는 회계사가 아니냐. 이제는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큰 기업체도 있지. 게다가 빚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합쳐 거기서 바지를 빼면, 모두 다 내 이익이 된다.”

현명한 재정 상담자는 훌륭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다른 요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식품비와 의복비와 같은 기본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



과 둘째, 주거비 셋째, 저금, 의료 보험, 생명 보험등과 같이 비상시의 필요를 위해 서 넷째, 투자 및 미래를 위한 저축 프로그램등을 위한 항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중 두 가지 요소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자면 생각지도 않던 일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중대한 사고, 질병, 출산 특히 조산등에 막중한 비용이 들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의료 보험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은 계약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하면 보험금을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건강 및 생명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사항이 충족되면, 투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검소한 생활 관리로 규칙적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보아온 바에 의하면, 먼저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은 사람으로 투자하여 성공을 거둔 예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훈련과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하는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상담자를 잘 선택하시기를 충고드립니다. 투자에 성공한 것을 기록하여 자신을 갖고 장점을 살려 나가도록 하십시오.

불변성 5: 거래에 있어서 정직한다. 정직과 성실성은 결코 유행에 뒤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교회의 지도자요 회원인 우리는 성실성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다섯 가지 원칙을 통해서, 나는 재정과 자원 관리의 참된 형태가 되는 특성을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원리가 참되며 이 교회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 신권 평의회에서의 상호부조회 역할

“여성이 사랑과 자애로움을 지니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어준 동정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여러분은 방송 “엘리자벳 때문에”라는 상호부조회 연극에 나오는 “사랑의 일”이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셨습니까. 이 노래의 가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주었습니다.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자매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성도를 돌보는 감독의 일을 더욱 강화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벤슨 회장님은 신권 평의회를 운영하여 교회 행정을 강화하는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131-135페이지)

대관장단은 이 모임에 참여하도록 부탁할 때 신권 평의회에서의 상호부조회 역할을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 특히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교회에서 상호부조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발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회에 상호부조회 역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교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평의회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는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평의회입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이 위원회와 그 집행 위원회에서 봉사합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조직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실시할 대책을 이 모임에서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전세계 상호부조회 자매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얻은 견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복지 문제에 관하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감독의 창고를 위한 운영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생산물에 붙여 있는 레테르에 충분한 지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는 자가 식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예로서 팬케이크 혼합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혼합물을 조사해 보도록 했고 팬케이크는 딱딱하고 맛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실험에서 시험자가 우유와 계란을 첨가하라는 비슷한 상품의 상표에 있는 지시 사항에 따랐습니다. 이렇게 실험해 본 결과 부드럽고 맛있는 팬케이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창고 제품의 레테르에 유의 사항과 간단한 조리법을 첨가하도록 권했습니다. 우리는 곧 새로운 레테르를 완성하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는 모든 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에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사물을 옳게 보는 견해를 알려줄 뿐 아니라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



램과 같은 복지 원리를 포함시키고 여성들에게 복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시키기 위한 상호부조회 학습 과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해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지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해력을 얻는데, 이것은 그들을 지원하는 데 상호부조회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도와 줍니다.

### 지구 평의회

지구 평의회는 주어진 지역을 위한 계획 관리자인 총관리 역원이 관리합니다. 그는 지역 대표 및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평의회에 참여합니다.

1. 집행 관리자는 승인된 상호부조회 정책, 프로그램, 자원 등에 관하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지명받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일원이 연차 대회 때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지구 평의회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그 자매는 이 역할을 수행할 때 집행 관리자의 훈련 자원이 됩니다.

3. 그 지역의 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 지구 평의회에 참석하도록 집행 관리자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매는 복지 문제와 지구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듣고 복지 종합 계획을 검토하는 데 여성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구의 상호부조회 회장들이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는 자에게 빵을 굽도록 권고하고 있다면 밀가루와 기타 일용품 예산에 나열되어 있는 재료를 거기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매는 가정에서 에너지 보존이나 기타 육체적인 건강, 직업 훈련 또는 재정적인 훈련 프로그램 수행 등과 같은 사업의 실용성을 알 것입니다. 그녀는 간호원과 기타 건강에 관계되는 사람에 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복합 지역 평의회

일반적으로 복합 지역 평의회는 메저렛 산업, 감독의 창고, 또는 말일성도 사회 복지 봉사회 등의 기구가 기능을 발휘하는 곳에 조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 지역 평의회는 집행 관리자가 인도하고 그 지역의 지역 대표 및 기타 신권 역원으로 구성됩니다.

복지 문제나 상호부조회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토론할 때 그 평의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각 지역으로부터 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 집행 관리자의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명받은 상호부조회 회장은 지역내의 다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복합 지역 평의회 모임에서 토론하도록 가능한 그들의 필요 사항, 활동 및 책임에 관한 목록을 가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역 평의회

지역 평의회에서는 여러 스테이크의 복합적인 행정 문제를 다루고 협의합니다. 지역 대표가 지역 평의회를 관리하며, 집행 관리자가 복합 지역이나 지구 평의회에서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평의회에서 복지 문제를 다룰 때 봉사하도록 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 지역 대표에게서 지명받을 수 있다. 다시 그런 지명을 통하여 메저렛 산업의 경우에는 가정 공예 프로그램의 운영 또는 미혼모 보호 또는 말일성도 사회복지 봉사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육 가정을 발견하는 것, 또는 복지 봉사 프로그램에서 일할 자원자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한 여성의 견해를 말합니다. 감독의 창고 운영 위원회의 경우에는 바느질이 최고의 수준이 되고 사용하는 옷본이 현대적이고 적절한 크기와 양을 제공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상호부조회 회장이 특히 필요합니다.

이런 직책을 맡아 봉사하도록 지명받은 상호부조회 회장들은 복지 문제에 있어서 여

성 훈련을 위한 계획을 도와야 하며, 어떤 계획이든 정말로 인간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토의 사항에 대한 제언을 받도록 지역내의 다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과 접촉하는 것은 이 여성의 책임입니다.

지역 평의회와 결정을 조치는 지역 대표와 스테이크 부장을 통하여 여러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지도자에게 전달되며 지명받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 전달하지 않습니다.

각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은 일년에 한 번씩 복지 훈련을 목적으로 또한 각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복지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연례 평가를 위하여 지역 평의회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4월에 벤슨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와 복지 사업 위원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 전원이 각자 복지 사업의 한 분야에 관련된 구체적인 임무를 갖고 회원으로 봉사합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토의 사항을 준비하여 이 평의회 토론회에서 상호부조회 견해를 적절하게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평의회에서 신진 조직과 상호부조회간의 협력은 와드와 스테이크의 성공적인 복지 사업 운영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근에 유타주 옥든의 한 스테이크에 있는 많은 가정이 홍수에 휩쓸렸을 때 이런 협동의 모범이 나타났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은 내가 그녀에게 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녀가 먼저 나에게 왔습니다."

그 자매는 스테이크 부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과 구조자들을 돕기 위하여 자매들을 동원시키고 식물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형 트럭과 스테이션 왜건 안에 즉석

으로 만든 이동 "주방" 안에 급식소를 마련하여 가정에서 만든 뜨거운 음식을 작업 현장에 공급했습니다. 홍수로 인한 물이 빠지자 남녀가 함께 더러운 벽과 마루를 청소하기 위하여 함께 일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평의회 정책 중의 어느 것을 말아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자매들은 각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접하고 있는 많은 인간적인 문제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과 안건을 제안하려면 철저한 준비의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스테이크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교회 지침서와 공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평의회에 사려깊게 참여할 책임을 맡도록 권고합니다.

#### 가족 평의회

벤슨 회장님은 모든 교회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평의회, 즉 가족 평의회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조직은 이 평의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고 거실에 양탄자를 깔기 위하여 어떻게 예산을 세우며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관한 토론을 하여 가족이 함께 납득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정규적으로 평의회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할머니의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밤에 특별한 가족 평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평의회에서는 눈물을 많이 흘렸으며 그때까지 그 할머니의 생애가 얼마나 활동으로 가득 찼었는가에 대한 애정에 넘치는 회상을 했습니다.

즉시 가족은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할머니를 초청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명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면 우리 가정의 여왕으로 모십시다. 우리는 할머니의 칠파를 바로 이 가족실에 두어서 아무 것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애정에 넘친 태도가 그 가정을 훈훈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족을 위한 모범이 되었



입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그들과 함께 사는 한 할머니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 전원의 생활을 강화했으며,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단합과 협동심과 일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여성의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을 느끼는 곳은 가정입니다. 여성이 가정에서 발전시킨 감수성은 다른 평의회에 응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협력이 모든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자신의 "풍요함"을 취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제공한 훌륭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궁핍을 구제할 때 오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며서 계신 것에 관한 설명이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풍부한 것 중에서 헌금했으며 그

때 한 가난한 과부가 연보 케에 다가왔습니다. "두 렘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마 12:42)

주님은 그녀의 헌금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케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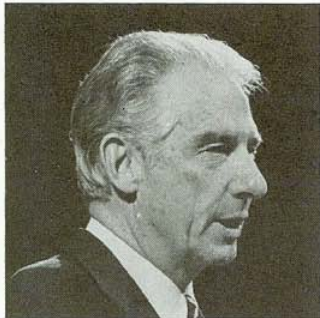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막 12:43-44)

여기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위한 길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면 우리에게 고난의 올 때 고난의 짐이 덜어질 수 있도록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이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상호부조회 회장들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사랑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교회 신권 평의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풍요한 것 중에서 자신의 모든 "생활"까지도 나누고 싶어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복지 사업의 신권 행정

“대관장단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역 교회 단위에서 자금 자족할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상** 호부조회에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여 다른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친부의 능력으로 이 위대한 사마리아인의 일을 하고 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스미스 자매님은 신권 평의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업무의 행정에 도움을 주는 신권 평의회는 지구, 지역, 스테이크, 와드 단위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평의회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단위마다 협의, 조정 및 의결 평의회가 있어 모든 교회 프로그램을 대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평의회가 합당하게 조직되어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교회의 중무 및 실무를 제대로 추진시켜 나가는 통일된 접근 방식을 이루어 개인과 가족에게 축복을 주게 됩니다.

지구 평의회는 승인된 지침과 정책을 사용하여 매년 그 지구에 대한 중요한 목표의 개요를 나타내는 계획을 검토하고 제출하여 승인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복지 사업의 신권 행

정의 일부로서 이 평의회는 중요한 복지에 관한 역할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합니다.

대관장단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역 교회 단위에서 자금 자족할 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하셨습니다. 현재와 같이 인간의 필요 사함이 변해가고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불안정한 현대와 교회가 가난한 회원을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성 52 : 40 참조)

## 종합 계획

복지 사업 종합 계획은 (1) 복음 원리와 복지 사업의 실시를 가르치는 계획을 세우며 (2) 가난하고 궁핍하며 곤경에 빠진 사람의 필요 사함을 인식하고 (3) 그런 필요 사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계획을 온전히 수행하면 감독에게 도움이 되는 창고 자원 제도의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그 지구내에 여러 상황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을 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52 : 40)

우리는 이 계획 과정에 있어서 처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진행과정에 관한 최초의 보고를 받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구에서 창고 자원 제도의 모든 요소를 다 제공하거나 똑같은 속도로 이 제도를 수행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지역적인 차이와

회원수의 차이 및 특정한 지역 및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우선 순위가 차이가 나므로 계획을 준비하는 데 다른 곳보다 더 시간이 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집행 관리자가 실무 신권 역원과 협의하여 종합 계획에 드는 속도와 범위와 질을 조절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감을 받아 여러분의 지역에 가장 필요한 활동을 계획해 나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계획한 중 단안을 내리 이 후에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침이 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훌륭하게 세우면 적당히 균형을 취하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을 수행하고 용이하게 시기에 맞추어 질서있게 기금을 모으고 회원의 시간을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역할

그러면 개인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세상적인 복지에 관련해서 개인과 가족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봅시다.

1. 육체적인 건강과 사회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2. 교육을 받아 재능을 발전시키고 재정적인 안정을 위하여 직업적인 준비를 갖춘다. 불필요하게 빚지지 않습니다.
3. 일년 동안 쓸 음식, 의류 및 가능한 곳에서는 연료까지 준비합니다.
4. 교회와 지역 사회와 궁핍한 사람을 위하여 시간과 재능과 재산, 곧 완전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바쳐 기꺼이 희생합니다.

각 개인과 가정이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원리를 이 네 분야에 적용시키면 모든 가정에 큰 안정과 마음의 화평이 깃들 것입니다.

### 감독의 봉사 의뢰서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당장 자신의 능력

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곤경을 겪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규정을 만드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독 여러분은 가난하고 궁핍하며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신성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원회, 와드, 지역 사회 및 교회 자원에서 합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의 창고가 있는 곳에 사는 여러분은 전통적으로 일용품에 대한 감독 출고증으로 식량과 의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창고 자원 제도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봉사를 받기 위한 똑같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직업 소개소, 말일성도 사회 복지 봉사 기관 및 메저렛 산업 기구가 있는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독의 봉사 의뢰서가 승인되었음을 오늘 발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새 양식은 필요한 경우 모든 스테이크에 배부될 것입니다. 이 양식에 의해서 감독은 이제 각 와드의 회원이 이 중요한 봉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회원들은 이 감독의 봉사 의뢰서를 통하여서만 이런 봉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용품에 대한 감독 출고증과 감독의 봉사 의뢰서의 이 두 양식을 사용하여 창고자원 제도의 모든 면을 지역의 감독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회원의 필요 사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일용품이나 봉사 부품이나 감독이 집행을 관리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봉사의 필요 사항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법으로 가장 궁핍한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물자와 봉사 업무를 운영하고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실무 신권 계통 역원에게 속한 것이지만 그들은 이 양식을 통하여 감독 여러분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연례 봉사 평가

복지 사업의 다양한 운영을 관리하는 책

임은 최근에 실무 신권 역원에게 일임되었습니다. 조직적인 면에서 이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은 많은 짐과 시간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무 신권 역원의 결정에 따라 회원의 필요 사항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여전히 우리는 제공하는 물건과 봉사의 이용 가능성, 질적인 면, 반응성, 적절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무 신권 지도자와 실무 담당자와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여 만족한 성과를 기하기 위해 매년 감독 평의회 회장, 스테이크 부장, 지역 대표 및 스미스 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호부조회 대표가 초청되어 창고 자원 제도를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필요 사항이 어느 정도로 충족되었으며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들은 평의회 모임과 기타 접촉을 통하여 필요 사항과 느낀 점에 관하여 계속 대화를 나누는 외에 공식적인 평가로 통일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의 전체적인 목적을 성취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 여러분이 각자의 지역 평의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 자원에 대한 가족 자원의 관계

나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최근에 나온 복지 - 다른 측면이라는 제목이 붙은 교회 영화를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창고 자원 제도의 영역을 포함하여 교회 복지 제도에 대하여 더 큰 자부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교회의 참된 복지의 힘은 창고에 저장된 식품이라든가 복지 농장의 생산 능력이나 직장을 구하는 회원들에게 직업을 찾도록 도와 주는 직업 소개 제도의 중요한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참된 힘은 교회의 각 회원과 우리 가족의 저축, 정원, 생산적인 기술, 가정 비

축, 쾌활함, 재능 및 간증에 달려 있습니다. 복지 제도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모두 좀더 불운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가족으로서 독립하고 자립하도록 일해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 단위의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 활동은 그 하나 하나가 이 크고 놀라운 복지 제도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참된 힘은 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정적인 비축이나 물자의 비축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각 가정의 얼마나 비축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유타주 만한 크기의 지역에 교회 회원



외에 4백만 명이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사나운 야생 동물이 쳐 들어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길에 나서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기 쉬우므로 벽을 쌓아 스스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이제 우리가 교회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물자를 가져와서 그 지역을 둘러가며 벽을 쌓는다면 그 벽은 길이가 1900킬로미터에 높이가 30센티미터 두께가 30센티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 30센티미터의 높이로는 안전하기를 바라는 우리 지역에 많은 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30센티미터 높이의 벽에 교회 회원들이 일년간 사용할 물품을 비축해 둔 것을 더 보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유타주 크기만한 이 지역을 둘러싼 벽에 30센티미터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센티미터를 더 쌓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쌓아 올리면 나중에 4.2미터가 될 때까지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들의 육체적인 건강과 사회적, 정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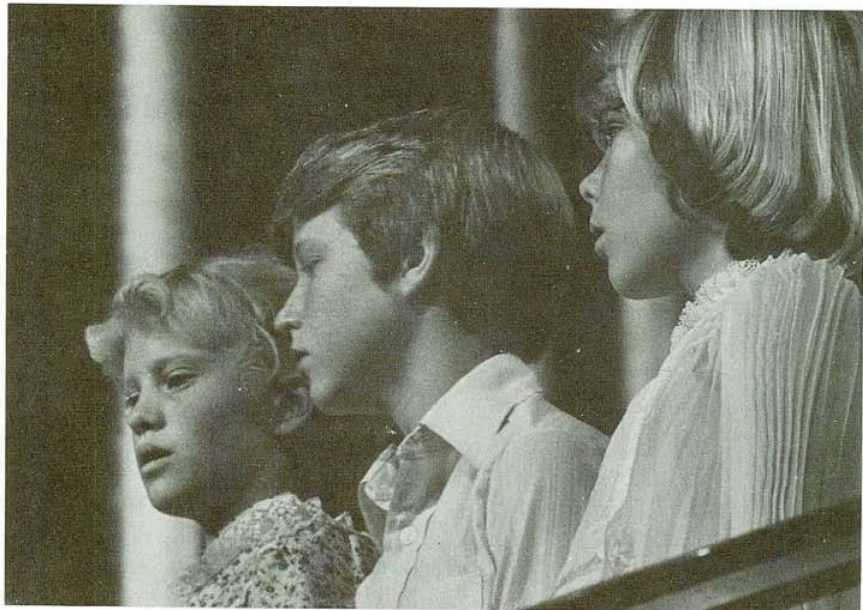
건강이 이 벽을 보강하는 절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 재정적인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직업적인 면에서 준비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될 것입니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바치는 마음은 그 벽을 더욱 굳혀 주는 접착제가 됩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은 교회 복지 사업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생산물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1년간 사용할 물품과 합쳐질 때에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업에서 각자 맡은 책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총관리 역원이 복지에 관하여 강조한 점을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꾸준히 적용해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현실적이며 영적인 방패로 보호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성 29 : 34 참조)

나는 이 일의 거룩함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개개인을 축복하여 줌

“이 큰 계획은 모두가 향상되고 영감받기 위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

오늘 아침 나는 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선택한 주제는 “개개인을 축복하여 줌”이라는 것입니다. 복지사업은 그 본질이 일상 생활에 있습니다. 킴벌 대판장님이 복지 사업을 실천의 복음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승영을 추구하도록 돕는 근원이 복음이므로 복지 사업이 이런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리 감독단은 교회의 많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창고 자원 제도의 운영을 관리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일에는 많은 활동과 책임이 수반되지만 나는 이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모두가 향상되고 영감받기 위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에게 이 프로그램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높은 목적을 지닌 정부와 기타 조직의 복지 노력에 대하여 많이 알면 알수록 스스로 돕게하여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자를 구제하는 주님의 방법이 더욱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세계의 여러 지역

에서 오신 지역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 여러분이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볼 때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전세계의 와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실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눈을 통해 감독이 도움을 받는 사람과 개인적인 접견을 행하며, 정원회 회장이 실직한 형제의 집을 방문하고, 나이 어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방문 교사가 음식을 가져다 주고,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이 젊은 레이먼인 학생에게 새로운 고등학교에서의 첫 1개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을 계속하도록 권고하는 일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경우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는 최소한 세가지 일을 행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 문제를 이해한다.
2. 각 개인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을 돕는다.
3. 주님과 개인이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권고한다.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돕는 것은 개인에게 축복이 되었으며 어떻게 교회의 복지사업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랑과 박애의 영이 궁극적으로 개인을 향상시켰는가하는 두가지 실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속하기 전에 리처드의 생활은 실업수당 식권(정부가 보조하여 음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표), 사회 사업가 접견, 보전소 미분된 의료비와 전기 및 수도 요금 청구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궁핍한 생활이었습니다. 리처드와 그의 아내는 둘 다 작은 돈이라도 마련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리처드는 많은 개인적인 결함을 가지고 기적적



으로 교회에 개종하여 들어 왔습니다. 그는 직업을 갖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독님의 도움으로 테저렛 사업에 고용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어 처음으로 그는 정규적으로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테저렛 산업에서 일하면서 리차드는 자존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는 가정의 축복사로서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테저렛 산업의 사회 복지 책임자는 감독님이 했던 것처럼 리차드와 진밀하게 일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은행 예금 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가족 예산을 세우고 그에 따랐습니다. 1년 넘게 지불하지 못했던 의사의 청구서도 지불하였습니다. 두 달 받을 미납했던 전기 요금도 단전 되기로 예정된 날에 지불하였습니다. 다른 청구서도 마감 기일내에 지불해나갔습니다.

리차드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와 방향을 느꼈습니다. 금년 7월 초에 큰 청소 아마포 사업체의 총 지배인이 테저렛 산업을 방문하였습니다. 리차드에게 취직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면접에 대하여 몹시 걱정하였습니다. 리차드와 테저렛 산업의 재할 책임자가 면접을 반복해서 연습시켰습니다. 리차드는 면접에 합격되어 고용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차드가 테저렛 산업을 떠날 때 그를 위한 오찬이 베풀어졌으며 그 오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설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란 제가 전에 받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는 직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지상 삶의 목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 혹은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테저렛 산업이 내게 베풀어 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테저렛 산업에서 일하며 느낀 그러한 행복을 찾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짐 월슨과 내게 큰 도움을 주신 감독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는 자기 자신과 그의 고용주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진급하였으며 월급도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한 영혼, 인간의 생활이 축복 받았습니다. 감독과 테저렛 산업의 재할 책임자가 행한 일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몇몇 이름과 장소는 바꾸었다.] 1978년 3월에 아이다호주에 사는 월슨 가족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월슨 형제와 자매님,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제 안부를 전하고자 몇자 적습니다.”

이 편지는 수년간 소식이 없던 월슨 부부의 레이먼인 양녀 셀리아 레드 호스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1965년 그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월슨 형제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킴블 형제가 인용하신 “이방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저들의 아버지같이 되게 하리니”(니이 10:18)라는 물문경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임이 계속되면서 월슨 감독은 더욱 감명받아 인디언 학생 배치 프로그램을 돕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1967년 가을에 16세의 셀리아 레드 호스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들과 함께 살게 됨으로 월슨 가족은 새로운 훌륭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슨 가족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셀리아를 좋아했으며 함께 특별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학생이며 매우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에 얼마간은 연락이 있었으나 시일이 지나며 차차 뜸해졌습니다.”

셀리아가 떠난 후에 월슨 가족은 여러 다른 레이먼인 젊은이를 여러 해 동안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인정하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1년이 지난 1978년에 셀리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월슨 가족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그들은 2년간이나 인디언 학생 배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셀리아의 편지를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딸 아기가 배치 프로그램에 나갈 때 옷을 사줄 수 있도록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분과 가족을 10년간이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많이 변했지요. 아이들은 모두 자랐거든요…”

“저에게는 작은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마가렛입니다. 7살인데 금년 가을에 배치 프로그램에 나갈 것입니다…그 아이에게 이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난 7년 간 집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제 남동생 데이비드를 기억하세요? 그는 이미 선교 사업을 다녀 와 브리감 영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돌아 오면 그가 마가렛에게 칩페를 줄 겁니다. 그는 지난 크리스마스 휴가 때 집에 왔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돌아와서 오빠의 딸 아이를 축복해 주었으며 우리 가족의 다른 두 사람에게 칩페를 주었습니다.

“조이, 커트, 론다, 개리, 그리고 제니는 몇살입니까? 조이와 알레르기, 커트와 아코디언, 론다와 발레 댄스, 모두들 기억하고 있으며 개리가 수영장에서 작은 개구리처럼 헤엄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니와 그녀의 붉은 머리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10대가 되었거나 그보다 나이가 더 많겠군요. 모두 어떻게 지냈습니까?”

셀리아는 도시 뿐만 아니라 보호 구역에 까지 침투한 현대 젊은이의 알코홀과 마약 사용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의 실수로부터 지켜 주

는 교회와 그 가르침의 깊은 영향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족이 더욱 친밀해지고 안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형제 자매들이 금년에 배치 프로그램에 참여 할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배치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계십니까?”

“답장에 새로운 소식을 알려 주십시오…”

“이만 줄입니까 합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모든 애쓰는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월슨 형제 자매가 셀리아에게서 온 이 사랑스러운 편지를 읽으며 월슨 형제는 12년 전에 킵블 장로가 행한 말씀을 상기하였습니다. “성공은 첫 세대에 오는 것이 아니라 두번째, 세번째, 혹은 네번째 세대에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났을 때 셀리아의 딸은 같은 가정의 같은 가족의 두번째 세대 임으로 우리집에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아가렛을 월슨 가족과 함께 살게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셀리아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한때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마아가렛을 보내어 기쁘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라고 월슨 형제가 말했습니다.

마아가렛은 1978—79년에 학기 동안 월슨 가족과 함께 살며 받은 것만큼이나 많은 것을 월슨 가족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녀는 남에게 매우 관대하였습니다.” 월슨 자매가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것 참 마음에 드는데’라고 말하면 마가렛은 그것을 그에게 주어 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 용돈을 주었고 마아가렛에게도 우리 자녀이므로 용돈을 주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는 가족으로 누군가를 돕기로 의논했습니다. 마아가렛은 많은 용돈을 모았었는데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처럼 집안 일을 돕습니다. 그

녀와 8살된 안젤라가 일주일에 하루 저녁 부엌 일을 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그밖의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월슨 형제는 마아가렛이 처음 집에 왔을 때 매우 조용하며 말도 별로 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셀리아는 월슨 가족에게 마아가렛이 기도하는 방법과 자신의 감정을 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음식 축복이나 기도를 해도 되겠느냐고 그 아이가 물어 옵니다.”라고 월슨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면 그녀가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열심히 듣습니다.”

학기말이 오자 월슨 가족은 셀리아가 아이다호로 그들을 방문하도록 주선했습니다. 셀리아가 양부모의 집에 돌아와 딸과 양부모와 함께 머물러 특별한 재회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마가렛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월슨 가족과 의논하여 금년에는

마아가렛이 집에 가족과 함께 지내며 보호 구역의 학교에 출석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과 받는 것에 관한 축복의 실례를 이 경험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감정이 1936년 10월 2일의 스테이크 부장단 특별 모임에서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이 행하신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복지 계획의 참된 장기적인 목적은 교회 회원의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그들 깊은 곳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며 이 교회 존재의 사명이고 목적이며 이유인 그 잠재적인 영의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지도자와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양시켜 주고, 고결하게 하며 축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교회를 세움: 복지 사업 선교사가 중요한 자원이 됨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기술을 지닌 부부나 미혼 여성이 바람직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평의회

다윗왕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시 137:4)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포함한 모든 시대에서 주님의 메시지는 낯선 땅에 전하여 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땅에 시온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륜의 시대 초기에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연속적인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그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올레에 올레를 더하고, 계울에 계울을 더하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교훈을 주며, 장차 임할 것을 계시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의 희망을 굳게 하시는도다” (교성 128:21)

우리는 이 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시키시며 명하신대로 세상에 나아가면 주님의 교회를 세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상의 가난, 문맹, 그리고 현 세적 및 영적인 기타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킴벌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면 우리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영원을 보게 하며 그들에게 벌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1974년 12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 이상의 일임을 압니다. 물론경 엘마서 첫장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방법을 대략 보여 주는 일련의 교훈적인 사건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던 일을 멈추면...제사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는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 부지런히 저들의 일에 종사하였으니...이같이 저들은 모두 동등한. 가운데, 사람마다 저의 힘이 미치는 대로 힘써 일하였으며,

“각각 저들이 가진 정도에 따라,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하며 병들어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저들이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었고 값진 의복은 아니나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었느니라.”(앨 1:26-27)

위의 과정에 유의하십시오.

첫째, 교리를 가르친다. (26절 참조)

둘째, 남을 자기와 동등하게 존중한다. (26절 참조)

세째, 모두 일하며,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하여 일한다. (26절 참조)

네째, 궁핍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며 서로 돕는다. (27절 참조)

다섯째,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며 자신의 필요를 돌본다. (27절 참조)

이제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이와같이 저들은 교회의 질서를 이루어...

“교회가 굳건하여지매 저들이 심히 부유하게 되어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게 되었고”(엘마서 1 : 28-29)

사람들이 물건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돕도록 배웠고 돕기 시작하였으며 궁핍한 자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자신을 헌신하자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은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과 그밖의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신권지도자는 회원이 자립하도록 돕기위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은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실제적인 기술을 가진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의해 훌륭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지 사업 선교사라고 불리웁니다. 전 세계 거의 60개 선교부에서 700명이 넘는 이런 선교사들이 현재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도록 지역 지도자를 돕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 선교사의 중요한 기능은 지역 신권 지도자가 복지의 근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돕는 일입니다. 그들은 또한 신권 지시에 따라 회원에게 어떻게 생활 방식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곳에 창고와 생산 계획이 없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지부일찌라도 기본적인 복지 원리를 가르치며 적용해야 합니다. 복지는 교회의 여섯가지 복음 원리인 사랑, 봉사, 노동, 자립, 청지기의 직분, 그리고 헌납(희생 이상의 것)의 토대위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복지의 다른 기본 원리인 금식의 법, 정원회 봉사 및 상호부조회 자선 사업, 개인 및 가족의 준비, 그리고 복지사업 위원회의 기능 등을 돕습니다.

기본적인 복지 활동에 참여 함으로 회원들은 근본적인 복음 원리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식의 법대로 살면 회원들은 사랑과 사심없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 복음 교사가 그 가족이 담을 수선하는 것을 돕거나 상호부조회 회원이 앓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 줌으로 그들은 봉사의 참의미를 알게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 준비하려고 함으로 회원은 자립과 노동을 행하게 됩니다. 지역 복지사업 위원회는 기본 복지의 면에서 교회의 역할을 조정합니다.

복지 사업 선교사는 선교부장의 지시에 따라 인적 차원으로 사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 신권 지도자에게 봉사합니다. 경험과 훈련을 사용하여 복지 사업 선교사는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자원으로써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길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차례로 회원들이 복음에 중심을 둔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복지 사업 선교사는 복지 원리를 가르치고 따를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달에 통가에서 돌아 온 엘 톰 페리 장로가 다음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통가의 복지 사업 선교사 부부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든 철판 오븐 뒤에 서 있는 두아메 시 도은 형제님과 자매님의 사진을 동봉합니다. 도은 형제는 이런 오븐을 수백 개 만들었으며 그의 아내는 자매들에게 보통 모닥불 위에서 오븐을 사용하여 빵 굽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빵 굽는 시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욕조를 만들어 주어 위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스펜서라는 이름의 또 다른 부부는 통가의 농장에서 수확을 늘리기 위해 뛰어난 일을 했습니다. 스펜서 형제는 여러 시간의 노동을 줄이는 타파친(태평양 제도산 천의 일종) 기계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기계를 발명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기계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기계가 그나라 왕의 인정을 받아 그는 왕과 개인적으로 매우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그는 왕의 귀빈으로 왕과 그 수행원과 함께 온 섬의 농경지를 여행하였습니다.

“두 부부 모두 한달 후에 돌아왔습니다.”

스펜서 형제는 그 기술이 보급되도록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도움은 우리가 엘마의 시대에 보았듯이 신권의 지시에 따라 주님의 방법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육과 영 모두를 높이고 번영케 하는 복음에 기초를 둔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복지 사업 선교사의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내용 몇가지를 간단하게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복지 사업 선교사로 적당한 사람은 정규 선교사 자격을 갖춘 부부나 독신 자매입니다.

둘째, 그들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이며 직업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가, 농부, 상담자, 숙련공, 가정 경제학 전공자, 간호원 등이 이들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의 예입니다.

셋째, 감독 혹은 스테이크 부장이 자격있는 부부나 독신 자매에게 그들의 정규 선교사 신청에 그들의 교육, 노동 경험, 취미, 혹은 재능 등을 가져야 합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쓰는 부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째, 복지 사업 선교사를 지원 받으려면 신권 지도자는 그 지역 자원으로 다룰 수 없는 회원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복지 사업 선교사에게서 받기 원하는 특별한 도움을 정하여 지역 대표나 선교부장과 의논합니다. 이 요청은 총관리 직원 집행 관리자가 승인하면 선교사파로 보내집니다. 특수한 기술을 가진 선교사가 필요에

따라 지명됩니다.

다섯째, 교회의 복지 제도는 특성을 발전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현세적이며 영적으로 고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여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누군가를 돕는 가장 성공적인 길은 그들로 하여금 남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총관리 직원 집행 관리자입니다.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그리고 지역 위원회의 실무직에서 일하는 다른 지도자를 대표하는 지역 대표와 함께 복지 사업 선교사의 일의 발전을 정기적으로 살펴 보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이 위원회 모임에서 복지 사업 선교사의 일이 복지 사업을 위한 지역 매스터 프랜과 일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획되고 통일된 계획이 교회세를 세우는 과정에서 질서와 일관성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이 가치있는 자원의 유익을 경험한 신권 지도자들의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지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날이 내가 더욱 자립해 나감으로 복지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여 그분에게 의지하여야 합니다.

“복지의 원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페루 리마 북선교부 후아초 지부 지부장 앤젤 마리아 루이즈)

지역 지도자의 열의와 신념이 선교 사업에 영향을 줍니다. 회원들이 근본적인 복지 활동의 유익을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을 남과 나누고 싶어 하게 됩니다.

최근에 타일랜드의 우본이라는 마을에서 탄이라는 회원 가족이 극복할 수 없을 듯한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업을 잃었고 가진 돈은 없었으며 자녀들은 아프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

부 땅에 지은 초라한 집에서 강제로 철거를 당하게 되었으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복지 사업 선교사를 자원으로 쓰던 신권 지도자가 이들이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모 든 지부 회원의 도움으로 조그마한 땅을 얻 어 탄 가족의 집을 헐어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지었습니다. 탄 형제는 농사를 시작하여 지금은 가정 생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복지 사업 선교사의 제언에 도움을 얻 어 지역 지도자와 회원의 힘겨운 작업, 헌신, 사랑으로 한 가족에 기적이 일어났으며 전체 지부가 큰 교훈과 경험을 얻었습니다.

장차 도움을 주시려는 부부와 독신 자매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전문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언어를 공부하십시오.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곳으로 부름을 받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력해서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일을 정리하십시오.

합당하며 봉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준비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이 큰 일에 복지 사업 선교사로 그들의 재능을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주님의 봉사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접견하고 추천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곳의 집행 관리자,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그리고 실무 지도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지 사업 선교사에게서 가지고 있는 값진 자원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회원의 영적 번영을 막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확인하여 그들이 이런 장애를 극복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누리도록 제도적으로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그의 교회를 세우려고 구할 때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없는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영원을 보여 주며 그들이 별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벌, 1974년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감독의 역할

“감독의 모든 임무 중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매리온 지 린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나의 책임은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감독의 역할을 논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대의 계시와 예언자에 의해서 주어졌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책임에 관해서 둘째 감독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관해서 세째로 교회 회원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감독을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대 경전에 계시된 감독의 역할

주님께서는 이 경전의 시대의 초기에 많은 계시에서 감독의 직분과 의무를 밝혀 놓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서 124편까지 살펴보면 23편에 걸쳐서 이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대로 이치분에 속하는 임무는 중요한 네가지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독은 성도의 헌납물을 받아 그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교

성 42 : 31-34, 71-73, 51 : 13, 72 : 2-6, 78, 82, 85 : 1 참조)

둘째, 감독은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던 그들의 세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들의 위치도 판단하는 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성 42 : 80-82, 58 : 17-18, 72 : 17 107 : 72 참조)

세째, 감독은 필요에 따라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와 주어야 합니다. (교성 38 : 35, 42 : 33-35, 39, 71, 70 : 7-8 참조)

네째, 감독은 대관장단을 통하여 주님이 지명하신 실무적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행하는 교회의 대리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교성 51 : 13-14, 84 : 112-13 107 : 68, 71-72 참조)

주님께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경험을 얻음에 따라 현재 알려진 대로 관리 감독의 책임과 지역 혹은 와드 감독의 책임을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신권의 여러 지침서에서 와드 감독에게 지명된 중요한 4가지 의무가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의 역할은 교회 관리 감독단의 특별한 의무와 헌납의 법이 중지된 때부터 효력이 없어진 의무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초기 계시에서 정의한 것과 같습니다. 감독에게는 젊은이에 대한 책임과 와드의 관리 대제사로서의 책임이 추가되었습니다. 감독의 모든 임무는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각 와드에서는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진케하는 주님의 대표자로 행동하는 신권 소유자이며 사람들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단 한 사람의 보통 판사가 있습니다. (교성 81 : 5 참조) 아마 제이 루벤 클라



크 부대관장의 다음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감독의 임무에 관해 가장 훌륭하게 요약된 것 같습니다.

“감독에게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교리와 성약에 특별히 설명하신 모든 권능과 책임이 주어졌으며 거기에 필요한 기금이 주어지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업에 필요한 권능과 기능도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권한과 돌보는 데 있어서의 분별력이 유일하게 감독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실질적인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는 아무도 그의 행위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기금으로부터 또한 와드의 도움을 와드 회원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그의 의무이며 그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높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감독은 이 의무를 피하거나 감출 수 없으며 남에게 넘기거나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미발행 기사 교회 약사부, 솔트레이크시티, 1941년 7월 9일, 3-4페이지)

이 말씀은 다음 인용문의 증거로써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2편을 보면 “감독...가지지 못한 자들에게...지급받게 할지어다”(교성 42:33)라고 되어 있으며

72편을 보면 “이미 받은 율법에 덧붙여 이 지방의 포도원에 있는 교회에 성립될 감독의 의무를 알게 하기는 주의 말씀은 참으로 이러하니라.

“그 의무는 곧 주의 창고를 지키며 이 지방의 포도원에 있는 교회의 기금을 받으며, “앞서 명령받은 대로 장로들의 보고서를 받으며 또 장로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 있

면 지불해야 할 부족액을 처리해 주며”(교성 72:9-11)라고 되어 있으며

84편을 보면 “감독...근방의 여러 지역과 모든 지부 교회를 순방하여 가난한 자를 찾아 내며 부유한 자와 교만한 자를 낮춤으로써 저들의 부족량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교성 84:112)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편을 보면 “감독의 직분은 속세에 관한 일을 모두 집행하는것이니라...진리의 영으로써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을 갖게 되므로...”(교성 107:68, 71)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과 감독을 훈련하는 스테이크 부장은 감독의 거룩한 부름에 관하여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서 지식을 갖추기 바랍니다.

교회 복지 사업 제도의 성공은 감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 교회 복지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중무선권 제통과 실무선권 제통을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도움에 관계 없이 궁극적으로 감독 여러분이 자신의 양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위하여 이 얼마나 큰 책임이며 위대한 기회입니까!

## 감독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나

선한 감독, 보살피는 감독은 이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가르쳐 온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감독은 자기 와드 회원의 일반적인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관찰, 방문 교사 및 가정 복음 교사의 보고, 접견 및 성령의 속삭임으로 이것을 알게 됩니다. 감독은 가난한 자를 찾으라는 주님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회원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돕는 과정에서 두번째 단계는 평가 단계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혹은 가족의 상황을 지적으로 연구하여야 합니다.

이 평가를 돕기 위해서 복지 사업과에서는 가족 필요사항 분석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상, 질환, 해고, 교육의 부족, 관리 소홀 혹은 육체적 및 정신적 결합 등의 여러가지 원인에서 궁핍이 올 수 있습니다. 감독은 문제의 종류나 범위에 상관없이 그 어려움의 원인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며 누가 도와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알기 위하여 감독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장은 보고를 하고 감독이 심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추천을 하여야 합니다. 감독은 보통 판사로서 모든 부대 사실을 입수하여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제, 감독은 관련되는 개인이나 가족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에민하고 친절한 방법으로 상태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자립, 가족의 도움 및 교회 책임을 포함하여 교회 복지 원조의 근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감독은 알맞는 방법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척이 도움을 주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침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감독은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는 현실적인 도움으로 주어지는 교회 자원의 본질과 범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금식 헌금에서 나오는 현금, 창고에서 나오는 음식, 의류 등과 메저렛 산업에서 나오는 불품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 제도나 말일성도 사회 사업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감독은 이들 불품과 봉사를 공식적으로 인가하기 위하여 감독의 출고증에 서명하게 됩니다. 출고증은 감독이나 상호부조회 회장이 준비합니다.

공인된 도움을 줌에 있어 감독은 보통 판사로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할 일이나 봉사를 결정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로 인하여 자신과 남들이 쓸 자원을 생산

하며 자신의 품위와 자존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감독은 받은 자가 받은 것에 대하여 일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조 프로그램이 받은 것에 대하여 일하지 않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제도가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게으른 자는 회개하여 자기의 태도를 고치지 아니할진대 교회 안에서 일할 자리가 없으리라”(교서 75:29)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기를 거절하면 감독은 그가 자세를 바꿀 때까지 도움을 중단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와 협력하여 재할 계획을 육성하고 실시함으로써 마지막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혹은 가족이 다시 자립하여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을 다루게 됩니다. 이 재할 활동은 가족을 부양하도록 새로운 직장을 얻어 주는 일 등과 같이 단기적이며 직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한 사고나 문제로 장기적인 재할 활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속한 정위원회에서 인도하여 재할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동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련의 복지 지침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실무 행정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 있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아 주며 순수한 실무적인 문제로 본다. 신권 정위원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충족할 때까지 계속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감독은 직공이나 기능공이 직업을 잃어 어려움에 있을 때 도와 주며, 신권 정위원회는 그가 직업을 얻도록 도와 주며 그가 완전히 자립하고 신권의 의무에 충실하게 되도록 돌봐 준다. 교회 복지 사업에 있어 정위원회 회원과 가족의 영적인 재할이 정위원회 기능의 기본적인 책임이다.”(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지 계획 지침서, 1952년 20페이지)

모든 감독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이 원리를 적용시켜야만 참으로 생활을 높이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자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감독의 법칙은 신권의 법칙인 친절, 박애, 사랑 그리고 의로움의 법칙입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2세 미발행기사, 교회 역사부, 1941년 7월 9일, 13페이지).

만약 감독이 복지 문제와 어려움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친절과 관용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필요한 모든 것을 참으로 기꺼이 주려 한다면 이 영이 도움을 받는 자에게 전하여져 그가 똑같은 영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받은 것이 주님의 영감 아래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들이 합당하게 받은 자가 되며 그들이 받은 것에 대하여 참으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독이 마음 속으로 필요한 것을 기꺼이 때로는 더 주려는 열의를 가질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 회원들은 기꺼이 주려는 것보다 덜 받으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이것이 참됨을 믿읍니다.

감독 여러분을 지시하는 이런 영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반복되는 질문, 누구를 도와야 하나, 얼마 만큼의 도움을 주어야 하나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도와 주어야 하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확고 부동한 법칙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동 판사로서 각 경우에 유일한 근원인 하늘의 영감으로 답을 얻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감독들에게 그들의 책임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으나 조직된 와드에서 감독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볼 똑같은 책임을 지부장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지부장은 이 프로그램

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축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감독과 지부장을 돕는 교회 회원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아 들이는데 있어서 감독이 그런 일을 행하도록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주님과 성약을 맺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이 방법에는 금식 헌금(후하게 내야 합니다), 농장 노동, 자원 봉사, 테저벳 산업, 복지 및 그 밖의 헌신이 포함됩니다. 지도자와 회원,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충분한 시현을 받아 배가 찬 경륜의 시대에 시은 건설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복지 계획의 원리와 실체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하여 교리와 성약 82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은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할 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은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거니와 이 서약으로 너희는 책임이 있게 되나니, 그리하면 주의 율법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보라, 너희 유익을 위하여 내 앞에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자로 하여금 자기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이 교단을 너희와 너희 후계자에게 주는 영원한 제도로 정하여 놓았느니라.”(교성 82 : 14-20)

나는 우리가 이 완성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모나 교사나 회원을 위해 이 도표에는 성인 및 청소년 교과 과정에 관련된 1979년도 반연차 대회 말씀이 나와 있다. 대부분의 공과는 말일의 예언자들의 중요한 가르침을 참조함으로써 보다 알찬 공과가 될 수 있다.

## 멜기세덱 신권반 개인 학습 지도서

### 과 총관리 역원

- 1 마빈 제이 애쉬튼
- 3 에이 디오도어 터틀
- 4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 6 엘 톰 페리(신권회)
- 9 엘 엘돈 태너(일요일 오전)  
데이비드 비 헤이트
- 10 엘 엘돈 태너(신권회)
- 13 보이드 케이 패커, 리차드 지 스코트
- 15 애드니 와이 고마즈
- 18 스펜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 20 요시히코 기쿠찌
- 21 휴 더블류 피눅크
- 23 매리온 지 롬니(토요일 오전)
- 27 스펜서 더블류 킴볼(신권회)
- 28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 복음 교리반—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

### 과 총관리 역원

- 3 엘 엘돈 태너(신권회)
- 7 애드니 와이 고마즈
- 9 스펜서 더블류 킴볼, 바바라 비 스미스(복지)
- 13 마크 이 피터슨, 브르스 알 맥콩키
- 16 엘 엘돈 태너(일요일 오전)  
데이비드 비 헤이트
- 17 엘 엘돈 태너(신권회)
- 21 리차드 지 스코트
- 26 엘 엘돈 태너(복지)  
보이드 케이 패커
- 29 토마스 에스 몬슨

- 31 매리온 지 롬니(복지)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 32 마크 이 피터슨, 오 레슬리 스토운
- 33 매리온 지 롬니(토요일 오전) 버나드 피 브룩뱅크, 요시히코 기쿠찌
- 34 에이 디어도어 터틀
- 35 매리온 지 롬니(신권회)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 36 엘 톰 페리, 애드니 와이 고마즈
- 37 에이 디어도어 터틀, 찰즈 에이 더 데이
- 38 스펜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신권회, 일요일 오전) 엘 엘돈 태너(신권회) 엘 톰 페리, 빅터 엘 브라운
- 39 리그랜드 리차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요시히코 기쿠찌
- 40 엘 엘돈 태너(일요일 오전)  
데이비드 비 헤이트
- 41 매리온 지 롬니(복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브르스 알 맥콩키

## 1980—81 가정의 밤 교재

### 과 총관리 역원

- 5 엘 톰 페리
- 13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 16 애드니 와이 고마즈
- 17 빅터 엘 브라운
- 22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보이드 케이 패커, 버나드 피 브룩뱅크
- 30 매리온 지 롬니(신권회), 요시히코

기꾸찌

- 31 마크 이 피터슨
- 36 리차드 지 스코트
- 38 보이드 케이 패커
- 41 엔 엘돈 태너 (일요일 오전), 데이비드 비 헤이트
- 42 고든 비 힝클리
- 43 브르스 알 맥콩키

### 주일학교 14반

#### 과 총관리 역원

- 3 엔 엘돈 태너 (신권회)
- 5 엔 엘돈 태너 (일요일 오전)
- 22 보이드 케이 패커, 버나드 피 브룩뱅크
- 23 하워드 더블류 헌터
- 26 토마스 에스 몬슨
- 30 리차드 지 스코트
- 31 리그랜드 리차드
- 32 요시히코 기꾸찌
- 35 애드니 와이 고마쥬
- 39 에이 디어더어 터틀

### 주일학교 15반

#### 과 총관리 역원

- 2 엔 엘돈 태너 (일요일 오전)
- 4 오 레슬리 스토운, 리차드 지 스코트
- 5 에즈라 태프트 벤슨, 애드니 와이 고마쥬
- 6 오 레슬리 스토운
- 14 매리온 지 롬니 (토요일 오전), 토마스 에스 몬슨, 마크 이 피터슨
- 15 토마스 에스 몬슨, 찰즈 에이 디메이
- 16 에즈라 태프트 벤슨
- 19 리그랜드 리차드, 보이드 케이 패커
- 20 하워드 더블류 헌터
- 21 보이드 케이 패커, 버나드 피 브룩뱅크
- 27 엔 엘돈 태너 (일요일 오전) 메이비드 비 헤이트
- 42 리그랜드 리차드

### 주일학교 16반

#### 단원 과 총관리 역원

- 1 2 스펜서 더블류 킴볼 (토요일 오전) 더블류 그랜트 뱅저터
- 1 4 스펜서 더블류 킴볼 (토요일 오전)
- 3 1 마크 이 피터슨
- 3 7 리차드 지 스코트
- 3 13 요시히코 기꾸찌

### 주일학교 17반

#### 과 총관리 역원

- 2 스펜서 더블류 킴볼 (일요일 오후), 리그랜드 리차드, 애드니 와이 고마쥬
- 3 스펜서 더블류 킴볼 (토요일 오전), 매리온 지 롬니 (토요일 오전), 리차드 지 스코트
- 4 엘 톰 페리
- 13 오 레슬리 스토운

### 16반 및 17반 보충 공과 제목

- 1 교회의 우리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자매들 (신권회)
- 2 변화 속의 불 엔 엘돈 태너 (부지)  
변성
- 3 교회 행정 엔 엘돈 태너 (신권회)
- 4 예언자 요셉 엔 엘돈 태너 (일요일  
스미스의 공 오전)
- 5 주 예수 그리스도 매리온 지 롬니 (신권  
를 믿는 회)
- 6 성신의 은사 리그랜드 리차드
- 7 경전 읽기 하워드 더블류 헌터
- 8 “하늘에서 온 고든 비 힝클리  
천사 오랜 침묵 깨고”
- 9 무서운 전염 토마스 에스 몬슨  
병 의설물
- 10 기도와 응답 보이드 케이 패커

- 11 변화를 통한 진보 마빈 제이 애쉬튼
- 12 물문 사상의 신비 브루스 알 맥콩키
- 13 예언자 요셉 스미스 데이비드 비 헤이트
- 14 다스리는 자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 15 언어 : 신성한 의사 소통 방법 찰즈 에이 디데이

### 성도의 벗

- 16 “인생에는 목적이 있음” 에이치 버크 피터슨, 1980년 6월호
- 17 “준비하는 신권” 보이드 케이 패커, 1980년 5월호
- 18 “택시를 밀던 날” 제이콥 디오거 1980년 2월호
- 20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엔 엘돈 태너, 지역 대회

### 1980—81 상호부조회

과	방문교사 메시지	영적인 생활	가 사	어머니교육	사회관계
1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2		스펜서 더블류 킴블 (일요일 오후) 매리온 지 롬니 (신권회)			
3	오 레슬리 스토운			에이 디오도어 터틀	휴 더블류 피녹크
4		매리온 지 롬니 (토요일 오전) 리차드 지 스코트			마빈 제이 애쉬튼
5		매리온 지 롬니 (신권회)			
6		스펜서 더블류 킴블 (신권회) 요시히코 기구찌			
7	보이드 케이 패커				제임즈 이 파우스트
8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고든 비 힐클리	엔 엘돈 태너 (복지)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9		빅터 엘 브라운		찰즈 에이 디데이	
10	버나드 피 브룩뱅크	매리온 지 롬니 (복지) 애드니 와이 고마쯔			
11	엔 엘돈 테너 (일요일 오전)			에이 디오도어 터틀	

## 자매들의 노년의 모임 말씀

다음 네 연설문은 9월 15일에 솔트레이크시티 태버네클에서 열린 자매들의 노년의 모임에서 행한 것이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청년 본부 회장 엘레인 캐넌 자매, 초등학교 본부 회장 나오미 셉웨이 자매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전세계 1,500개 지역에서 12세 이상의 자매가 모였다. 대회 기간 중에 킴볼 대관장님이 임원하였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부인인 카밀라 이 킴볼 자매가 읽었다. 이 영어를 쓰지 않는 지역의 자매들에게 알맞는 말로 연설의 번역문을 기록하여 보냈다. 직접 방송을 들을 수 없는 지역에는 대회 테이프를 보냈다.

## 의로운 여성의 역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아내 카밀라 킴볼 자매가 읽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자매들의 전세계적인 대회에서 다시 한번 친애하는 자매님들을 만날 것을 여러 달 동안 고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솔트레이크시티의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분 앞에 설 수는 없지만 나의 영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이곳 말일성도 병원에서 시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작년 모임에서 드린 권고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자주 하는 일이지만 나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함축된 의미를

인식하는 것을 시작이라도 했을까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시작합니다.

경전과 예언자는 우리에게 정의의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행 10:34)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영의 자녀로서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큰 목적에 있어서 나의 동료되시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에는 훨씬 미달하는 것을 경험함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간단하게 줄여 때때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려없이 대한다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나 실망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의 자녀로서 동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똑같이 받습니다. 고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매의 위치는 형제의 앞도 뒤도 아닌 옆에서 걷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교회의 유일한 관심사인 복음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모두

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이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42년 3월호, 161페이지)

그러나 이 큰 확신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임무는 각기 다릅니다. 여자에게는 어머니와 자매로서 중대한 책임이 많이 있고 남자에게는 아버지와 신권 소유자로서의 중대한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여자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으며 남자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전 11:11 참조) 의로운 형제와 자매는 그들의 생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전세에서 성실한 형제는 어떤 신권 과업에 예입된 반면에 성실한 자매에게는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세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때 우리가 동의한 영광스러운 사실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언자와 사도도 지지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래 전에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영원한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1년 전에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평행선으로 개인적인 발전을 하여 행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모든 여성이 필히 경전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독신자거나 기혼자거나 젊거나 늙거나, 미망인이거나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우리 가정의 여성 경전 연구가로 축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경전의 진리에 더욱 더 익숙하게 되면 두번째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일어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여 주기 위해서 경전 연구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여성과 어머니 보다 더 복음의 진리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의로운 노력과 생활의 모

든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받는 축복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매로 알려지는 것보다 더 크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된 자매,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직분과 생활에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 다른 과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신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속적인 차이와 속박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망이나 이혼으로 남편을 잃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의 큰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성을 놓고 볼 때 이런 축복을 놓치는 것은 “잠시 동안”(교성 121:7)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뇌를 경험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영원한 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며 젊음의 불확실성을 생각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도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주제성과 독특한 개성의 영원한 본질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흠뻑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품고 있는 완전한 사랑을 느끼며 그가 개인으로서의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 특히 (한 개인으로서 경험할 때의 그 고요한 불안 속에서) 의심스럽고 당혹할 때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가족 생활의 영광과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듯이,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가족에 속함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합당한 형제에게 인봉되는 둘째 지체의 특권을 갖지 못한 성실한 자매는 모두 영원히 그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지상의 가족 생활에 속하는 순응과 애정을 위하여 고통받



을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고  
녀를 알고 계시며 언젠가 여러분이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인식하십  
시오.

때때로 시험을 받고 합당함을 입증하기 위  
하여 일시적으로 잃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  
다. 그러나 자매 여러분, 의로운 형제 자매  
는 언젠고 우리 아버지가 지니신 모든 것을  
받게 됨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기다릴 가  
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생활할 가치  
까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율법과  
예언자에게 강령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  
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첫째, 둘째 큰 계명  
을 지키기 위하여 결혼하거나 어머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해야 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  
족을 부양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  
고 축복해 주신 재능이 인류에게 과외의 봉사  
로써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  
녀를 낳아 기르는 것과 같은 영원한 지명을  
동반시키게 하는 2차적인 임무로 주의를 돌  
리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  
든 결정에 대하여 주의깊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필멸의 상태에서 온전  
히 봉사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영원히 자신  
에게 적합할 그런 교육을 추구하고 획득하  
시기 바랍니다. 가사에 따르는 기본적인  
중요한 기술이외에도 합당하게 연마하여 가  
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여러분의 효능을 증  
가시켜 주는 다른 기술도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는 교회 자매가 무지하거나 비효율적  
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  
신이 받은 기술을 갖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재능을 사용한다면 이 생과 영원한 생활에  
서 더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교회를 통  
하여 자매들에게 주어지는 약속보다 더 위

대하며 영광스러운 약속은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어디  
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에서 꼭 필요한 생의 본질에 관한 설명과  
확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다른 근  
원으로부터 자신의 유일성과 주체성을 알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구에게서 행복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제학을 배우겠  
습니까?

복음의 해답만이 사람들이 자신과 생과  
우주에 대하여 수세기 동안 품어온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답입니다. 이 진리가 우  
리에게 증대하고 영원한 의무를 지우기는  
하였지만 이 해답과 확신을 축복하여 주셨  
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고귀한 지명을 받은  
자매, 특히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태어  
난 여러분은 얼마나 특별하십니까? 다른 여  
성들은 지각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으로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이 지구에서 사랑, 진리, 의로움을 위하  
여 몹시 필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  
은 거짓된 가치를 이기적으로 추구하고 있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에 필요한 것을  
형제가 마련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 가족  
과 친구와 이웃을 양육하는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하십시오.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 끝으로 전에 이야  
기된 적이 없거나 최소한 이런 방법으로 이  
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마  
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중요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많은 훌륭한 여성들이  
(이들은 내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  
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량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입니  
다. 이런 일은 교회 자매들이 생활에 있어  
서 의로움과 분명함을 나타내는 정도와 행  
복의 방법에 있어서 세상 여성들과 명백하  
게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세상의 참된 여걸 중에는

이기적이 되는 것보다는 의롭게 되는 데 관심을 두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참된 여결들은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고결함에 더 가치를 두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남자답게 보이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답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상기하십시오. 위대한 형제와 자매는 늘 지배하기 보다는 봉사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교회의 자매의 모범이 이 말일에 교회의 수적, 영적 성장에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악마가 이 일을 방해하려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누가 어느 때에 악마의 특별한 관심을 끌든지 악마는 모든 사람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나이 2:27) 만들려고 합니다. 참으로 그는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려" (나이 2:18) 합니다. 그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현명하고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 냉혹합니다.

우리는 신권회 뿐만 아니라 연차 대회의 모

든 모임에서 형제들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비슷하게 권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밤 이곳에 참석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과 영적인 힘이 몹시 필요한 이 경륜의 시대에 여러분이 계심으로 인하여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전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 생과 내세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의 독생자이며 세상의 구속주이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사랑과 축복과 함께 이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어린 자매를 가르침



나오미 엠 섬웨이 자매  
초등학교 본부 회장

**태**너 부대관장님, 롬니 부대관장님, 벤슨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관리 역원 여러분, 권고와 지시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신 전세계의 자매님들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자신의 책임이 무거운 것임을 깨닫고 결혼해집니다. 주님께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알려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어린아이를 특별히 소녀에 대해 말하도록 지시하여 주었습니다.

몇 주 전에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읍니다. 울음 섞인 음성이 들려 왔읍니다. “할머니세요?” 흐느끼는 딸의 목소리임을 알고 내가 기쁨에 차 물었읍니다. “내가 정말 할머니가 되었니?” “네, 방금 딸을 낳았어요.”

그런 거룩한 순간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읍니다. 많은 나의 기도에 답해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읍니다. 방금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난 사랑스러운 영을 돌보는 딸을 보고 나는 마치 구세주의 팔에 안긴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 새로운 영을 내 딸에게 주어 돌보게 하신 그의 사랑을 알았읍니다. 나

의 영은 감사로 가득했읍니다. 이런 축복의 때에, 특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의 할머니가 되었을 때는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모든 할머니가 똑같은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잊지 못할 때가 있는 날부터 나는 전보다 더 우리 세 손녀와 다른 소녀들이 어떤 여인이 되며,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였읍니다.

해답의 대부분이 우리 손에 달려 있읍니다. 여러분의 손, 나의 손 그리고 세상의 다른 여성들의 손에 달려 있읍니다. 이 격동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소녀들이 긴박한 어려움, 약속, 그리고 도전의 시대에서 시험받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거룩한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루이저 메이 울컷(1832—1888, 미국의 작가)는 소녀를 “작은 여인”이라고 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장차 아버지 왕국에서의 지도자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무력한 아기로 처음에 우리 생활에 뛰어들어 곧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갖고 우리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감정은 아기의 구두와 모자의 끈을 매어 줌으로써 시작됩니다. 몇 년 후에는 머리를 땅아 주고 원피스와 끈을 매어 주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묘하게도 10대가 되면 그들이 전화에 매달리고 목욕탕과 자동차를 독차지하고 우리의 지갑 끈을 짜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을 받아 들이며 지내다 보면 세월이 흘러 그들을 자립시켜 시집보내어 그들의 가족을 갖게 해야 할 때가 됩니다. 우리가 할머니가 되어 사랑과 의존의 느낌을 경험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모든 경험은 일반적인 필요성과 발전으로 특징지어 집니다. 이 시기가

일생 중 짧은 시기이지만 성인의 생활을 결정하고 그 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가 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 간증, 그리고 의로운 생활의 기쁨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 나느니라.”(교성 64 : 33)고 하신 말씀을 자주 기억하여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소녀들이 훌륭하게 발전하려면 그들의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주님의 여종이고 여성으로서의 큰 축복을 받을 상속자임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 중의 하나가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노래”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좋은 소식과 기쁜 일”에서의 자기의 특별한 역할을 알려 주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마리아와 하늘 사자와의 대화가 조금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기쁨을 사촌 엘리사벳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구원의 계획이 알려졌으며 그녀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눅 1 : 46-47)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마리아가 구세주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결심했을 때 구주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매로서, 우리의 소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천은 습관의 종교생활 아닌 헌신의 종교 생활이 됩니다. 이같은 헌신

은 우리가 공포, 혼란, 그리고 망설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해 줍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에 참으로 강해집니다.

성인 자매가 길을 인도해야 할 때 어린이가 길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본보기로는 한 소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전도사가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고 묻자 “나는 물론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전도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물론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겠니?” 수줍어 하였으나 확신을 갖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럽게 여겼을 거예요.”

내일을 봅시다. 최근에 이것을 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일을 오늘 생각하라! 내일이 어린이의 발걸음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힘의 강약은 어린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소녀만이 여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명, 부름, 연령과 환경에 따른 육체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가 행하도록 마련된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자매가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반대 세력이 지금보다 더 컸던 때가 없었으며, 그러나 우리의 숭고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지금보다 더 많은 때도 없었습니다.”(“소개”, 자매, 데저렛 출판사, 1979년, 2페이지)

우리의 연령이나 생의 임무에 관계없이 오늘날 자매로서 우리의 임무는 모범을 보여 “작은 여인”을 인도하고 자매로서의 우리 역할과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 생에서 큰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매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우리의 막중한 임무



엘레인 에이 캐넌 자매  
본부 청년 회장

**미** 국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그의 뜻을 알기 위해 모인 자매님들에게 템플 스케이에서 말씀드리게 되니 나는 우리의 자매 관계가 전세계에 뻗어져 있음을 알고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나는 영어를 모르는 많은 자매님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대회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영을 높이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강화하여 여성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세상에서 주님의 편에 서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성들에 대한 의견이 여러모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도 전개됩니다. 나는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 소녀들이 거리를 더 활보하게 된다고나 여성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리거나 효과적으로 봉사하며 더 예뻐 보이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이 여성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우리

곁에 형제님들이 계시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음성을 높이도록 부탁하면 기쁘게 더욱 자주 우리를 옹호하여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총관리 역원들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는 모든 일에 자매로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말일성도 자매는 단 순히 보호받을 뿐 아니라 특권을 갖고 있으며, 생은 우리에게 대한 많은 특별한 약속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경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권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책임을 수행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매들은 방해가 아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움, 자매, 그리고 준비된 조력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누구이거나 내가 여러분에게 품고 있는 느낌이 표현되어 있는 글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썼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살전 2:7-8)

오늘 밤 우리는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자매님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범람하고, 가족을 위협하며 개인의 능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풍조를 없애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둘째, 우리를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나, 우리 스스로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진실된 것인지 알아 훌륭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에 좌우됩니다. 셋째,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헌신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능한 임무를 해 나가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나 어머니의 직분에서도 그러하겠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매 여러분, 여성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집을 지키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가정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연구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첫째 단계를 넘어 선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 갑니다. 귀뚜라미가 울면 성탄절이 곧 오게 됩니다. 오늘 작은 소녀가 내일이면 성장한 여인이 됩니다. 만사가 이와같은 것입니다. 오늘 밤 열두 살 밖에 안된 여터분이 금새 마흔 살이 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에 대하여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은 한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느 지역 대회에서 킴블 대관장님이 어린이들과 인사하시는 동안 나는 카밀라 킴블 자매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임신부가 우리에게 달려와 킴블 자매님을 안고 울었습니다. 조금 후에 마음을 진정시킨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킴블 자매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칭찬하시며 남편을 잘 도우십니까.” 이 말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킴블 자매님, 제 남편은 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그대로이며 오히려 그 이상 되시는 킴블 자매님이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경험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젊은 임신부는 위안을 받고 돌아 갔습니다. 시작은 끝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자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거나 시작보다는 끝이 났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녀는 머리를 들고 자신있게 나아갔습니다.

나는 에벤의 본질을 이루는 노고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의 목적은 바로 개인적인 발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온 주의를 다 기울이고, 충성을 바치며 헌신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생의 계획을 지금 곧 실천하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도자를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자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원하시며 여성으로서 하기를 바라시는 일에 맞추어 지성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점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도와 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언자를 불러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언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킴벌 대관장님은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도와 주심으로 우리는 모두 축복받고 있습니다.

킴벌 대관장님은 4월 대회에서 우리가 성장하여 응색한 땅을 떠나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인 분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향상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의 홍수에 빠졌는지, 아론 백성과 함께 금송아지를 빚는 일에 몰두하지나 않았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구세주의 사업은 저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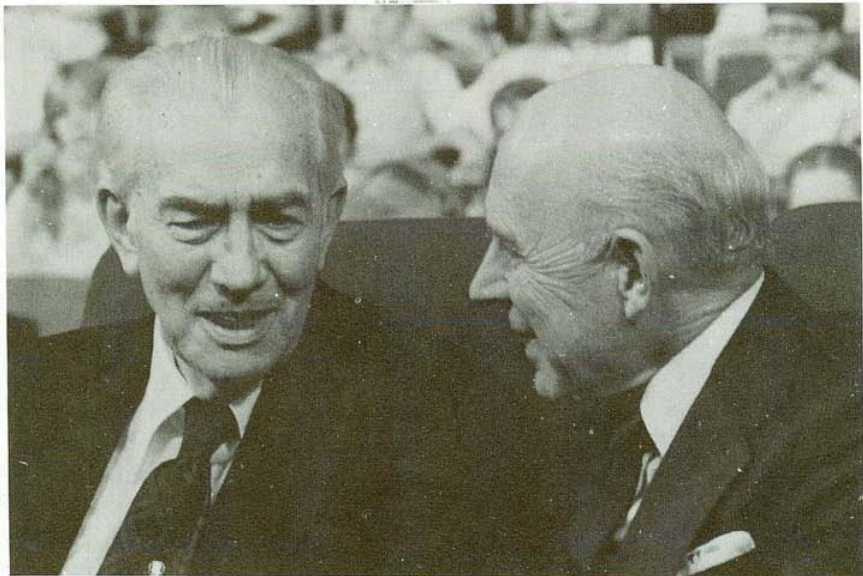
자매 여러분, 나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진보해 갈 필요는 있습니다.

형제님처럼 우리에게도 전능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지도자와 주님께게서 끊임 없이 생의 교훈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성이 지닌 귀한 힘으로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말일의 자매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말**일성도 자매가 “내게 여성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중요한 질문에 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게 무엇을 시키시나이까?” 하고 수없이 되묻는 질문을 4백명의 음성이 다시 물은 것입니다.

경전에는 바로 이런 질문에 한 여인이 응답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에스더 여왕입니다. 그녀가 질문할 때는 그녀의 아저씨 모르드개가 그녀에게 왕에게 가서 그를 구해 주고 패망하게 된 백성을 구하도록 간청해 보라는 전갈을 보낸 어렵고 매우 외로운 때였습니다. 에스더는 여왕이었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간청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아저씨가 그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에 4:14)

에스더는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차랐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그녀는 왕국의 모든 유대인에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결음씩 옮길 때마다, 그녀는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왕이 홀을 내던지지나 않으실까?” “나를 죽이지나 않을까?” “나를 내쫓아 거지가 되게 하지나 않을까?” 그녀는 젊고 아름답고 침착한 모습으로 그러나 전혀 무력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으며 참으로 부도덕한 행위가 수행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든, 그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현대의 모든 여성들도 에스더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은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자신의 지상 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영원한 진보의 기회에 합당하게 되려면, 자매들은 각자 복음의 원리에 참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성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녀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경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이것이 한 걸음에 하루 혹은 일년 동안에 얻을 수는 없는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자매가 되기 위해 일생동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생활을 추구하며 배워야 합니다.

1874년에 엘리자 알 스노우자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대의 사도 바울이 거룩한 여성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여성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



리가 거룩한 여성이 되자면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의무를 행하는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자매는 하나도 없으며 이 지상에 하나하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먼스 익스프레스 1873년 9월 15일 62페이지)

주님께서 밝히신 방법은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극복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이며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자녀를 열두 명씩이나 두어 세 가족의 어머니인 내 친구는 낙담하는 일도 있지만, 성공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갔을 때, 주로하는 이야기는 (1)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운동을 싫어해서 빨리 해치웁니다. (2) 경전을 읽습니다. 그녀는 경전을 읽기를 즐겨 30분씩 읽기로 하였습니다. (3) 기도를 드리며, 감사와 관심거리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해도 주님의 인도와 지시를 느낍니다. (4) 그녀는 적극적이고 즐거운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나의 친구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가사 일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확실히 가정에서 완전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녀들이 매일 피아노를 연습하지 않아도 계속 연습하면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통하여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인식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할 줄 알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함께 웃으며 생활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 에스 루이스가 가사에 관하여 훌륭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가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을 가정에서 음식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게 한다면, 기선이나, 기차, 광산, 자동차, 정부

등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싸우고 여가를 위하여 일하며, 먹기 위해서 음식물을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의 가사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시 에스 루이스의 편지, 워렌 애치 루이스 편집, 런던 지도프리 블레스사, 1956년, 62페이지)

나는 모든 여성이 가정에 들어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며, 가족의 부양이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직장에 다녀야만 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친구의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이나 나의 기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역할은 아니나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 들리워져 꼭 필요할 때는 어린 자녀를 놓아 두고 직장에 다니는 것조차 주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당한 이유로 가정을 떠나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자매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봉사하여야 합니다.

여성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맡은 바 할 일을 하십시오.

나는 최근에 전쟁중인 나라에서 만난 순종하는 자매들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이 그 위험한 와중에서도 직원들에게 매일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 테러단의 공격을 받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방문 교사 임무를 수행하고 모든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기에 참으로 힘찬 일을 행하는 용기있는 자매입니다.”

에스더처럼 우리도 자신을 강화하여 힘들

고 의로운 때에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시현에 의지하여 의로운 원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개의 불후의 권고가 오늘 날에도 우리의 귓전에 울립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에 4:14)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업을 성취시키고, 자녀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이 세대를 준비시키려 보내신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됨을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 말일에 거룩한 여성이 되도록 합시다. 그것은 “택하신 족속이요...거룩한 나라요...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